

碩士學位論文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아이들

(Children of Cambodia's Killing Fields•소필린 치암 사피로 외 28명•翻譯論文)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韓英科

金賢貞

2009年 2月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아이들

(Children of Cambodia's Killing Fields•소필린 치암 샤피로 외 28명•翻譯論文)

指導教授 朴 璟 蘭

金 賢 貞

이 論文을 通譯翻譯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年 2月

金賢貞의 通譯翻譯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김재원



委 員

員

변종민



委 員

員

박경란



濟州大學校 通譯大學院

2009年 2月

Children of Cambodia's Killing Fields

Complied by Dith Pran

Hyun Jung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 Ran Park)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February 2009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On April 17, 1975, Khmer Rouge communists took over Cambodia. They wanted to create new Cambodia with their own bizarre communist ideal attempting to turn Cambodia into an agrarian society. Pol Pot, the leader of the Khmer Rouge, studied in France for four years and was fascinated by the communist ideal there. He abolished all institutions, education systems and social infrastructure, and then forced all Cambodians into the countryside to work in forced labor camps. During his reign it is estimated that 2 million Cambodians were murdered, starved, and killed by disease.

This book was written by the Cambodian people who suffered great pain under the rule of vicious Khmer Rouge from 1975 to 1979. It includes twenty-nine real stories of Khmer Rouge regime's survivors. Each survivor was a child at that time of Cambodia's holocaust, and each tells of families torn apart, loss of innocence, ceaseless struggle to survive against all odds, and ultimately the triumph of the human spirit.

감사의 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역대학원은 저에게 대단한 행운이자 무척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시고 논문이 잘 마무리 되도록 이끌어 주신 박경란 교수님, 단어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음미해보도록 지도해 주신 김재원 교수님, 학업에 있어 노력과 성실함을 기르게 해주신 김원보 교수님, 논문심사를 해주신 영어교육과 변종민 교수님, 그리고 대학 신입생 시절부터 영어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행정학과 강영훈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모님, 늘 나에게 힘이 되어 주는 곧 남편이 될 사랑하는 승훈 오빠, 든든한 두 동생 지훈이와 세훈이, 방학 때마다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기꺼이 숙식을 제공해 준 명선이와 힘들 때마다 격려와 조언을 해주었던 난이와 윤정, 영어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 준 지원, 멋진 친구 미경과 은정, 영주, 논문 쓰는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제주발전연구원 고태호 박사님, 임정현 선배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저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한영과 8기와 선후배님들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존자들의 이야기

캄보디아

킬링 필드의

아이들

무자비한 전쟁과 킬링필드에서 죽어간 우리의 가족과
모든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프란의 인생을 기술한 디스 프란의 이야기를 전해주시신
Haing S. Ngor 박사님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박사님은 캄보디아의 실상을 알리는데 동참해 주셨고
정의를 위해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크메르 루즈의 킬링필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목 차

자료를 수집하며 디스 프란-----	1
서문 : 뒤집혀진 세상 벤 키어난-----	3
적들이 나에게 가르친 노래 소필린 치암 샤피로-----	10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찰스 피어사스-----	14
내 피부에서 나온 벌레들 티다 버트 맵 -----	17
한 손가락의 밥 유킴니 찬-----	22
한 아이의 악몽같은 기억 스텝 K. 행 -----	30
새해의 놀라움 스테이토치 스페이-레이서-----	36
내 인생의 어둠던 날들 사부스 펜 -----	42
벽 없는 감옥 찰스 옥 -----	48
참혹함을 목도하는 것 몰리 리 -----	52
불행한 캄보디아 사름 프락 -----	59
어둠속의 삶 로은 삼 -----	63
네 살의 눈으로 본 크메르 루즈 사라 P. 툰 -----	71
내 고향의 비극 네이비 -----	75
상처, 고통, 그리고 고난 라샤 두웅-----	78

내 어두운 경험	크훈 키브	-----	84
공포가운데서의 생존	젠 L. 리	-----	87
폴 포트	수지 햄	-----	91
비통한 삶	오욱 빌라	-----	93
계획에 없던 여정	홍 A. 초악	-----	99
모국	비볼레쓰 보우	-----	103
어머니의 용기	아란 안	-----	107
공포로 부터의 탈출	리쓰 미안	-----	114
부영이 올 때	찬리씨 힘	-----	117
어린 시절의 끝	세쓰 K. 탕	-----	123
나의 슬픔	다리쓰 케오	-----	127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삶	데이브 로흔	-----	132
악몽	햄손 C. 타잉	-----	134
깊이 새겨진 연민	소피어 모우쓰	-----	141
토닐 썩(Tonle Sap)강 대학살	론니 임수트	-----	146
용어 설명		-----	155

자료를 수집하며

디스 프란(Dith Pran)

나는 한때는 평화로웠고 중립국이었던 나라, 캄보디아 출신이다. 1950년대 중반 군주 시하누크왕자는 캄보디아는 더 이상 프랑스의 식민지가 아니며 중립국을 당당히 밝혔다. 그러나 1960년대 캄보디아가 베트남전쟁에 말려들면서, 이러한 행복한 시절은 끝이 나고 말았다.

북베트남군은 호치민시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캄보디아 내 국경까지 쳐들어왔다. 닉슨행정부가 이끌던 미국은 북베트남의 은신처와 군수품 공급로에 폭탄을 투하했고, 이로 인해 수많은 캄보디아 양민들이 죽음을 당하고 공산주의자들은 점점 더 깊이 캄보디아에 숨어들게 되었다.

결국 북베트남군이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인 크메르루즈 (Khmer Rouge)를 훈련시켰다. 북 베트남인들은 중국과 소련식 무기로 크메르루즈를 무장시켰고, 이들은 캄보디아의 지방에서 강력한 무장단체로 성장하였다. 캄보디아 정부는 북부와 동부를 제외한 도시들을 통치하고 있었다. 지방에서 크메르루즈는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갔다. 정부군이 막사로 돌아간 오후, 크메르루즈는 도시의 경계선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애국단체라 주장했던 크메르루즈는 현 론놀(Lon Nol) 정부의 부패와 미국의 폭탄투하를 악용하였다. 도시를 포로로 삼고, 마을에 불을 질렀으며 자신들의 대의명분에 뜻을 같이 할 젊은 크메르들을 모집했다.

결국 크메르루즈는 프놈펜을 에워쌌고 시민전쟁이 일어난 지 5년 만인 1975년 4월 17일, 거리에 자신들의 깃발을 흔들며 도시를 장악했다. 1979년 1월까지 그들은 모든 캄보디아인들을 강제 노동수용소에 몰아넣고 하루 14-18시간씩 일을 시켰다. 그들은 우리에게 하루에 죽 한 그릇만을 주었고, 가족들을 분리시켰으며, 캄보디아인들의 모든 제도와 문화를 파괴하였다. 또한 조직적으로 무고한 양민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이 기간 동안 캄보디아 전체인구의 약 삼분의 일이 질병, 굶주림, 처형 등으로 죽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캄보디아의 젊은 세대들과 캄보디아계 미국인들이 크메르루즈 치하에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이들이 그 당시 죽음을 당했던 친척과 친구들의 얼굴을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그 죽음은 정의를 향한 외침이었다. 그들의 목소리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량학살과 몰살이 이 땅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할 수 없는 이들을 대신해 소리 높여 세상에 알리는 것은 생존자인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무고하게 죽어간 이들의 명령은 영원히 내 마음속에 남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료들을 수집한 이유이다. 나는 미래 세대들이 이 생존자들은 누구이며, 이 영웅들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하였는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영화<킬링필드>를 통해 나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을 런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모음집을 통해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와 우리 국민들에게 저지른 인류의 비극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또한 여러분이 1975년 4월 어느 화창한 날 어린 시절을 잃어버린 캄보디아 생존자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서 문

뒤집혀진 세상

벤 키어난(Ben Kiernan)

“또한 상기인의 아내, 조지아나,” 찰스 디킨슨의 소설 *위대한 유산*의 어린 핼은 아버지의 묘비를 보며 위와 같이 읽었다. 그가 아는 부모님은 무덤을 통해서가 전부였다. “또한 조지아나... 이게 우리 어머니예요.” 핼은 탈옥수 매그위치에게 설명했다. 아버지에 대해 묻자 핼은 “아버지도 이 교구소속이었죠.” 그 탈옥수는 핼을 놀라게 하기 위해 그를 잡고 위 아래로 뒤집은 다음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핼은 “교회는 그대로 인데, 갑자기 그가 강한 힘으로 뒤집어 버렸고, 나는 내 발 아래에 있는 교회 뽕죽탑을 보았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그는 나에게 가장 놀라운 회전과 하강을 보여주어 교회가 닭 모양의 풍향계를 뛰어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의 아이들은 아이들의 관점에서 캄보디아 아이들의 삶을 뒤바꿔 놓은 곳, 낯설고 혹독한 세상을 보여준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루즈 정권은 불교 전체를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가정에 역사상 가장 처절한 공격을 가하였다. 독립전쟁 이전에 크메르어로 kruosaa는 가족을 의미했다. 그러나 크메르루즈 하에서 이 단어는 배우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 크메르루즈가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 하면서 아이들은 배제된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부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크메르루즈의 집권조직인 옹카르(Angkar)에 속하게 된 것이다. 핼처럼, 캄보디아 아이들은 고아가 되었고, 부모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며 새로운 가족에게 입양된 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던가를 계속해서 말하게 된 것이다.

캄보디아의 대부분의 가정이 파괴되었고, 옹카르는 가정생활을 억압했다. 캄보디아는 한 가문이 통치하는 독재국가가 되었다. 당시 통치세력은 수상 폴 포트

(Pol Pot)의 가족과 부총리 이엥 사리(Ieng Sary)의 가족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 두 사람도 키우(Khieu)가의 여성들과 결혼을 함으로써 친척관계이다. 옹카르와트의 군 참모 총장인 목(Mok)씨 일가는 형제자매, 자녀, 혼인으로 인한 친족관계에 있는 친척들이 남서부지역 중심부 및 국가의 다른 지역들도 통치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가정의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막사에 살거나 멀리 떨어진 일터에 살았다. 남서부 지역에서는 출신지역이나 친족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카테고리 분류하였다. 그러나 이는 대가족이나 핵가족이 함께 살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가족의 “영향”- 사랑이라는 치명적인 단어가 정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1972년, 론 놀 정부에게 승리하기 3년 전, 남서부에 있던 크메르루즈는 자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자신들의 가족이념을 담은 노래를 만들어냈다. 하나는 크메르루즈 군사들에 대한 것으로써 다음과 같은 노래이다.

너희들은 너희 조부모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멀리 있다
너희들은 너희 어머니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집에 있다.
너희들은 언니, 누나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그들은 론 놀 군인에게 시집갔다.
너희들은 부자에게 의지한다
그러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한다.

마지막 두 소절은 크메르루즈가 가족관계를 계층 간의 관계와 같은 카테고리 여겼다는 것을 보여준다. 적대적이지 않다면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묘사되었고,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다. 1977년, 남서부 지역의 크메르루즈 당원들은 중앙 집권을 하고 있는 폴 포트 대신 나머지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동부 지역의 한 소작농에 따르면, 새로운 당원들은 가족주의 따위는 잊어버리고, 석 달에 딱 3일만 부인과 아이들을 만나도록 허용하면서도, 더 이상 그들을 그리워

하지 말라고 했다. “가족주의”는 크메르루즈 용어로 잃어버린 자의 가족이며 이는 범죄행위로 간주되었고 종종 사형에 처하기도 했다.

1977년에 남서부의 크메르루즈가 가르친 다른 노래에서는 “우리, 어린이들은 옹카르에 무한한 사랑을 바친다.”라고 맹세하고 있다.

혁명이전, 어린이는 가난했고 고통의 삶을 살았네
짐승 같은 삶과 고아로써의 고통...
이제 이 영광스런 혁명이 우리 모두를 보살피네
공동체 삶을 살아가는 강한 힘과 건강을 보장하네
입을 옷을 주고, 밤에는 춥지 않게 해준다네

독자들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이 가사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생길 지도 모른다. 1978년, “남서부의 아이들”이라는 제목의 새 노래는 폴 포트 정권하에서의 어린이의 역할을 보여준다.

우리 어린이는 무장 세력을 환영하고 맞이하네
그들은 방심하지 않았고, 친구였으며, 적을 쳐부수는데 밤잠을 자지 않았네
영웅적인 전투부대와 영광스런 사람들
만세, 만세, 우리는 박수치고 환호하네.
방심하지 않았고, 친구였으며, 적을 쳐부수고 승리를 쟁취한 무장 세력에게 승리를!

독자는 이 정권이 일 년이 채 못 되어 패배했다는 것 때문에 가사의 정확성에 대해 의심을 품을 지도 모른다.

1975년 이후, 전국적인 대규모 납치로 인해 옹카르의 간수와 방위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옹카르가 비밀경찰, 산테발(Santebal)요원을 모집할 때, 지원자들은 11쪽에 달하는 전기형식의 지원서를 작성했다. 이 지원서는 32개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는 지원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묻는 것들이었다. 10개의 질문이 지원자의 배우자를, 4개의 질문이 자녀를, 7개의 질문이 부모를, 6개

의 질문이 시부모나 장인 장모를, 5개의 질문이 형제자매에 관해 묻는 것이었다. 가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크메르루즈 활동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부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모가 정치적 힘이 있거나 경제적, 물질적, 정서적으로 당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당신이 부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가?”를 지원자에게 물어보았다.

“친 자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치안경찰과 간수를 하게 될 방위군은 자녀의 나이와 성별, 결혼한 자녀의 수, 자녀의 직업, 정치조직 가담 여부, 혁명가담 여부, 혁명에 관한 태도와 행동 등을 기술해야 했다.

또한 지원자들에게 자녀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혁명적 관점을 물어보았다.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자녀가 어떤 종류에서든 당신에게 영향력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이 책에서 살아남은 희생자들은 항거한다. 그들은 당시 아이들이었다. 지금은 그 기억과 함께 어른이 되었다.

그 기억은 악몽 같은 것이었다. 어두움은 모두에게 한결같은 공포이다. 그러나 크메르루즈 하에 있던 아이들에게는 잠자는 것조차도 삶의 무서운 단면 중 하나였다. 로은 삼은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밤이 오면 저는 항상 걱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자라고 했지만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옹카르는 밤에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서 누가 잠을 자고 누가 깨어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다음이 내 차례가 아닐까 겁이 났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죽게 될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거의 쉬지 못한 채 호각소리가 들려오면 나는 ‘휴~ 난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줄을 썼지요.” 크메르루즈 군인은 아이들에게 가서 쥐 죽은 듯이 자라고 명령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그보다는 좀 나았다. 생존자 오크 빌라의 말이다. “이른 아침 모든 아이들은 일어나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발로 채이거나 그룹의 리더가 끌어냈습니다.” 크메르루즈는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억압받는 존재라고 간주하면서도, 어른처럼 행동하기를 요구했다. 흥 A. 초약은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했다. 크메르루즈는 어른으로 자라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캄보디아의 도시들에서 대피한 아이들을 괴롭혔던 또 하나의 악몽은 정글이었

다. 정글은 가장 위험하고 안전하지 않은 장소였다. 크누안 키브의 당시 기억은 독을 가진 벌레, 호랑이, 코끼리, 독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크메르루즈는 시골의 자원과 생산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옥 빌라가 말하듯이, 이런 곳은 그들이 감히 존재하리라고 상상도 못했던 시골지역으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공포스럽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었다. 그들은 끊임없이 균형을 잃었다. 쟈 L.리는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한쪽발로 지탱하고 서서 벼를 베려고 하면 흙탕물에 빠지곤 했습니다. 내 몸은 너무 가벼워서 그 목직한 진흙탕에서 균형을 잡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비가 오면, 내 몸은 엄마의 보호와 따스함을 갈망하는 작은 병아리처럼 떨렸습니다. 내 몸은 뼈와 피부밖에 안남아 있어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대부분 캄보디아 도시출신이다. 혁명이전, 도시는 시골보다 훨씬 풍요로웠다. “어린 시절이 참 좋았습니다... 어린 시절 내가 알던 캄보디아는 참 아름다운 곳이었지요.” 유킴니 찬은 말한다. 이에 덧붙여 쟈 리는 “나는 안전한 곳에서 넉넉한 생활을 했지요”라고 했다. 반면 크메르루즈 하에서는 “빈속으로 하루 10시간이상을 일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저는 들쥐나 개구리를 잡는 것도 잘 못했습니다... 도랑과 댐을 만드는 일은 4피트도 안 되는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작농의 자녀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이들과 비슷하게 끔찍하다. 1979년 3월, 나는 한 태국공무원의 무보수 하인으로 일하고 있던 13살과 14살의 캄보디아 소작농 소년 둘을 만났다. 그들은 패배한 크메르루즈 군대에서 막 도망쳐 나왔었다. 그들 중 한 명인 셋은 1975년과 1976년에 그의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자, 크메르루즈가 매일 사람들을 죽였다고 대답했다. 1977년에는 젓을 댄 모든 아이들을 데려다가 크메르루즈의 여성동지들이 관리했다고 한다. 엄마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셋이 알고 있던 많은 소년들은 그들의 어머니를 무척이나 그리워했으며 몇 몇은 슬픔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크메르루즈는 울음을 그칠 때까지 막대기로 때리곤 했다고 한다. 11살이 되었을 때 셋은 태국 국경선에 있는 정글에 길을 놓는 강제 노역을 위해 백여 명의 다른 소년들과 함께 끌려갔다. 일이 너무 고되어 어떤 소년들은 일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태국으로 도망치고 나서

셋은 2년 동안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그들이 살아 있는지 고향집은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셋은 자신이 어른이 되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다.

이 아이들의 가족이 몇 명이나 죽었는지 사망자 수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 책의 대부분의 저자들은 부모, 형제, 자매를 잃었다. 부모 형제가 살아남은 경우에도 삼촌, 고모, 이모, 사촌, 조부모를 잃었다. 다 합해서 약 170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죽었다. 6백만 명의 생존자들은 가족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다 빨빨이 흠어졌다. 수지 햄은 본문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와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두 달에 한번 어머니는 아버지를 몰래 찾아와 음식과 물이 있는 다른 곳으로 도망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를 다양한 방법으로 파괴시켰다. 아이들은 성인처럼 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처럼 지시를 받았던 어른들은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동물들이 노동자들보다 더 넉넉한 음식을 배급 받았다. 어른들은 정권으로부터 동떨어져갔고 크메르루즈에게는 어린이들이 혁명을 재생산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아이들은 무장세력, 군인, 처형자로 고용되어 자신의 가족을 뒷조사하였다. 크메르루즈는 새 사회의 기반으로 아무런 기억이 없는 아이들을 이용하길 원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그러한 희망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가족과 기억들을 잊지 않고 있다. 중국에는, 위대한 유산에서 나오는 교회의 뽀족탐처럼 세상은 스스로 바로 세워진다.

부모의 묘비에 쓰인 내용에서 꺾은 아버지에 대해 “상기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그의 아버지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만약 사망한 우리가족 중 누구라도 하층민이라고 여겨졌다면, 나는 분명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가족으로부터 강제적으로 분리된 캄보디아의 아이들도 이와 비슷한 충격이 있었다. 옹카르가 아이들에게 가르친 노래 속에 포함된 크메르루즈의 정치선전은 부모를 향한 아이들의 사랑과 존경심이 줄어들게 하지 못했다. 아란 안의 예를 들면 그대로 드러난다. “내가 크메르루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커다란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었기 때문이다.”

베트남군이 폴 포트 정권을 패배시킨 후 독특한 사회개혁이 캄보디아에서 일

어났다. 불교가 시골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온 나라에 퍼져 있던 고아들은 즉시 그들의 흠어졌던 가족에게 다시 보내졌다. 이 책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은 다시 일어났다.

* 벤 키어난은 예일대학의 역사학과 부교수이자 캄보디아 대학살 연구소의 소장이다.



적들이 나에게 가르쳐준 노래

소필린 치암 샤피로 (Sophiline Cheam Shapiro)

1975년 4월, 흔히 크메르루즈라고 불리는 민주 캄푸치아 혁명군이 프놈펜을 휩쓸었다. 몇 주 만에 그들은 프놈펜 시민들을 농업 공동체로 분류하였고, 역사가 끝났음을 선언하였다.

크메르루즈는 멋진 시골의 삶과 고된 노동의 가치, 열정의 덧없음에 관해 노래했다. 모든 것이 옹카르와 영광스런 혁명에 관한 것이었다. 노래들은 경쾌하고 아름다운 멜로디와 시적인 가사로 이루어졌다. 그들의 의도는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눈에 숨어있는 뱀과 강의 급류에 의한 위험, 배고픔을 잊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밭에는 폭탄이 곳곳에 떨어져있었고 팽이질을 하다 갑자기 폭발하기도 했다. 경작명령을 받은 밭에서 사지가 떨어져 나간 채로 옮겨지는 노동자들을 봤던 기억이 난다.

크메르루즈 정권하에서 배운 동요 중 내가 기억나는 하나는 “위대한 옹카르 (The Great Angka)”이다.

우리 어린이들은 옹카르를 무한히 사랑하네
당신들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네
혁명이전, 어린이는 가난했고 짐승처럼 살았네
우리는 춥고 고통스러웠으나
적들은 우리를 신경쓰지 않았네
뼈에 가죽만 붙을 정도로 말라버린 우리는
밤새 땅바닥에서 잠을 잤네
낮에는 구걸하고 음식을 찾아 쓰레기통을 뒤졌네
이제 옹카르가 건강과 힘을 주네
이제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네

이제 우리는 옷이 있고, 굶지 않으며, 참혹한 일상은 끝이 났다네
혁명, 평등 그리고 자유의 빛이 영광스럽게 빛나네
오, 옹카르, 우리는 당신들을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혁명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숫자와 알파벳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좋은 심성을 품은 훌륭한 노동자가 되기 위해
혁명을 지속하기 위해

신민주 캄푸치아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노래들은 정치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애나 실연에 대한 노래는 없었다. 피와 희생이 당시의 주제였다. 크메르 루즈의 국가는 “Phleng Cheate”라 불렸다.

고향 캄푸치아의 마을과 평원에 뿌려진 붉은색 피,
노동자와 농부들의 빛나는 피
남녀 혁명군의 빛나는 피

이 국가는 미래에 대한 장엄한 약속으로 끝난다.

진군하라, 새로운 캄푸치아여

민주와 번영의 길로 진군하라.

굳은 결의로 높이 들어라.

혁명의 붉은 깃발을.

조국을 재건하여

대도약의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라.

영광과 기적의 땅이 될 수 있도록.

9살이었던 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 믿었다. 우리의 미래가 열리리라 생각했다. 민주주의(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음)만 아니라면

엄청난 번영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우리의 노동은 하루 종일, 매일 계속 되었다. 해가 뜬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종일 일을 했다. 하루에 두 끼 먹는 식사는 물이 많은 쌀죽 한 컵이 전부였다.

해방이 되면, 웃음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리라
땅에도 숲에도 그리고 마을에도
사람들은 저마다 즐겁게 일을 하리라
마을에서도 일터에서도
일을 하면서 신나게 노래하리라
보라, 저 광활한 눈을 보라
황금색 카펫처럼 잘 익은 벼를 보라
왼편에서는 어린 벼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오른편에서는 다시 심은 벼들이 서로 경쟁하듯 자라고 있다
그리고 뒤편에서는 바나나가 잭푸룻과 파파야, 망고와 바나나와 경쟁하듯
자라나고 있다
풋풋한 과일과 잘 익은 과일의 향기가 온 천지에 퍼진다
집 앞에는 레몬그라스, 배추, 허브, 봄양파, 칠리가 무척이나 푸르다
우리는 이런 시골에 살고 있어 너무 행복하다
우리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행복하다
우리는 전보다 더 많은 쌀을 생산해 내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신 캠푸치아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독립국이자 중립국이며 평화롭고 발전된 민주적인 영광의 나라, 캠푸치아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가 행복 속에 산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했다. 그러나 그 많은 쌀은 다 어디로 가버렸는가? 민주주의도 없었고 영광도 없었다. 웃음소리도 없었고 행복도 없었다. 1977년부터는 더 이상 노래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평화도 분명히 없었다.

나는 가끔 생각해본다. 오빠 파본이 노동단에 소속되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면서 이질로 인한 현기증으로 수도원계단 꼭대기에서 기절하여 목이 부러졌을

때에도 비옥한 논, 푸른 칠리와 위대한 새로운 캄푸치아의 모습을 떠올렸을 가
를.

나는 아버지와 두 오빠, 할머니, 그리고 많은 사촌과 삼촌을 잃었다. 나는 대부
분의 우리 세대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 가족 구성원이 아무도 죽지 않고 생
존한 가정은 거의 없었다. 엄청난 배신의 시기였다. 하늘나라의 부를 약속했던
노래가사는 우리의 지옥을 만들어낸 바로 그 사람이 썼던 것이다.

1979년 1월 7일, 베트남은 크메르루즈를 숨긴 채 캄보디아의 '해방'을 선언했
다. 당시 캄보디아의 분위기는 비교적 좋았다. 모르는 사람들도 가진 것이 없지
만 서로 도움을 주며 아량을 베풀었다. 수많은 가족들이 낯익은 곳을 찾아 여기
저기로 떠돌아 다녔다. 어떤 이들은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건너가기도 하였지만
우리가족은 결국 프놈펜으로 돌아왔다.

나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다. 최근에 언젠가 나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깨달았
다. 내가 살아왔던 시기의 각 정파들이 나에게 어떻게 가르쳐 왔던 가를, 그러면
서 그 다음 정권은 내게 이전 정권과는 또 완전히 다르게 말하도록 만드는 것이
었음을. 내가 이데올로기의 이런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기에, 우리 세대 모두가
이런 혼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진실이 무엇이었
던 가를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만 하는 것이다.

나는 크메르루즈의 노래를 거의 듣지 않는다. 왜 그러는지도 잘 모른다. 나는,
여기 노래들의 멜로디가 떠올리게 만드는 그 공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그
노래들이 어떤 것보다도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임을 잘 안다. 우리가 어떤 운
명들이었기에 그것들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노래들은 우리 세대 캄
보디아인들의 특별한 경험을 반영한다. 크메르루즈는 이런 역사를 지워버리려고
하였다. 그러기에 그 노래들 속에서는 중요한 지명이 날조되어 있기도 하다. 그
래서 내가 내 적들이 가르쳐 준 노래를 절대 잊지 못하는 것 이다.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차쓰 피어사쓰 (Chath Piersath)

당신의 무덤에 꽃을 놓기 위해, 잘 가세요 라고 말하기 위해, 마지막 딱 한번만 안아보기 위해, 나를 당신에게 보이고, 당신 아들이 어떤지 보여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다리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당신과 너무도 닮은 내 눈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내 손은 이러한 어두운 희망을 쫓아버리려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게 되길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 먼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멀리서, 어려움을 겪는 집에서, 절뚝거리면서 아이들을 찾아 텅 빈 먼지 날리는 길에 있는 것을 봅니다.
크메르루즈는 그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신의 아이들을 노예처럼 일을 시키기 위해 옹카르가 데리고 갔습니다.
5년 동안 그들에게서 소식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큰 아들과 그의 가족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나만이 유일하게 남아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질문에 답을 요구하는 당신을 보았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당신도 남은 자녀를 구하고자 이에 대항해 싸우셨습니다.

내가 나무에 앉아 나뭇잎을 먹고 있을 때 나를 부르던 당신을 기억합니다.
나는 밥을 달라고 간청했지만 먹고 있던 그들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내가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동안 그들은 등을 돌려 웃었습니다.
나는 나무에 머물다가 썩고, 고통에서 자유로운 나뭇잎의 눈물 사이로 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강하고 막대기 같은 손에서 뺏어 나온 확신이 배고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생명유지를 위해 햇빛과 비를 공급받는 나무처럼
나는 당신의 부드러운 눈물과 말을 내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오, 어머니, 당신의 눈물 섞인 강함과 삶을 보전하는 여성으로써의 직감, 당신 모성의 존엄성에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삶을 이어나가셨고, 기도를 하셨으며, 죽은 남편의 영혼에게 요청하고, 지상에 비가 내리고 전쟁이 멈추며 당신의 운명이 다른 사람에게 의해 조정되고, 아이들이 흩어지며, 가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도록 조상과 신의 가호를 바라셨습니다.

어머니, 나는 당신이 야위고 허약해 질 때 당신이 이 미친 나라에 굶주린 두 살 짜리 여동생과 나를 고아로 만들어 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우리 접시에는 쌀이 없었고, 당신은 점점 병들어 갔습니다.

저는 구걸하러 돌아다녔고 당신을 숨 쉬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신들을 부를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모았습니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은 잃어버린 자녀가 돌아오는 것을 보려고 살아내셨습니다.

베트남인들이 1979년에 폭탄을 투하했고 탱크와 무기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당신은 크메르루즈의 고문 리스트에 올라있었지만 베트남인들은 그들의 폭격소리가 폴 포트의 피에 굶주린 군대를 쫓아버리면서 당신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당신의 아이들은 당신을 떠났습니다. 세 명은 미국으로 갔습니

다. 한 명은 크메르루즈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한 명은 이기적인 태국의 피난민캠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손자는 굶주림에 시달리고, 당신이 본적이 없는 다른 손자는 당신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한 아들은 실종되었습니다. 두 딸은 당신이 그들을 떠났을 때 옆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별을 말하거나 당신의 무덤에 꽃 한 송이 놓지 못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17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오랫동안 당신을 떠나 있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피부에서 나온 벌레들

티다 버트 맘(Teeda Butt Mam)

1975년 4월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았을 때 나는 열다섯 살이었다. 당시 전쟁이 끝나 얼마나 기뻐던가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누가 이겼는지는 관심이 없었다. 나와 많은 캄보디아인들은 어떤 대가를 치루고서라도 평화가 오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시민전쟁이 일어났고, 우리는 우리의 명분이 아닌 이유로 우리 형제자매를 죽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는 새 정부가 국가를 재건하는 것을 도울 준비가 되어있었다. 우리는 우리가 자랐던 느리고 단순한 삶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 당시에는 크메르루즈가 이루고자 하는 평화에 대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크메르루즈 정권은 굉장히 약삭빠르고 가혹했다. 우리 중 대다수가 그들이 악랄한 의도를 갖고 있으리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술은 효과적이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정의와 평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가족들을 포기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피부에서는 이런 벌레들이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의 따뜻한 환대 이후에도 크메르루즈의 첫 말은 캄보디아가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울분과 미움으로 포장된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미국이 캄보디아의 도시들에 폭탄을 투하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하여 프놈펜과 다른 도시들의 시민들에게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우리를 친구와 이웃들과 분리시켜 균형을 잃게 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동맹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들은 우리의 집과 재산을 앗아갔다. 인정사정없이 이러한 일을 의도적으로 자행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모든 대가를 치르고자 했으며 사람을 죽이는 일도 개의치 않았다. 무고한 아이들, 늙은 여성, 병원침상에 있던 환자들까지도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 중에 많은 무고한 캄보디아인들이 굶주림

과 질병, 가족의 사망, 정신착란, 처형에 의해 죽어갔다.

그들은 우리의 실제 신분을 알아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부추겼다. 그런 다음 대학살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대상은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나의 아버지를 데리고 갔고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가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뇌교육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한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저 추측만 할 뿐이다. 거의 모든 캄보디아의 미망인들과 고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형제들에게 어떠한 악행이 저질러졌는가를 확인하기가 두렵다.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만큼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된 것일까?

나중에 크메르루즈는 복수를 막기 위해 처형당한 남성의 아내와 자녀들까지 죽여 버렸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부모의 잘못을 찾아내고 뒷조사하라고 부추겼다. 그들은 사랑과 믿음, 안정감과 평화를 가지고 있던 가족구조를 파괴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가정에서 어린 아이들을 끌고 나와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상을 주입시켰다.

부모들은 아이들을 잃어버렸다. 가족은 분리되었다. 그들은 그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갈 때 울거나 슬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황소를 지키는 일을 명령받은 사람이 황소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죽음을 당했고, 만약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게 된 여성이 있다면 그녀도 죽음을 당했다. 인간의 삶이 총알 하나 만큼의 가치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의 뒷목을 곤봉으로 내려쳤고 질식하도록 짓눌렀으며 수백구의 다른 시체와 같이 죽어가도록 깊은 구덩이에 쳐 넣었다.

그들은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거대한 쌀더미속의 쌀 한 톨 만도 못했다. 크메르루즈는 공산주의 혁명이 두 사람에 의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리의 목숨은 그들의 위대한 공산주의노선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들은 “너희를 살려 뒤보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너희를 죽여도 아무런 손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크메르루즈는 마을사람, 농부들, 교육받지 못한 나이든 사람들을 선동해 이 모든 것을 하도록 했다. 그들은 가장 폭력적이고 무식한 사람들이었고, 크메르루즈는 이 일을 이끌고, 주도하고, 통제하고, 파괴하도록 사주했다. 이들은 아무런 의

문 없이 명령을 수행했다. 크메르루즈는 적개심과 시기심을 조장해 이러한 죽음이 정당한 것처럼 만들었다. 또한 매일 밤 돌아가며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고 서로를 위협하게 만드는 모임에 참여하도록 명령하였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행동을 취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다. 흠치고, 속이고, 거짓말 하고 서로를 미워하였고, 아무도 신뢰하지 않았다.

크메르루즈의 처형자 명단에 있던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이라고 불렸던 무리였다. 그들은 이방인들이었다. 이들은 1975년 크메르루즈가 전쟁에 이기기 전에 자유화된 지역에 살지 않았던 캄보디아 남자, 여자, 소년, 소녀, 아이들을 모두 포함했다. 그들의 잘못은 적의 구역에 살면서 적을 돕고 지지했다는 것이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적이었고, 그 명단은 매우 길었다. 전직 군인, 경찰, CIA, KGB. 그들의 죄는 시민전쟁에서 싸웠다는 것이었다. 상인과 자본가, 사업가들. 그들의 잘못은 가난한 이들을 착취했다는 것이었다. 부농과 토지소유주들. 그들의 죄는 소작농들을 착취한 것이었다. 지식인, 의사, 변호사, 수도승, 교사, 공무원. 이들은 악한 서구세력에 의해 생각이 오염되었다고 여겼다. 학생들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라는 교육을 받았다. 전 유명인, 시인. 이들은 오래되고 부패한 캄보디아의 기억을 지니고 있었다.

그 명단은 계속 되었다. 반역자, 인정 많은 사람, 용감한 사람, 똑똑한 사람, 개인주의자, 안경 쓴 사람,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 게으른 사람, 재주가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들은 부패하고 농부와 가난한 자들의 땀과 피로 살았다는 죄목이었다.

우리 중 극소수만이 이러한 명단에서 제외되었다. 우리 가족은 시골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프놈펜 출신이었다. 나는 내 출신이 밝혀질까 두려웠다. 나는 중산층 가정의 교육받은 소녀였다. 읽고, 쓰고 생각할 수 있었다. 나는 우리 가족과 나의 뿌리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그들이 나의 생각과 기도를 듣고, 내 꿈과 내 분노, 또한 그들 정권에 대한 나의 거부감을 보게 될까봐 두려웠다.

나는 항상 배가 고팠다. 해가 뜨기 전에 허기진 채로 깨어났고 아침도 먹지 못한 채 수 킬로미터나 떨어진 작업장으로 걸어갔다. 낮까지 일을 했으며, 내 점심은 알갱이가 아주 조금 있는 쌀죽이거나 끓인 바나나나 끓인 옥수수였다. 나는

해가 질 때까지 계속해서 일을 했다. 저녁은 점심과 같았다. 나는 옹카르에 항의할 수 없었지만 내 배는 음식을 더 달라고 나에게 항의했다. 매일 밤 나는 더럽혀지고 배가 고프는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 엄마가 그리워서 너무나 슬펐다. 나는 항상 오늘밤이 납치당하고, 고문당하고 강간을 당한 후에 죽음을 당하는 날이 될까봐 두려워하며 잠이 들었다.

자살을 시도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만약 자살을 시도했다면 감히 그들 정권이 불행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적”이라고 분류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나의 죽음은 적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 가족의 죽음을 가져왔을 것이다.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었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 이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들판에서 숲으로 계속 이동시켰다. 의도적으로 길을 잃게 함으로써 완전한 통제 하에 두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쓸모없는 인간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너무 늙거나 약해서 일을 할 수 없고, 할당량을 생산해 내지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우리는 옷과 담요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추위에 떨어야 했다. 신발도 없었다. 아파도 전혀 치료받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루 15시간 이상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휴일 없이 야간작업을 하기로 자원했다고 했다. 우리는 순진했고 아무것도 몰랐다. 그저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체성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감각, 종교, 사랑하는 가족, 영혼을 모두 잃어버렸다.

크메르루즈는 모든 이가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재배치하고 모든 것을 제로상태로 변화시킴으로써 국가를 다시 시작했다. 국민전체가 평등하게 가난했다. 그러나 모든 국민이 굶주림과 질병, 희망을 잃고 죽어갈 때 크메르루즈는 새로운 상류계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의 군인과 공산당원들은 그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성이나 남성을 맘대로 고를 수 있었다. 넘쳐나는 음식 외에도 그들은 금과 보석, 향수, 수입시계, 서양의약품,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실크와 여타 수입품들에 열광했다. 내 절친한 친구 사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는 크메르루즈 퇴역군인과 결혼했다. 그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과상품에 의한 경련으로 고통 받았다. 저녁이면 자신이 저지른 죄와 죽인 사람들에 관한 악몽으로 깨어나곤 했다. 깨어난 이후에는 그녀

를 때렸다. 어느 날 밤에는 내 친구를 찢어 죽였고, 그녀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혔다.

내가 살았던 오두막 근처에 참로은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세 자녀가 차례로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녀가 암시장에서 음식이나 약품과 바꿀 수 있는 금이나 실크, 향수가 있었다면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크메르루즈 퇴역군인과 마을 지도자들이 암시장을 장악했다. 그들은 참로은이 힘들게 모은 고급 물건들을 싹로 바꾸었다. 크메르루즈는 부패에 대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여성군인들은 나의 밝은 색 피부와 여성스러운 모습을 질투했다. 그들은 멋있는 검은 잠옷, 실크스카프, 보석, 새 신발, 향수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자신들보다 더 나은 게 있는지 노려보곤 했다. 나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소심하게 행동했으나 내 눈에 가득한 자신감을 감출수가 없었다.

1979년 1월, 나는 지역모임에 참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지역지도자는 벼 속에 자라고 있는 밀을 모두 제거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도시 사람들이 밀이었고, 이들이 제거 대상이었다. 베트남 침공이 바로 2주 후에 일어났기 때문에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베트남 침공이 이루어 졌을 때 나는 울었다.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또한 한 세기 동안 원수였던 나라가 또 다시 우리나라를 침략했다는 비통함에 울었다. 나는 캄보디아 영토에 서 있으면서도 더 이상은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서 자유로운 나라로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의 중심부에서부터 태국 국경선까지 이동했다. 4년 만에 완전히 파괴된 고향땅을 보는 것은 참으로 처참한 일이었다. 불교사원들은 감옥으로 사용되었고 부처상과 예술작품들은 파괴되었다. 학교들은 크메르루즈의 본거지가 되어 사람들을 심문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땅에 파묻는 곳으로 사용되었고 학교 운동장은 킬링필드가 되었다. 오래된 시장거리는 텅 비어있었다. 책은 불타고 공장은 녹슬어가고 있었으며 농장도 아무런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아무런 과일도 생산하지 못했다.

이러한 파괴는 사람에 대한 것에 비하면 괜찮은 편이었다. 각 도로마다 난민들

로 넘쳐났다. 우리는 자국의 난민들이었다. 깡마른 체구, 부풀어 오른 배, 험한 눈을 하고서 몇 개 안되는 가재도구를 짊어지고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다녔다. 누가 살았는지 묻지 않았고 누가 죽었는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의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을 공유하고자 모였다. 깊은 우물과 연못에 밀어 넣고 질식사 시키려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이야기 말이다. 한 여성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잘라낸 간을 강제로 요리해야만 했다. 여성들은 처형되기 전에 강간을 당했다. 한 노인은 “우리의 이야기를 다 쓰려면 강을 잉크삼아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1979년 4월, 불교의 새해이자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은 지 정확히 4년 되던 해, 나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민속노래와 박수소리에 맞추어 자유롭게 춤추는 송장 같은 모습의 무리에 합류했다. 우리는 달빛아래 모닥불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하게 된 기적을 축하하였다. 당시에 나는 나의 영과 혼이 내 연약한 몸에 다시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다시 한번, 나는 사람이 되었다.

한 손가락의 밥

유킴니 찬 (Youkimny Chan)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 나는 내 누이 시누언과 코코넛나무 아래 시소에 앉아 있곤 했다. 누이는 놀라운 곳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우리는 이야기하고 노래를 하거나 때로는 라디오를 통해 드라마를 듣기도 했다. 나는 내 누이가 무척이나 좋았고 둘이 함께 보낸 그 행복한 시간을 좋아했다. 저녁이 되면 보름달 아래 앉아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산들바람에 코코넛 나뭇잎이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자라면 무엇을 하고 싶은 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아주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것이다.

오후에 어른들이 낮잠을 즐기는 동안 아이들은 수영을 하기 위해 강으로 내려갔다. 메콩강가는 넓고 모래가 많았으며, 메콩강은 아주 푸르고 반짝거렸다. 내 친구들과 나는 서로 물을 뛰기고 소리치며 놀았고 강가로 내달려 축구, 돌차기 놀이, 배구를 시작했다. 배가 고파지면, 항상 근처엔 목직한 망고, 코코넛, 바나나 등의 과일나무가 있었다. 이곳에서는 뭐든 빠르게 자랐다. 히비스커스와 갖가지 색 장미꽃의 향기가 진동했다. 할머니는 매일 팔 한가득 꽃을 가져오시곤 했다. 우리는 정원에 살았는데, 눈을 감으면 아직도 푸르른 하늘과 열대지방의 꽃들을 느낄 수가 있다. 또한 아직도 내 친구들과 가족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릴 수 있다.

우리 가족은 굉장히 폐쇄적이었다. 아버지는 캄보디아군의 대위로써 내가 세 살 때 말라리아로 돌아가셨다. 그러나 조부모님들이 나와 어머니, 형제자매들을 거두어 같이 살게 되었다. 그들은 나의 두 번째 부모가 되었다. 나는 항상 할아버지가 친아버지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할아버지는 자주 밖에 나가 계시긴 했지만 집에 있을 때면 손자손녀들과 시간을 보내곤 하셨다. 나는 그를 존경했고 깊이 사랑했다. 어머니는 간호사였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를 매우 존경했다.

내 누이 시노이는 결혼을 해서 자녀 셋을 두었고, 나보다 일곱 살이 많은 형 김후아는 캄보디아 대학의 학생이자 유명한 축구선수였다. 내가 가장 좋아했던 누이 시누언은 나보다 다섯 살이 많았고 늘 나에게 관대했다. 우리 가족 중 가장 어린 것은 동생 솜부였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집안 대대로 살았던 커다란 집에 살았다. 검은색 단단한 재목으로 만들어진 마루가 있는 아주 아름다운 집이었다. 할머니는 이 반짝거리는 마루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으며, 더 반짝거리도록 코코넛 껍질, 등유, 초로 매일 닦으셨다.

1974년 우리 할아버지가 예견했던 대로, 크메르루즈가 프놈펜 주위의 작은 마을들을 모두 점령했다. 곧바로 우리 마을에 폭격이 시작되었다. 프놈펜에 폭격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두려웠지만 조금의 안도감도 갖게 되었다. 전쟁이 곧 끝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 마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을이 공격당해 파괴되어 프놈펜으로 대피하였다. 그들 중 대부분은 살 곳이 없었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잠을 청해야 했다.

1975년 4월 17일, 내가 열네 살이 되었을 때 크메르루즈 군은 탱크를 몰고 프놈펜으로 쳐들어왔다. 한 남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차에 서서 확성기에 대고 모든 경찰과 군사지도자들은 총을 내려놓고 항복하라고 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집에서 떠나라고 명령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적의 군관계자였던 것을 알리지 않기 위해 군복과 무기를 숨기셨다. 그리고 우리는 집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의 집이었고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우리에게 떠나라고 할 수 없었다.

후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우리 집에 들어왔고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그들은 삼일만 떠나있으면 되고, 그 기간 동안 크메르루즈가 우리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군인들은 다시 돌아와 미군의 B-52 폭격기가 도시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으니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폭탄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미국을 패배시킬 것이고 그런 다음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장담했다.

이 군인들은 우리 마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할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족은 옷가지와 보석, 약간의 음식을 차에 싣고 함께 떠났다. 몇몇은 차에 끼여 탔고, 나머지는 걸어갔

다. 프놈펜을 떠나는 것은 모험과도 같았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떠나 거리와 도로는 집을 지고 있는 사람들로 넘치고 차는 정체가 되어 느릿느릿 움직였으며 무척이나 시끄러웠다.

다음날, 군인들은 우리를 찾아 왔다. 보석과 자동차, 옷을 모두 가져갔다. 이제 우리가족은 걸어야만 했으며 각자 등에 지고 있던 남아있는 음식을 나눠먹어야 했다. 건조한 시기에다 무척이나 더운 날씨였고 물도 없었다. 사람들은 열사병으로 도로에서 쓰러져갔다. 군인들은 우리가 아픈 사람들을 돕지 못하게 했다.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믿을 수가 없었다. 며칠 동안 걷던 것이 몇 주가 되었다. 임산부들은 도로 옆 나무 아래서 출산을 했고, 노인들은 탈수와 탈진으로 죽어갔다. 사방에서 아이들의 울부짖음과 죽은 가족을 애도하는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장례식을 치를 시간도 없었다. 군인들은 빈 연못에 시체를 버려둔 채 계속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탱크로 우리를 몰아 움직이게 만들었다. 나는 등 뒤로 손이 묶인 두 남성을 보았다. 군인들은 도로변에서 그들을 심문했다. 군인들이 그들의 머리를 잘랐고 몸에서 분리되어 바닥으로 쿵 떨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들이 목전에서 살해당했다. 그들은 내 친구요 내 이웃들이었다. 남은 우리는 계속 걸어야 했다.

결국 걷다가 멈추기를 두 달 반 동안 반복한 후에 바탐방지방 근교에 도착했다. 그곳은 정글에 있는 작은 마을로써 전쟁 중에 불타 재가 된 곳이었다. 그들은 이 불타버린 마을에 살아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문명인이었으며 집과 전기, 수도 없이 정글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때까지도 우리는 집에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군인들에게 우리가 언제 떠날 수 있는 지 물으셨고, 며칠 안에 갈 수 있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러나 수일이 지난 후 할아버지가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가족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살아남아야 했다. 할아버지, 형, 매형은 대나무를 잘라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뱀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대나무로 바닥을 만들었고 지붕은 야자수 잎으로 만들었다. 이 오두막에 우리 열세 명의 식구가 살았다.

영양실조 때문에 가족들은 아프기 시작했다.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했지만 약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다. 결국 우리는 바나나나무와 파파야 나무(열매가 아닌 나무)를 먹기 시작했다. 껍질을 벗겨내고 나무를 조각내어 소금과 함께 끓여먹었다. 이것은 요깃거리가 되기도 했지만 아프게도 만들었다. 누이의 10살 난 아들은 설사를 앓다가 삼일 만에 죽었다. 7살 난 딸도 뒤이어 죽음을 맞이했다. 나의 누이는 비통함에 정신을 잃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묻힌 곳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제정신을 찾지 못했다.

우리가 오두막에 거주한지 1년쯤 지나자 군인들이 할아버지를 데려갔다. 그를 붙잡아 등 뒤로 손을 묶고는 “네가 군대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잡혀가면서 할머니를 향해 가족을 잘 돌보라고 부탁하셨다. 군인들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내리쳤고 앞으로 걸어가도록 밀었다. 몇 분이 지나 정글 속에서 한발의 총성이 들렸고 우리는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크메르루즈는 학살을 계속하였다. 만약 누군가가 교육받은 사람이거나 지식인이라는 의심이 들면 군인들은 밤에 오두막에서 그를 끌어내어 총을 쏘거나 목을 따 죽여 버렸다. 누구도 의문을 품거나 소리칠 수 없었다. 우리는 약하고 병마에 시달렸으며 무기도 없었다. 군인들을 화나게 하면 그들은 우리를 무참히 죽여 버렸다.

할아버지가 살해당한지 석 달 후, 군인들은 형과 매형을 데리고 갔다. 그들을 묶어 2-3마일 떨어진 정글로 끌고 갔다. 이때는 나도 뒤따라갔는데, 보이지 않도록 작은 덤불속에 숨어있었다. 군인들이 형들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채 커다란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하는 것을 보았다. 한 군인이 다른 사람에게 “총알을 아끼자고”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큰 대나무 가지를 가지고 형과 매형을 죽을 때까지 때리고 시체를 구덩이 속으로 차버렸다. 그들의 무덤은 할아버지가 죽은 곳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다.

군인들에게 살해당하지 않은 사람들도 서서히 죽어갔다. 우리가 숨길 수 있었던 것들을 음식으로 바꾸었다. 1 온스의 금을 주면 쌀 한 컵을 주었다. 우리는 항상 아팠고, 큰 누이 시노이는 더 이상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글에 산지 1년 쯤 후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던 이모가 이른 아침에 사망하였다. 뒤이어 다른 이모도 죽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굳어있던 그녀의 몸

이 고통이었다. 이웃들이 시체를 묻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무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따라서 마을 주변에 많은 시체들이 묻혀 있었고, 묻은 곳을 찾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모들을 묻은 다음 날, 우리는 그들의 무덤이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모들이 죽은 지 석 달이 채 못 되어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뒤이어 큰 누이가 죽었다. 누이는 이미 남편과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냈고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남은 우리는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계속했다. 음식이 생길 때마다 서로 나누어 먹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이 먹어야 할 음식을 우리에게 나누어주곤 했다. 나는 그녀가 가장 아끼던 아이였고 내가 살아있기를 늘 바라섰다. 그러나 어머니도 병이 들고 나는 그녀가 죽을까봐 두려웠다.

어머니는 나에게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들아, 만약 공산당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꼭 학교에 가거라. 그들이 네가 가진 물건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나 배운 것은 가져가지 못한단다. 네 머리에 들어있는 것은 가져갈 수 없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나도 따라 죽고 싶었다. 어머니가 늘 나를 돌봐주셨고 나는 늘 어머니에게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곧 내 동생도 죽었고, 이웃의 도움으로 그를 묻을 수 있었다. 결국 내 누이와 나만 남게 되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누이 시누안은 점점 쇠약해져갔다. 그녀의 피부가 뼈에 달라붙어버렸고 길었던 검은 머리는 다 빠져버렸다. 이때가 나에게 가장 힘들었던 때로 생각된다. 남자로서 누이를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나를 믿었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오두막에 같이 앉아 있을 때 누이는 내 무릎에 누워 “킴니,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밥 한 숟가락만 먹을 수 있을까?” 라고 말했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누이가 원했던 건 아주 사소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쌀이 없었다. 나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었다. “누나... 아무것도 줄 것이 없어요. 이 물이라도 드세요...” 누이는 잠시 나를 쳐다본 후 물을 삼켰다.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로 그녀는 그렇게 죽었다.

왜 나는 죽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다.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았다. 너무나 피곤했고 너무나 배가 고팠다. 쌀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지 가서 좀 달라고

구걸하면서 몇 달을 떠돌아 다녔다. 우리 오두막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 때로는 밖에서 자고 때로는 다른 가족의 오두막에 끼어서 잤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이 나처럼 고통가운데 있었고, 아무도 충분한 음식을 가지지 않았고, 희망을 가진 사람도 없었다.

크메르루즈는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마을에서 더 데려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내가 새로 지은 오두막에서 30마일 떨어진 정글에 있는 강제수용소로 우리 마을의 모든 10대들을 데려갔다.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별로 두렵지 않았다. 내 가족이 모두 죽었기 때문에 “걷다가 뒤쳐져 죽게 되면 죽어 버리지 뭐. 그것도 그리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했다.

강제수용소는 정글에 있는 개간지였다. 나와 다른 포로들은 우리가 찾은 대나무로 임시오두막을 지었다. 우리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하루 14-15시간동안 논에서 일을 했다. 장마철이라 일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약간의 밥과 마른 생선 몇 조각이 주어졌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잠들기 전, 크메르루즈는 어떻게 하면 신실한 공산주의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강의했다. 그들은 폴 포트가 우리의 옹카르라고 했다. 폴 포트가 우리의 새 가족이었다. 친부모가 공산당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를 고발해야 했다.

우리는 도망칠 수 없었다. 수용소는 갈고리가 있는 철사로 둘러 싸여 있었고 천여명정도의 우리 포로들은 죽음이 두려웠다. 때때로 그들은 밤중에 오두막에서 한 소년을 끌고 나갔고 그 후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한 소년을 정글로 데리고 가면 우리는 그의 고향소리를 들곤 했다. 때로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논에 그들이 잘라낸 소년의 신체일부를 던지곤 했다. “비료”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17살쯤 되었을 때, 밤에 잠을 자려고 했으나 폭격소리에 자꾸 잠이 깨었던 것을 기억한다. 매일 밤 그 폭격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에서 들려왔다. 나중에 알고 보니 베트남군이 크메르루즈를 몰아내기 위한 것이었고 태국 국경선까지 들어와 있었다. 크메르루즈의 과수병들은 이 싸움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베트남 군사들이 우리 수용소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을 때 우리 중 몇 명이 베트남

어 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때서야 캄보이다 군인들이 수용소를 방치하고 도망쳤음을 알게 되었다. 베트남군은 우리에게 친절했지만 그곳을 떠나라고 했다. 그곳을 떠날 수 있기를 수년간 기도하고 갈망해왔는데, 이제 우리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갈 곳이 없었다. 나는 새로 사귄 친구 사바쓰와 함께 수용소를 떠났다. 우리는 바탐방 지역을 향해 갔고, 운 좋게도 사바쓰는 그의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가옥들에는 전기나 수도가 없었다. 병원, 학교, 시장도 모두 문을 닫았다. 음식도 여전히 구하기 힘들었다.

내가 18살이 되었을 때 폴 포트 정권하에 살아남은 사촌이나 친구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프놈펜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우리 집은 바탐방에서 12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곳이었고 나는 길도 알지 못했다. 나는 대강의 방향을 잡고 걷기 시작했다. 낡은 기차도 타고, 마차도 타고 조금 더 걸어서 결국에 프놈펜에 도착했다. 내가 살던 곳에 들어서면서, 나는 내 영혼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내 집과 친구들의 집이 모두 불에 타고 없었다. 익숙하게 보이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 순간 내 삶은 영원히 달라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 아이의 악몽 같은 기억

솜헵 K.헵 (Sopheap K. Hang)

어린 아이였던 나는 엄마에게 왜 현관 앞에서 놀면 안 되는지 물었다. 엄마는 화가 난 얼굴이 아니라 겁먹고 두려운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당시 왜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 수 없었다. 뒤이어 어머니는 박스를 찾아 부엌으로 가셨고 수납장 근처에서 몇 개의 박스를 찾으셨다. 몇 봉지의 쌀과 소금, 설탕, 팬, 냄비, 접시와 가재도구를 꺼내어 박스에 담았다. 어머니는 소피어와 마카라의 방으로 가시고는 그들의 옷을 꺼내어 박스에 담으셨다. 그런 다음 부엌의 왼쪽에 위치한 내 방으로 오셔서 내 옷을 박스에 담으셨다.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번 주에는 나가 놀지 말거라. 너희들이 무사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 알았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궁금한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어른의 말에 반문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기에 감히 왜 그래야 하나고 물어볼 수 없었다. 소피어와 나는 의문이 가득한 눈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다음날 아침, 거리에서는 커다란 소음이 들려왔다. 창밖을 보니 세 명의 군인이 타고 있던 지프차가 보였다. 뒤를 이어 서 너 대의 트럭에 총을 지니고 하얀 깃발을 흔들고 있는 젊은 군인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그들은 “승리! 승리! 승리!”를 외쳤다. 사람들은 뛰고, 웃고, 하얀 깃발을 흔들었으며 군용트럭 주위에서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

순간 나는 앞에 있던 지프차에서 나는 총성을 들었다. - 빵! 빵! 빵!- 한 군인이 총을 들고 서서 하늘을 겨누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총을 쏘았던 것이다. 확성기를 통해 “캄보디아는 재건이 필요하다. 우리는 며칠만 집을 떠날 수 있는 캄보디아국민을 찾는다. 국가의 번영을 위해 새로운 정부를 구축할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빵! 빵!- 한 남자가 총에 맞았다.

어머니는 창문에 있던 나를 꼭 붙들었다. 나는 그 군인의 무시무시한 행동을 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한 상태가 되었다. 그 남자는 얼굴이 땅을 향하고 있었다. 두 손은 등 뒤로 교차되어 있었다. 얼굴은 시멘트 바닥에 뭉개지고 사방으로 피가 튀어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정신이 멍해진 상태에서 깨어날 때까지 세차게 흔들었다.

아버지는 손수 지으신 마차에 어머니가 싸놓은 물건들을 넣으셨다. 나는 창밖을 다시 보았고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소리 지르는 15-16세가량의 어린 군인의 모습이 보였다. 대화를 마친 후 아버지는 집으로 들어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우리들을 집 밖으로 급하게 데리고 나갔다.

우리는 4월 17일 무척이나 먼지가 자욱하고 덥고 습한 날 집에서 대피했다. 수많은 캄보디아 인들이 강제로 집을 떠나야 했다. 대피하는 동안 캄보디아의 도시는 사람, 자동차, 동물, 버려진 아이들로 넘쳐났다. 쿵 쿵, 뽕 뽕, 와 와... 마을을 강제로 떠나는 우리 주변에는 발소리, 아기 우는 소리, 자동차 엔진소리가 가득했다. 거리에는 겁에 질린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 소리치고 뛰어다녔다. 대부분의 소지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노인들은 옷 한 벌 몸에 걸친 채 집을 나와야 했다.

나는 어머니가 마카라를 허리에 매달고 소피어를 한 손에 잡고 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어머니의 다리에 매달렸다. 나는 그토록 먼 거리를 걸어본 적이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다. 마을에서 수 마일이 떨어진 곳까지 억지로 걸어갔다. 소피어도 나처럼 힘들었을 것이란 걸 알았다. 어머니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셨다. 등에는 짐을 지고 마카라까지 업고 소피어의 손을 잡으면서도 본인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셨다.

며칠이 지났다. 새 정부가 도시를 전멸시켜 텅 비어버렸다. 도시의 활기도 파괴되었다. 가옥들과 높은 빌딩들은 아무런 활력이 없이 서 있었다. 단 몇 초 만에 유령의 도시가 돼버린 것이다.

한참을 걷고 나서 군인들은 쉴 곳을 찾으라고 했다. 아버지는 코코넛 나무 아래 장소를 찾으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대나무로 자리를 까는 것을 도왔다. 너무 피곤해진 나는 대나무 자리 위에 평평한 곳을 찾아 털썩 주저앉았다. 발을 보

니 온통 물질이 잡혀 있었다. 어머니가 아프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 발을 보신 어머니는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차리셨다. 어머니는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찬물에 발을 담글 수 있도록 근처 강가로 데려갔다.

며칠이 더 지났다. 군인들은 새로운 등록카드에 등록하기 위해 가족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줄에 서 있던 한 남성이 군인에게 자신이 캄보디아 대학의 교수라고 말했고 그의 가족은 재교육 시설로 보내졌다. 아버지는 이 정부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눈치 채셨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파”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막”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는 내 프랑스어 책들과 특별한 날 찍었던 사진들을 땅에 묻어버리셨다. 아버지가 왜 그러시는지 몰랐지만 군인들이 알면 아버지가 혼이 났을 것이다.

우리가족은 실제 신분을 말해야 했다. 아버지는 군인에게 자신의 이름과 직업을 말했다. “나는 농부입니다. 그저 땅이나 파먹고 사는 사람이지요. 채소를 팔아 잘 살아보려고 도시에 살았었습니다.” 아버지는 무식한 사람인척 해야 했다. 처음에 군인들이 믿지 않으려 하자 어머니는 캄보디아 농촌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영화는 우리 부모님이 프랑스사람들을 위해 제작한 것이었다)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농부의 옷을 입고 벼를 심고 있었다. 어머니는 이 사진을 군인에게 보여주었다. 군인은 우리 부모님이 농부라는 증거로 그 사진을 접수했다.

우리 가족은 이 첫 번째 심문에서 무사히 살아남았다. 우리는 농촌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분류되었다. 부모님은 소피어, 마카라 그리고 나에게 실제 신분에 대해서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셨다. 어머니는 우리들이 새로운 신분에 맞게 행동하길 원하셨다. 나는 “신분”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살고 싶으면 각자 자기앞에 귀머거리 나무를 심도록 해”라고 말했고, 이는 만약 살아남고 싶다면 귀머거리처럼 행동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남아있는 사람들의 등록이 끝났을 때 옹카르의 지도자가 나타났다. 그는 한손에 마이크를 쥐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그의 연설을 듣도록 사람들을 모았다. “나는 캄보디아의 새 지도자다. 지금부터 너희는 새 정부를 옹카르라고 불러야

한다. 너희들은 돌아갈 집이 없다. 지금부터는 무리를 지어 일을 해야 한다. 아무도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다. 너희들이 가진 모든 것은 옹카르에 귀속된다. 도시 생활이라는 것도 없고 모두 검은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어머니는 근심어린 얼굴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아무도 옹카르에 반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 옹카르에 반문할 용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재교육시설로 보내질 것이다.” 이는 우리가 처형될 수도 있다는 의미였다. 우리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정신이 멍해 있었다. 리는 생각할 수 없었다. 옹카르의 당당한 연설 때문에 우리는 몸이 떨리고 정신이 마비가 되었다.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 옹카르는 우리 부모님과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논에서 일하고 벼를 심고 도랑을 파고 강둑을 만들고 논을 일구라고 명령했다. 부모님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겨우 한 숟가락의 밥으로 배를 채운 채 일을 했다. 옹카르는 동물보다 못하게 사람들을 대우했다. 매일 아침 논은 검은 개미로 가득 찼고 음식을 먹기 위해 주어진 일을 했다. 누구는 도랑을 파고, 누구는 쟁기질하고, 벼를 심고 강둑을 만들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종이 울렸고 모두가 논에서 나와 줄서서 식사를 기다렸다.

몇 달이 흘렀다. 상황은 점점 더 힘들어졌다. 옹카르는 도시 사람들을 이른 새벽부터 자정까지 일하게 했다. 음식배급량도 쌀 반 숟가락과 녹두 반 숟가락으로 줄였다. 도시 사람들은 옹카르가 자신들에게 자행하는 고문과 고통을 견딜 수가 없었다. 몇몇은 나무에 목을 매거나, 줄을 이용해 스스로 목을 졸라 자살을 시도했다.

이 시기에 나는 내 인생을 통틀어 가장 끔찍한 사건을 보았다. 이 사건은 이른 오후쯤 발생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일하러 가셨고 소피어와 마카라는 잠들어 있었다. 이웃집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우는 소리, 용서해 달라고 빌고 간청하는 소리였다. 한 남자가 “안 됩니다. 안됩니다. 나는 도시 사람들에게 좋은 선례를 남겨야만 합니다.” 찰싹! 찰싹! 남자는 바닥에 있었고 한 여성은 크메르루즈 군인 옆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있었다. 그 군인은 남자에게 자신 주위를 비굴하게 기어 다니게 했다. 군인은 남자의 두 손을 껴서 등 뒤로 향하게 한 후 줄로 묶었다.

군인은 남자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와 강둑으로 데리고 가서는 나무에 묶었다.

남자는 너무 맞아 탈진한 상태였으며 의식을 잃고 나무쪽으로 쓰러졌다. 이를 지켜본 나는 너무 무서웠다. 군인들이 그 무고한 남자를 고문하는 장면을 내가 보았다는 것을 알게 될까봐 너무나 두려웠다. 나는 벌벌 떨면서 대나무로 만든 우리 집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내 입술은 공포로 떨렸고 내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무릎을 모아 가슴으로 안고서 부모님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길 기다렸다.

어머니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피곤하고 두려워 보이는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대나무침대에 앉아 나를 쳐다보았다. “오늘 동생들하고 동네 아이들을 잘 돌봤니?”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네 라고 대답했다. 내게 주어진 일은 어른들이 일하러 갔을 때 동네 어린이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 먹을 것을 챙기고 낡아 빠진 헝겊 기저귀를 갈아 주고, 목욕도 시키고 노래도 불러주었다. 또한 강에 가서 무거운 물통에 물을 길어다가 야채가 심겨진 곳에 물을 주어야 했다.

나는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면서 오후에 봤던 일을 이야기 했다. 어머니는 갑자기 몸이 굳어지셔서 턱 근육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다. 몇 분 동안 나를 계속해서 쳐다보시다가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그날 밤 그 남자는 두 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 옹카르는 그가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죽여 버렸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를 읽다가 잡힌 것이었다. 총성소리를 듣자 나는 몸서리가 쳐졌다. 두 번째 총성이 들렸을 때는 어머니가 가까이서 꼭 붙들어 주셨다. 나는 총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귀를 막고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그 나무 근처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고집스런 아이여서 그 남자의 시체를 보려고 강둑근처에 있는 나무로 가보았다. 그 시신은 거기 없었지만 그의 살점과 머리카락, 혈액이 나무에 붙어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피가 사방으로 튀겨 있었다. 갑자기 내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피를 보자 속이 울렁거리며 나무에 토하고 말았다. 그리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달려 집으로 돌아왔다. 약 한달 동안은 앓고 나서야 그때의 기분을 조금 잊을 수 있었다. 이 사건은 내가 여덟 살 무렵에 일어난 일이었고 내가 보아온 수 많은 끔찍한 사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런 일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 다른 이들에게 말하기가 힘들다.

그 무고한 남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최근에 나는 어머니에게 당시 그 남자가 살해당한 강둑근처 나무에 갔었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지도 이야기 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그래서 그랬구나. 나는 네가 왜 한 달 내내 아파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단다.”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와 나는 웃기 시작했지만 곧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아려왔고,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때로는 내 지난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무척이나 두렵다. 가끔은 내 삼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해진다. 캄보디아 인들이 지난 기억을 잊기란 무척 힘든 일이다.



새해의 놀라움

스레이토치 스베이-라이서 (Sreytouch Svay-Ryser)

1975년 4월 16일 나는 겨우 일곱 살이었고 언니 샌디와 그녀의 남편 쿤쓰와 함께 프놈펜에 살고 있었다. 뭔가가 일어났다. 나는 폭발음과 총성을 들었다. 누군가가 총에 맞았고 그는 평소에 거침없이 말을 하던 우리 이웃사람이었다. 나는 집에 있으라는 말을 들었다. 텔레비전이 없어서 우리는 소식을 접할 수가 없었다. 총성은 얼마 지나 멈췄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새 옷을 입고 새해를 축하하기 위해 모이는 곳인 큰 언니네 집으로 갈 준비를 했다. 형부의 배스파를 타고 우리는 아침 일찍 출발했다. 오빠, 샌디언니, 아기, 쿤쓰형부 그리고 나까지 다섯 명이 타고 있었다. 아주 재미있는 날이 될 것 같았고 나는 새해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큰 언니네 집에서는 모두가 음식을 만들고 막바지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보란과 차비 언니는 우리가 몇 가지 선물을 놓고 와서 우리 집에 다시 갔다 와야 했다. 그리 멀지 않았기 때문에 스쿠터를 타고 갔다. 당시 어딘가 에서는 모두 독립기념일을 축하하는 행사를 도우러 나오라는 라디오방송이 흘러나왔다. 방송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탱크 한 대가 대문 앞으로 돌진해 왔다.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는 폴 포트가 나라의 정권을 잡았고 정오에 특정 도로들이 폐쇄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정오가 다 되어가고 있었고 우리가족은 보란과 차비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다.

우리 가족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고, 아이들은 축하행사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고 샤워를 하기 시작했다. 내 조카 린과 나는 마지막 샤워를 했다. 우리가 샤워를 마치고도 전에 거리에서는 폭동소리가 들려왔다. 형부 토크는 대문을 잠그러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덟에서 열두 명 정도의 검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대문 앞에 두 줄로 섰다. 우리에게 총을 겨누고 잃어버린 무기를 찾아야겠다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쳤다. 우리가 문을 열지 않자 그들은 문을 열지 않으면

총을 쏠겠다고 위협했다. 형부가 밖에 말리려고 널어 둔 엄마의 하얀 블라우스를 깃발처럼 들어 올렸다. 그런 다음 형부는 문을 열었다.

아버지는 샤워하고 있던 나와 린을 데리러 왔다. 우리는 반바지만 입고 있었고 린은 겨우 여섯 살이었다. 우리도 다른 가족들처럼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

두 언니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들은 집 수색을 해야 한다며 몇 시간만 밖으로 나와 있으라고 했다. 우리는 위층에 가서 간단하게 짐을 싸고 나와도 되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우리는 맨 몸으로 집을 나왔다. 내 조카와 나는 셔츠와 신발도 없었다. 그들은 우리 더러 군중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라고 했다. 우리는 찜통 같은 더운 날씨에 걷고 또 걸었다. 발이 너무 아팠다. 녹는 것 같은 도로의 타르는 나의 작은 발에는 너무나 뜨거웠다. 아버지는 갈색 봉투를 찾아 우리 발을 싸고 우리 머리에 있던 고무줄로 봉투를 묶어주었다. 우리는 무척이나 오래 걸어야 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가 배정받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의 삶은 험난했다. 결혼하지 않은 세 명의 언니(13세에서 16세의 나이)들은 노동수용소로 끌려갔고 그 이후 우리는 그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언니들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끼니도 제대로 때우지 못한 채 일을 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과로 생활했다. 우리는 농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뢰밭을 정리하는 일을 해야 했다. 매일 누군가는 지뢰를 밟아 죽었다. 도시생활을 하다 온 사람들은 농사일을 하게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아버지와 형부가 군관계자였으며, 다른 형부는 의사였다는 사실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셨다. 대신 우리는 가족 모두가 시골 출신이며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농사밖에 없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큰 언니 타비가 죽기 전, 그녀는 밤중에 혼수상태에 빠져 우리 가족은 함께 모여 있었다. 다음날 아침 옹카르가 우리 집에 와서 언니를 땅에 묻고 어서 일하러 가라고 했다. 우리는 그녀가 아직 죽지 않았으니 옆에 있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언니는 그날 아침 이후 남편과 어린 세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났다.

큰 언니가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형부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정신을 잃어버렸다. 부인을 보았느냐고 물으면서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 그 해가 가기 전 형부도 돌아가셨다. 큰언니의 둘째 아들은 큰 형부가 죽기 전에 죽었다. 막내아들 파락도 아프기 시작했다. 우리가 모두 일하러 가면 파락은 집에 있어야

했다. 어느 날 일터에서 돌아오니 파락이 보이지 않았다. 한 여성이 길가에 있는 쓰레기를 집어 먹고, 울며 배회하고 있던 파락을 찾아 밤늦게 데려다 주었다.

그때부터 나는 심하게 앓기 시작했다. 말라리아에 걸린 것이다. 내 온 몸은 통통 부풀어 올라 마치 커다란 배에 작은 팔과 다리, 큰 머리를 가진 개구리 같았다. 똑바로 누워있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세상의 모든 담요를 다 덮는 다해도 내가 느끼는 추위를 해소할 수 없을 것 같았다. 나는 하루 종일 추워서 벌벌 떨었다. 두 언니들이 돌아가며 내 위에 누워 내가 추위로 죽지 않도록 해주었다. 우리 가족은 또 한명의 아이가 죽을 지도 모르는 상황을 견뎌야 했다. 내 몸이 노란색으로 변했지만 나는 병마와 싸웠고 살고 싶었다.

내가 병에 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살기가 좋은 곳이라고 알려진 바탐방 지역의 새로운 마을로 옮겨야 했다. 큰 군용 트럭이 와서 마을 사람의 절반 가량을 데리고 갔다. 우리는 짐을 거의 챙기지 못했다. 파락은 여전히 아팠고 그의 몸은 부어 있었다. 파락은 몸이 붓는 병에 걸렸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해서야 우리는 군용트럭을 타고 장시간 이동한 것이 파락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발은 무거운 물체들 사이에 끼여 있었고, 부어오른 발은 납작해졌다.

두 달쯤 지났을 때 파락은 죽고 말았다. 당시 여덟 살이던 린은 언니네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린은 유소년 수용소에 보내졌고 우리는 그 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다. 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너무 아픈 상태여서 마을에 남아 일을 하라고 했다. 어머니는 댐 건설현장에 보내졌고, 아버지는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벼농사를 지어야 했다. 몇 달이 지나서야 그들은 아버지를 집으로 보내주었다.

옹카르는 우리 형부 큰쓰가 군 관계자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큰쓰에게는 옹카르의 지도자이자 그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존경해주었던 친구가 있었다. 큰쓰는 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그는 돕기는 하겠지만 아무것도 장담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 당시 우리가족은 두려움에 떨었다. 옹카르가 언제든 어느 시간이든 들이닥쳐 형부를 끌고 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옹카르는 주로 밤에 와서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지면 우리 가족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만약 그들이 와서 쿤쓰를 잡아가려한다면 자신을 대신 데려가라고 부탁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옹카르 소속의 친구는 쿤쓰에게 전화를 걸어와 그가 무사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옹카르의 제일 높은 사람에게 쿤쓰를 죽이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설득했고 결국 놔주기로 결정한 것이었다.

샌디 언니는 세 번째 아들 레아시를 낳았다. 무척 잘생긴 아기여서 옹카르는 입양하길 원했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샌디언니, 쿤쓰형부, 아기와 함께 멀리 떨어진 논으로 가서 일을 해야 했다. 두 달여가 지나 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아버지를 보러 집에 가도 되느냐고 옹카르에게 물어보았다. 아버지가 무척 아팠기 때문이다. 그들은 안된다고 했지만 나를 막을 수는 없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졸라댔고 결국 하루 종일 아무 음식도 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집에 다녀올 수 있었다.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꺼이 하루 음식을 포기했다.

부모님이 살고 있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어두워졌다. 나는 곧장 오두막으로 달려가 계단을 올라갔고, 누구든 빨리 보고 싶었다. 보란 언니가 어둠속에 앉아 울고 있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언니는 지금 집에 있어서는 안 되고 노동수용소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신은 일하던 중에 몰래 빠져나와 집에 왔노라고 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언니와 함께 어둠속에 주저앉아 우는 것뿐이었다. 우리는 그날 밤을 오두막에서 보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만나러 병원으로 향했다. 우리는 한 병동에서 열굴이 퐁퐁 부은 채로 침상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했다. 그들은 이미 아버지를 물어버렸고 그곳이 어디이고 어떻게 묻혔는지는 알려주지 않았다.

쿤쓰 형부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식사준비를 위해 산허리부근으로 옮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는 많은 양의 음식을 능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을 데려가도 되냐고 요청했고 동의를 얻어냈다. 그래서 나와 샌디 언니, 아기는 형부와 같이 가게 되었다. 어머니, 오빠들과 언니들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허가를 받기 전까지 약 한 달 정도 그곳에 머물렀다. 여기서도 그들이 오는 것을 허가했지만, 어머니의 마을에서는 그녀를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머니

는 네 명의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몇 가지 짐을 챙긴 후 밤에 몰래 마을을 빠져 나왔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는 옹카르에게 잡혔다. 그들은 어머니가 마을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기다리고 있으면 트럭이 와서 마을로 다시 데리고 갈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기다리다가 그들의 주의가 흐트러진 틈을 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도망쳐 숨었다. 그리고는 근처 마을을 향하던 다른 트럭을 간신히 얻어 탔다. 이동하는 동안 어머니와 아이들은 옹카르의 눈에 띄지 않도록 트럭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렸다. 그들은 나와 언니가족이 머물고 있던 곳 근처에서 내렸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같은 곳으로 향하는 몇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냈다.

우리 가족은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던 세 언니를 제외하고 다시 모이게 되었다. 세 언니가 있는 수용소가 가까이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타라 오빠는 어느 날 그들을 찾아 갔다. 어머니와 오빠는 물을 건너고, 정글과 가시덤불을 지나 마침내 그 장소를 찾아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우리 언니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크게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당시는 1978년 후반이었다.

폴 포트와 그의 군사들과 베트남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다는 소문이 들렸다. 우리와 함께 살던 폴 포트의 군사들은 하나씩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세 언니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어머니와 오빠는 언니들을 찾든지 못 찾든지간에 며칠 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하고는 다음날 같은 정글과 가시덤불을 지나 그 장소로 갔다. 어머니는 언니들에 대해 수소문 하던 중 사마크가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지만 계속해서 남은 두 딸을 찾아 다녔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던 중 어머니는 우연히도 사마크 옆에 있던 사람에게 그녀의 딸들을 본 적이 없는 지 묻게 되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사마크가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그들은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나중에 알고 보니 죽었다는 사람은 언니와 동명이인이었다.

사마크는 차비 언니가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었으나 보란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그녀에 대해서 들은 마지막 소식은 보란이 탈출을 기도했고 잡혀서 감옥에 갇다는 것이었다. 약속한 며칠이 다 되어가자 어머니는 다른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다. 어머니와 타라 오빠가 사마크, 차비와 함께 돌아오는

모습은 너무나도 가슴 찡했다. 남은 우리는 엄청나게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당시 옹카르의 모든 군인들이 자취를 감추었다. 우리 가족을 포함한 남은 무리의 사람들은 해가 지면 다 같이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옹카르가 남기고 간 음식을 모으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다. 베트남군이 우리 앞서 도착했고 큰 건물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다.

몇 주 후 어머니는 보석을 주고 음식을 사올 수 있는 시장에 가셨다. 보란 언니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이전에도 몇 번 가셨었다. 아무도 그녀의 소식을 몰랐지만 딸을 찾고 있느냐고 묻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어머니는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 여성은 보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젊은 아가씨를 데리고 있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흥분에 휩싸였고 그 아가씨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여성의 집에서 어머니는 보란을 찾을 수 있었다. 어머니의 눈에 맺혔을 기쁨의 눈물은 상상할 수 없으리라. 우리는 가족이 다시 만나게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른다. 한 달여가 지나 우리는 바탐방으로 이동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머물 곳도 먹을 음식도, 옷가지도 없었다. 그래도 큰스 형부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나에게서는 축복이었다.

내 인생의 어둡던 날들

사부스 펜 (Savuth Penn)

1975년 4월, 새해맞이 행사가 막 끝나자마자, 나의 어린 시절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 나는 11살밖에 안됐었다. 부모님이 마침내 우리나라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대화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난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군관계자였다. 아버지의 성함은 쿤이며 육군대위였다. 어머니 사례쓰는 상급병장이었던 것 같다. 두 분은 왕립 경찰을 훈련시키는 경찰학교에서 만났고, 1970년 론 놀 장군의 쿠데타가 있는 이후 크메르 공화국 군으로 전향하였다.

부모님이 알지 못하셨던 사실은 얼마가지 않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이었다. 크메르루즈는 지저분한 검은색 파자마 유니폼에 중고타이어로 만든 신을 신고 어깨에 AK-47 소총을 두른 채 바탐방으로 진격해 들어왔다. 그들은 별로 친절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버지가 제안하신 것처럼, 행복과 평화로운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집 앞에 흰색 깃발을 걸어놓은 것 말고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몰랐다.

크메르루즈는 즉각적으로 모든 남성 군인과 관계자들은 도시의 남쪽에 위치한 학교에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어머니와 나는 그들이 정권을 잡은 첫 주 동안에 수색작업을 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은 후, 집안에 있던 군에서 쓰던 물건을 모두 땅에 묻었다. 학교 주변에는 많은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겐 점심을 가져다주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학교가 텅 비어있었다. 사람들이 남편과 아버지를 찾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우리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지를 묻자, 크메르루즈는 국왕의 귀국 환영에 동원되었다고 말했다.

하루가 지나자 크메르루즈는 도시를 떠났다. 어머니는 이 도시에서 5~6 km 떨어진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였다. 불행하게도 어머니는 우리 열명의 식구에게 영원히 영향을 줄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나는 6명의 여동생과 한명의 남동생이 있었다. 어머니는 나와 여동생 한 명을 조용한 방으로 불러 아버

지가 부상을 당했으며 아버지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숨겨져 있다고 알려주었다. 나는 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아무에게도,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들에게 조차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 곁으로 가서 그들 돌보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녀는 나와 세 명의 여동생들을 데리고 가셨다. 나머지 가족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이틀 쯤 후에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는 무척 겁에 질려있었고 창백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이나 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강인한 분이셨는데 당시 내가 본 모습은 그게 아니었다. 나는 다시 울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울지 말고 강해지라고 하셨다. 나는 크메르루즈가 아버지를 국왕 귀국환영을 위해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신에 그들은 다른 군 관계자들과 함께 아버지를 아주 멀리 떨어진 태국 국경 근처 도시의 북서지방으로 보낸 것이었다. 그들은 모든 군인들을 대열로 세워 눈을 가리지도 않은 채 기관총과 소총, 수류탄으로 대규모 학살을 자행하였다. 그리고 나서 꿈틀거리는 사람은 하나씩 차례로 사살하였다.

아버지는 죽은 시체더미 아래 묻혀있었다. 다행히도 한 발의 총알만이 아버지의 팔을 관통했고, 두 발은 머리에 박혀있었다. 아버지의 머리에 박혀있던 총알 두 개는 다른 시체들을 통과하면서 추진력을 잃은 것들이었다. 아버지는 어두워질 때까지 시체들 밑에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한밤중에 고향으로 걸어오셨다.

가족들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너무나 놀랐다. 우리는 이제 캄보디아에 평화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문명사회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했을 암흑의 시절이 시작되고 있었다.

처형이 자행되는 동안, 크메르 사회는 혼란한 상황에 있었던 듯하다. 사람들은 도시를 떠날 방법을 찾았다. 나는 우리 가족의 물건을 내 자전거에 실었다. 나는 하루에 딱 2번 13km거리인 아버지의 고향에서부터 도시에 있는 우리 집까지를 왕복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교통이 엄청나게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새로운 마을에서 정착한지 한 달 쯤 지나자 우리가족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꽤나 조용하게 느껴졌다. 크메르루즈는 적을 숨기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족 모두를 처형하겠다고 위협했다. 이 때문에 친가 친척들은 두려워했

고 가족을 살릴 방법을 간구했다. 그들은 아버지를 독살시키든지, 지하에 숨기든지, 아니면 태국어에 능숙한 아버지에게 소달구지를 주어 태국으로 보낼지에 대해서 논의 했다. 첫 번째 방안은 너무 비인간적이었다. 두 번째 방안은 우기가 오면 지하 동굴이 물로 인해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또한 통행증 없이는 여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방안을 사용 했을 때 잡힐 가능성은 매우 높았다.

한 사건은 수년간 잠재의식 속에서 몰아내려고 노력했어도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아버지의 매형이 최종 방안을 시도한 것이다. 그는 크메르루즈에게 아버지를 신고했고, 그날 밤 세뇌 교육을 받은 삼촌과 12명의 군인이 우리 오두막집을 둘러쌌다. 그들이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이곳에 없다고 말했다. 두 명의 군인이 오두막에 올라와 손전등으로 구석에 숨어있던 아버지를 찾아냈다. 그들은 즉시 아버지를 결박하여 우리 오두막에서 300미터정도 떨어진 곳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그들을 쫓아갔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밀어내며 가서 울고 있는 아이들이나 잘 돌보라고 했다.

어머니는 근처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같은 군인이었던 큰아버지에게로 달려갔다. 말을 듣자마자 큰 아버지는 크메르루즈가 아버지를 데리고 있는 곳 근처로 달려가 덩불속에 몸을 숨겼다. 군인들이 쌀 논 한복판에 아버지를 세워놓고 손전등으로 초점을 맞춘 후 총을 쏘 죽였다. 그들이 몇 발을 더 발사한 후에도 아버지는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발로 차 땅에 떨어뜨린 후 총검으로 찔렀다.

이번에는 무자비한 크메르루즈가 아버지가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총살이 이루어지는 동안 나는 최소한 두 발이상의 총성을 들었다. 그 총성은 짧은 순간만 지속되었지만 나에게서는 영원과도 같게 느껴졌다. 우리가족은 그날 밤을 친척들과 함께 보내면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미동도 하지 않는 아버지의 시신을 쌀 논에서 발견하게 되었다. 총알이 박히고 피가 빠져버린 아버지의 시신은 얼굴을 위로 향한 채 32도의 날씨에서 하루 종일 방치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살인마 크메르루즈 군사들을 가득 실은 지프차가 아버지의 움직임 없고 무방비상태인 시신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분명히 그들은 아버지

가 죽었다고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다. 늦은 오후, 무덥고 햇볕이 쨍쨍하던 하늘에 갑자기 검은 구름이 우리 마을 위로 생겨나기 시작했다. 당시 아버지의 조카가 아버지가 죽은 곳에 그를 묻고 있었다. 갑자기 폭우와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우리는 매우 추웠고 두려웠으며 아버지의 보호와 따스함을 잃어버려 너무나 연약했다.

3개월이 지나 할아버지는 어머니의 고향마을에 나머지 가족을 모두 모이도록 했다. 우리는 몇 명의 괴물 같은 크메르루즈 군사들이 자전거를 타고 서로 웃고 미소 짓는 것을 제외하고는 유령의 도시와 같은 도시를 지났다. 나는 내 분노와 증오심을 보이지 않기 위해 무척 애를 썼다. 우리는 그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려웠다. 그들이 무고한 크메르 사람들에게 행한 무자비한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까봐 두려웠다.

그 후 3년 동안 우리 가족은 내가 평생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을 겪었다. 야만적이고 광기어린 크메르루즈 정부에 의해 크메르 사회는 기존인(既存人)과 이방인(異邦人)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1975년 4월 이전에 그들이 해방시킨 사람들을 기존인이라 불렀고, 기존인 들에게는 더 나은 대우와 삶의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1975년 4월 이후에 해방시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 불렀는데, 노예처럼 대우하며 적절한 음식과 물품, 주거공간도 제공하지 않은 채 온갖 노동집약적인 일들을 다 시켰다. 우리 가족은 후자에 속했다. 어머니는 재혼을 강요당했고, 만약 거절을 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어머니는 크메르루즈가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크메르 공화군 출신이라는 신분 때문에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새 아버지와 어머니는 1년 후 아들을 낳았다.

한편 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관개시설 구축 공사를 위해 다른 어린 소년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농경지로 보내졌다. 누나는 또래의 소녀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두 명의 여동생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다. 크메르루즈가 그녀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3지역이라고 불리는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써다른 남동생과 함께 탈출해야만 했다.

뿔뿔이 흩어진 우리 가족은 계속되는 공포와 배고픔 속에 살았다. 너무 배가 고파 증오나 복수를 생각할 수도 없었다. 매일 밤이 지옥 같기만 했다. 배가 고파 잠이 드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었다. 때때로 나는 잠을 청하기 위해 물로

배를 채우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변이 마려워 자주 일어나야만 했다. 다른 소년들과 나는 밤에 소변을 누기 위해 기다란 호수를 밑바닥에서 가까운 수풀까지 연결했던 기억이 난다. 불행히도, 우리를 담당했던 크메르루즈 지도자가 다음 날 아침 우리의 에너지 절약 장치를 부숴버렸다.

낮 동안에는 뱀이나 들쥐 같은 움직이는 식량을 찾아 다녔다. 이러한 일은 길고도 고된 노동시간 이후에 아주 잠깐 쉬는 동안에만 허용이 되었다. 적절한 영양섭취를 못해 내 몸은 아주 마르고 허약했다. 다른 소년들도 나와 비슷한 상태였다. 우리는 마치 할아버지들 같았다. 우리는 힘도 없고 다음날 할당받은 일을 하려면 힘을 아껴야 했기 때문에 함께 뛰어놀거나 긴 시간 대화를 나누지도 거의 못했다.

크메르루즈의 통치를 받던 마지막 해에, 나의 여동생들과 남동생은 어머니가 있는 3지역에 합류했다. 3지역에 있는 동안 나는 목화를 재배하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보내졌다. 그곳에는 먹을 음식이 많았고, 따먹을 수 있는 열대와 일도 풍부했다. 처음으로 인생이 살아갈 만 하다고 느끼게 되었지만, 가족을 자주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다. 아마도 국가전체가 많은 지역으로 나뉘어졌던 듯하다. 각 지역마다 각각 다른 지도자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광기어린 무자비한 크메르루즈 정권이 장악하고 있었다. 3지역과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더 인간적이고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1978년 후반과 1979년 초반,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침략하여 크메르루즈 군을 캄보디아 서쪽 정글로 내쫓아버렸다. 크메르루즈 지도자가 더 이상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친척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도시에 있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 집은 시멘트 기둥만 있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었다. 우리 가족과 친척의 일부는 다른 사람의 집에 머물렀다. 가족 수를 세어보니 두 명이 실종되었고, 네 명이 죽었다.

미치광이 같은 크메르루즈 정권하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4년 동안 하루가 한 달 같았고, 한 달이 일 년 같았으며, 일 년은 한 세기 같았다. 시간은 정지해버린 것만 같았다. 학교교육도 없었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었다. 당시 내가 배운 것이라고는 증오심과 아버지와 죽은 여동생, 누이에 대한 복수심 뿐이었다. 17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용서'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선다.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크메르루즈가 우리 가족과 크메르 사람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절대로 잊지 않을 거라는 사실이다. 다시는 이러한 광기어린 정부가 캄보디아를 통치하거나 다른 문명사회를 통치하지 못하기를 소망한다.



벽 없는 감옥

찰스 옥 (Charles Ok)

당신은 배고프거나, 고문당하거나, 고통 받거나, 살고자 하는 희망을 잃거나 죽음 당할 순서를 기다려본 적이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삶이 한 조각의 빵이나 종이 쪼가리 또는 사탕 부스러기보다 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현상은 폴 포트, 이엥 사리, 키우 삼판이 이끌었던 집단학살 정권의 통치 하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일어났다.

나의 아버지는 사트야 옥(Satya Ok)이고 1958년에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프놈펜에 살았다. 4월 17일에 캄보디아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한다. 그러나 1975년 이날에는 새해맞이 대신에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혁명군에 의해 시골로 이주해야만 했다. 이것은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의 정권을 잡은 후였다. 그들은 우리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삼일 후면 다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이 도시에 폭탄을 투하할 것을 우려해 너희를 대피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도시 동부 쪽에 있는 내무부 건물 근처에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야만 했다. 길을 따라 5~6km 정도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집 옆이나 사원 근처에 텐트를 쳤다. 우리 가족은 운 좋게도 어머니가 왓 참파 근처에 사는 사촌이 있어서 그곳에서 얼마동안 머물렀다. 삼 일, 삼 주 그리고 석 달이 지나도록 우리는 비를 기다리는 가뭄처럼 집에 돌아가기만을 기다렸다. 음식은 바닥이 나고, 돈은 사용가치가 없어졌으며, 금과 은만 음식으로 교환이 가능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러한 고통과 억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다.

도시는 이제 유령의 마을처럼 보였다. 그곳에는 크메르루즈군만 있을 뿐이었다. 이 군인들은 도시에서의 직업을 다시 갖고자 하는 사람들의 등록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등록했다. 그러나 다시 직업을 찾게 하는 대신, 그들 중 일부는 죽음을 당했다. 다른 사람들은 캄보디아 서부의 푸르셋이나 바탐방 지역으로 보

내저 강제 노동수용소에서 일했다.

어머니의 사촌 집에 잠시 동안 머물고 난 이후, 우리는 메콩강 동부쪽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그룹생활을 하면서 공동작업반의 노동을 해야 했다. 우리가 받는 식량은 가족 수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는냐에 따라 주어졌다. 단 한 번도 충분한 양을 받은 적이 없었다.

1976년 초, 추수 시기였다. 공동작업반의 대표가 바탐방이나 푸르셋 지방으로 갈 사람은 신청을 하라고 했다. 그들은 그 지역에는 추수할 사람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논에 쌀이 많이 남아있다고 했다. 푸르셋과 바탐방 지역은 쌀이 풍부한 곳이었으므로, 우리는 주저 없이 가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기차를 탔고, 푸르셋에 내렸다.

우리 가족 모두는 각자의 나이에 따라 그룹으로 나뉘어져 일했다. 나는 10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색깔 있는 옷은 금지되었다. 오직 검은 색만 입을 수 있었다. 검은 신발은 트럭이나 자동차의 타이어로 만든 것이었다. 그곳에는 화장품도, 높은 하이힐도, 부츠도 보석도 없었다.

매일 밤낮으로 우리는 기도했고, 음식에 대한 생각만 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야위어 갔다. 휴식시간마다 우리는 모여서 먹는 것, 또 먹는 것, 또 먹는 것만 이야기 했다.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든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가끔 잘못된 음식을 먹고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섭식장애를 앓았고 시름시름 앓게 되었던 것이다. 가장 흔한 질병은 설사, 말라리아, 이질이었다

크메르루즈는 현대의학을 금지시켰다. 우리에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모든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였다. 가족 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아프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어머니는 친구로부터 현대의약품을 조금 밀수 할 수 있었다. 그 후로 어머니가 아프셨다. 형과 나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약을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두 주가 지나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나는 살아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 나는 10대 공동작업반에서 구역 노동자수용소로 보내졌고, 나중에는 지역 노동자수용소로 보내졌다. 공동작업반이나 구역 노동자수용소보다는 훨씬 많은 배급량이 주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충분하지는 않았다. 음식, 소금, 담배가 창고에는 가득 있었다. 그러나 혁명군은 그

음식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강도가 되었고, 만약 잡힌다면 죽음을 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나는 형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다. 가끔 나는 형을 만나러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어느 날 그곳에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일손이 부족하다며, 시체들을 땅에 묻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다. 사망에 수천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겨울에는 대부분의 땅이 축축하고 물로 가득하다. 시체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시체위에 시체를 쌓아 묻었다. 시체가 부어오르면 묻기가 힘든데, 밤에 여우나 다른 동물들이 구멍을 파두면 훨씬 수월했다.

살아 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이때는 아주 무서운 시간이었다. 굶어 죽는 것 외에도 우리는 다른 종류의 학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매일 밤낮으로 젊은이들이 목을 매 자살을 했다. 크메르루즈는 이들이 전직 군인이거나, 전직 경찰관, CIA요원 또는 KGB일원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혁명의 적들이었다. “우리는 반드시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 그들은 유죄가 밝혀지기도 전에 죄인이었다. 몇몇은 자신이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기에 정글로 도망을 갔으나 잡혔다. 잡힌 사람들은 도망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고 경고하기 위해 죽음을 당했다. 몇몇은 자살을 시도했다. 날이 갈수록 과부들만 남게 되어 마을은 점점 더 텅 비어갔다.

한때 크메르루즈와 베트남공산당의 관계는 매우 가까웠다. “베트남은 형제요, 캄보디아는 자매다. 우리는 입술과 치아와 같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 관계는 싸늘해지고 불쾌해졌다. 결국 두 단체는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 싸움으로 인해, 크메르루즈는 공동작업반과 구역노동자수용소에서 베트남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모조리 찾아내 죽였다. 많은 사람들이 잡힌 전직 군인들과 경찰관들과 함께 교육센터로 보내져 죽음을 당했다.

베트남 국경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피난을 가야했고, 그들은 바탐방과 푸르셋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모든 가족, 아기들, 어른들 할 것 없이 모두 죽음을 당했다. 크메르루즈는 이들이 베트남의 스파이라는 이유로 죽인 것이다.

어느 날 나는 정글을 개간하기 위한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다. 나는 형이 살던 마을을 지나가야만 했다. 형을 만났을 때, 그는 굉장히 말라 있었다. 형과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나는 내가 가진 식량의 절반을 형에게 주었고 당시 형이 나에게

했던 말을 아직도 기억한다.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나에게 준 식량은 엄청난 양의 금, 혹은 내 인생에서 겪어볼 수 없는 큰 파티나 마찬가지다.”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형을 다시 찾아갔다. 안타깝게도 형은 죽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외로운 사람이 되었다. 가끔 나는 앉아 울면서 과거를 회상한다. 그러나 삶은 계속 되는 것이고, 나는 나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참혹함을 목도하는 것

몰리 리(Moly Ly)

때는 1975년 4월 17일 아침이었다. 번쩍이는 태양이 장관을 만들어내며 지평선으로부터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대조적으로, 우리의 삶은 조금씩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어린 소년이었으나, 기자였던 형 이양 리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형은 나의 생각을 자극했고, 이 새 정권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될 것인가를 알려주었다. 공산주의 이론과 이들의 무차별적인 학살을 알게 되면서, 나는 열 세 살의 나이에, 우리에게 다시 햇빛을 볼 수 있는 행운이 올 것인가를 생각했다. 이전에 내가 살았던 수수하지만 행복하고 소박한 삶의 모습이 이 불분명한 미지의 암흑세계에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았다.

그날 우리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하면서 집안에 숨어있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 우리는 대문을 쿵쿵 두드리는 한 무리의 크메르루즈 군사들에게 적발되었다. “가지 않으면 총으로 썩 죽일 것이다!” 그들 중 한명이 소리쳤다. 우리는 더 이상 모르는 채 할 수 없었다. 짐을 들고 어머니와 누나 나이케아, 네이비, 쿠이니, 두 매형과 두 명의 여 조카와 두 명의 남 조카는 다른 많은 가족들처럼 프놈펜을 떠났다. 우리는 짐을 어깨에 메고 머리에 얹은 채로 걸었다.

형에게 공산주의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알기에 형은 태국 북부로 탈출하기 위해 우리 가족과 다른 방향으로 출발했다. 형은 나와는 정반대로 키가 180cm가 넘고 잘 알려진 기자였기에 숨기가 힘들었다. 그에게 있어 크메르루즈의 승리는 위협이 따르는 것이었다.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하고, 행운을 비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한 무리의 크메르루즈 군사들이 군중을 위협했다. “빨리 가! 빨리 움직이라고!” 그들은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빨간 크라마스(kramas)를 두르고, 어깨에는 소총을 메고 있었다. 어린 아이가 울기 시작하는 소리를 듣고, 나도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서 자란 타케오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가는 길에는 사방에 시체가 널려 있었다. 우리는 걷다가 멈출 때마다 음식을 만들고 마실 물을 찾아야 했다.

첫 번째로 멈췄을 때, 나는 물동이를 가지고 근처 강가로 갔다. 1.5km 정도 떨어진 곳에 시체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고, 물속에서 죽은 물소처럼 퉁퉁 부어있었다. 그러나 그 물을 끓여 마시고 음식을 만들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밤에 나는 절망감에 울었다. 이것은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왜 인간이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지 나는 나 자신에게 물었다.

결국 우리는 타케오에 도착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바탐방 지역의 작은 마을로 보내졌다. 큰누나 나이케아와 그녀의 가족은 누나와 매형이 선생님이었다는 이유로 다른 곳으로 보내졌다. 내가 간 마을에는 300여 가족이 있었다. 각 가족은 오두막을 갖고 있었고, 이는 높이 12피트, 넓이 12피트 정도 되는 크기였다. 사람들은 모두 다섯 그룹으로 분류 되었다. 어린 아이, 큰 아이, 미혼 여성과 남성, 기혼 여성과 남성, 노년층으로 나뉜 것이다.

각 그룹은 각자 다른 논에서 일하도록 명령받았다. 모든 이들은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힘든 일을 견뎌야만 했다. 만약 마을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한다면, 몇 시간 쉴 수 있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을 한다면, 식사시간을 제외하고 단지 30분에서 1시간 쉴 수 있을 뿐이었다. 14살이 된 나는 미혼남성 그룹에 보내졌지만, 내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큰 아이 그룹으로 다시 보내졌다. 어쩌다 한번 씩 쿠이니 누나와 나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 우리는 콩 차랏(kong chalat)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동부대라는 뜻이다.

우리의 임무는 제방을 만들고, 터널을 파고, 나무의 뿌리를 제거해 숲을 없애고, 통나무와 가지를 자르고, 오래된 관목을 태우는 일이었다. 우리는 인분을 흙과 섞었다. 흙을 나르는 무거운 통에는 납작한 막대기가 달려있었고, 이것은 우리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매일 우리는 굶주렸지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걷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어린 아이들(5세나 6세)도 임무를 부여받았다. 우리의 주식은 아주 적은 양의 죽이었다.

우리의 삶은 점점 이 흉악한 짐승들, 배운 것 없고 세뇌 교육된 크메르루즈에

게 빼앗겼다. 크메르루즈의 지도자는 중국에 복종하는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게으르다는 이유로 끌려가 처참하게 처형당했다. 정신병이 있거나 신체적으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죽이기도 했다. 교사, 변호사, 의사, 전직 군인(특히 고위직 간부)과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처형대상 우선순위였다. 어떤 이들은 운이 좋아 자신의 실제 신분을 숨기기도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모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안경(구정권의 잔재)을 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다. 크메르루즈는 안경 쓴 사람을 교육받은 사람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크메르루즈는 총살이 총알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알대신에, 그들은 팽이자루로 때려 사람들을 죽였다. 그들은 이것을 베이 초울(vay choul)이라 불렀다.

하루 종일 배가 고픈 것도 충분히 힘들다. 그러나 날마다, 달마다, 매 해마다 배고픈 것은 정신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우리를 쇠약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채소처럼 보이는 독이 없는 풀을 요리해 먹었다. 식용 가능한 꿈틀거리는 벌레는 우리의 영양 공급원이 되었다.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던 것들도 먹을 만한 것이 되었다.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어떤 이들은 땅속의 시신을 파내어 살을 잘라 튀겼다. 한 남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인육을 먹으려다 잡혀 바로 죽음을 당했다.

당시 내 여 조카 비피아는 막 두 살이 되었었다.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은 단지 buy, Pa, Mak이라는 것이었는데 한국말로 '밥', '아빠', '엄마'라는 의미였다. 비피아는 이 세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했다. 얼굴과 손발이 부어오른 매형은 어린 딸이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아이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분명 매형 니게쓰는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다 정신 이상을 일으킬 정도로 쇠약해진 것이다. 나라가 몰락하기 전에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서 신사라고 인정받던 매형이 이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누나 네이비가 매형과 아이를 떼어 놓으며 때리는 것을 말렸다. 누나 역시도 그녀의 남편과 같은 질병에 걸려 창백하고, 얼굴과 손발이 부어있었다. 이 병은 당시 가장 만연한 병이었다. 말라리아와 이질도 창궐하고 있었고 이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나는 내가 목숨을 유지할 만큼 힘을 회복할 수 있을지 조차 확신 할 수 없었다. 나는 크나큰 고통을 겪었다. 더 이상 울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무시무시한 경

힘이 평범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다. 해질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의미했다. 나뭇가지로 만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할 때, 나는 눈을 감고 나서 다시는 깨어나 해를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몇 달이 지나 어린 비피아는 지나치게 팽창한 물 풍선처럼 부어올랐다. 아이는 너무나 연약했다. 쌀죽을 달라고 간청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었다. 기억을 잃어버렸거나 너무 아파서 말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어쩌다 말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엄마나 아빠라는 말은 하지 않았고 오직 '밥'만을 말했다. 나는 조카가 웃는 것을 한 번도 본적이 없다. 아이의 어두운 얼굴은 동정심을 유발했다. 아이는 즐거움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이 지구상에서, 매일 매일 천천히 고문을 받기 위해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 한 어린 소녀를 지켜보는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을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누나 네이비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급하게 오두막 밖으로 뛰어나갔다. 어린 딸을 품에 안은 채, 그녀는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다. 누나의 평소와 다른 힘은 뭔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음을 나타냈다. 비피아의 눈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동공은 겨우 위 아래로 움직였다. 말도 하지 못했다. 누나의 창백하고 부어오른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누나는 오두막 주위를 종종 걸음으로 달리며 계속해서 간청하고, 울며 소리 질렀다. 이웃사람들은 그들의 오두막에서 뛰어나와 비피아를 슬픔이 가득고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한 시간여가 지나 비피아는 숨을 거두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을 느꼈지만 아이의 죽음을 애통해하지는 않았다. 목숨을 유지하려면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했기 때문이다. 나는 아이가 이제는 평화로울 것임을 알았고,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

그 후로 얼마 지나 매형 니게쓰는 마을 밖으로 호송되었다. 우리는 그가 너무 아파 일을 할 수 없어서 병원으로 가는 것이라고 들었다. 나는 이 사실이 의심스러웠고, 매형이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임을 알았다. 우리는 매형을 도울 힘이 전혀 없었다. 그 날 크메르 루즌 매형 니게쓰를 포함해 세 명을 데리고 갔다. 그들은 모두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고, 우리는 그들이 살해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50여 가족이 다른 구역으로 이송되었다. 크메르루즈는 이 불쌍한 가족들을 큰

미 군용트럭에 태워 데리고 갔다. 며칠 후, 지역 군인이 말하기를 그 가족들은 베트남 혈통을 가지고 있어서 처형당했다고 했다. 꽤 많은 친구들이 죽었는데 그들은 모두 중국계 캄보디아인이었다. 그들의 피부색은 나보다 조금 밝을 뿐이었다.

네이버 누나가 산파였던 것을 알게 된 크메르루즈는 글을 읽지 못하는 그들의 동지들을 훈련시키는데 누나를 이용했다. 그녀가 아는 바를 그들에게 가르친 이후에 그들은 누나를 내쫓았다. 몇 달이 지나 누나는 아프게 되었고, 마을 근처의 병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병원은 의사도 간호사도 없었고, 단지 누나가 가르쳤던 것처럼 단 몇 달 동안 훈련받은 문맹의 크메르루즈 동지들만 있었다. 누나는 병원에 있는 편이 집에 있으면서 일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나았다.

네이버 누나가 크메르루즈를 도운 적이 있고 그녀가 아프기 때문에, 나는 누나 옆에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누나의 전신은 심각하게 부어 올랐다. 후에 내 품에 안겨 숨을 거두었다. 누나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이틀 밤을 새워가며 간호를 했던 나에게는 너무나도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비통함에 쌓인 목소리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나는 격하게 울었다. 누나의 시신은 다른 두 구의 시신과 함께 묻혔다. 누나만을 위한 무덤에 묻어달라던 나의 요청은 거절당했다.

네이버 누나의 죽음 이후 나는 누나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집으로 돌아갔다. 옹카르가 감자수확을 하고 나서 남은 감자를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나는 긴 막대기로 죽을 만큼 맞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먹이고 싶었다. 내 검은 셔츠는 등에서 흘러나온 피로 흠뻑 젖었다. 어머니는 흐느껴 우셨다. 다음 날 나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고, 일하러 갈 힘이 없었다. 어머니를 도우려했다는 이유로 쌀죽도 먹을 수 없었다. 아픈 어머니가 나를 보살피기 위해 고여 있는 연못에서 물둥이로 물을 나르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악몽이었다. 내가 어머니를 보살폈어야 했다. 어머니는 50대 중반이었지만 겉모습은 70대 중반처럼 보였다. 어머니의 약하고 부어오른 몸은 자신과 아들을 살리기 위해 너무나 많은 것을 견뎌내야 했다.

몇 달이 지나 나는 어머니와 멀리 떨어져 콩 찻랫중 한 지역으로 보내졌다. 쿠

이니 누나는 미혼 여성 그룹이기 때문에 항상 이동부대에 속해 있었다. 어머니가 너무 아파 혼자 들 수 없다고 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어머니는 누나가 죽은 그 병원으로 보내졌다. 한 달여가 지나, 일을 하고 있는 중에 그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곳에 우연히 있던 마을 지도자가 어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말해준 것이다. 나는 어머니의 시신을 보러가겠다고 했지만, 크메르루즈는 허락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이야. 봐서 무엇 하려고?” 어머니가 죽기 전에 조차도 어머니에게 가겠다고 요청하면 그들은 “넌 의사도 아닌데 봐서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말했었다. 나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잡히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노동수용소를 도망쳐 나와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서 나는 어머니가 이미 다른 시신과 함께 묻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누나 나이케아, 큰 매형 트라이와 살아남은 조카 하나가 나를 찾으러 왔었다는 소식을 이모로부터 들었다. 그들은 빈 오두막만을 찾았을 뿐이다. 큰 누나 가족은 엄청난 홍수 때문에 마을을 떠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었다. 그녀는 우리 마을에서 8km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만한 마을을 발견했다. 큰 누나와 매형은 둘 다 교사였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나는 또 마을에서 몰래 빠져나갔다. 이번에는 큰 누나를 찾기 위해서였다. 나는 진이 다 빠진 해골 같은 물골을 하고 먹을 것에 굶주려 있었다. 나는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살겠다는 강한 집념은 내 안에 남아있었다. 가는 동안 나는 배를 채우기 위해 버가 있는 논으로 가 껌질 채로 버를 모은 후 가능한 한 빨리 먹어치우기로 작정했다. 나는 크메르루즈 스파이인 콩 치로업(knog chloup)에게 잡혔다. 당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그들은 나를 감옥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한번은 네 명의 여성과 한 명의 남성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관찰하지 않으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너무나도 약한 모습이었다. 뼈는 그들의 몸 곳곳에서 튀어나와 있었다. 밤에는 도망가지 못하게 특수 목재로 만든 수갑이 발에 채워졌다. 새벽에는 감옥 근처로 끌려가 흙을 고르는 일을 했다.

다음 날 한 여성이 자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그녀의 발목에도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때 나는 이곳이 사람들을 굶기고 과도하게 일을 시키면서 잔인하게 고문하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때때로 그들은 음식 조각을 우리 얼굴에 던지고 웃기도 했다. 또 어떤 때는 고된 일을 하느라 탈진한 상태에서 매를 맞기도 했다. 더 이상 나는 인간의 기능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내 심장과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감옥의 문이 여느 때처럼 열렸다. 일하러 갈 시간이었다. 어두운 피부색을 가진 한 남성이 친근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에게 말했다. “가자. 네 누나가 널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나이케아 누나는 친구로부터 내가 감옥에 잡혀 있다는 것을 듣고서, 마을 지도자였던 이 친절할 남자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다. 그는 크메르루즈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긴 했지만 따뜻한 심성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었다. 새로운 마을에서 우리의 삶은 조금 나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심하게 말랐고, 아파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 베트남군이 쳐들어와 크메르루즈를 몰아냈지만, 비극적이게도 나이케아 누나는 얼굴과 손과 발이 부는 그 병에 걸리고 말았다. 누나는 그 어떤 정권도 크메르루즈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임을 알았기에 베트남의 침략을 기뻐하였지만, 자신의 목숨을 위해 싸워야 했다. 누나가 걸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다. 결국 누나는 죽었다. 누나의 죽음은 너무나도 원통하고 가슴 아픈 일이었다.

공산주의의 사악한 공갈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수백만 캄보디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국민에 대한 크메르루즈의 증오와 대학살의 결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히틀러는 죽었지만 폴 포트와 그의 측근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엿보고 있다. 왜 인류는 이러한 사악한 살인마들을 아직도 살려 두면서 이 악명 높고 비탄받아 마땅한 일에 묵인하고 있는가?

나는 이 이야기를 소름끼치는 세월동안 고통의 세상에 남겨졌던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할머니, 형제, 자매, 매형, 조카들에게 바친다.

불행한 캄보디아

사롬 프락(Sarom Prak)

새벽 2시, 말레이시아 순가이 베시 수용소 내 자리의 촛불 아래에서, 나는 홀로 앉아 내 과거와 미래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 나는 지난 7년간 아무런 해결책도 없는 상태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왜 나는 혼자인가? 누가, 왜 나를 이렇게 혼자 있도록 만들었는가? 이것은 나를 아는 모든 이들, 특히 캄보디아인들에게 그들이 이유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하려고 하는 매우 난해한 질문이다.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나는 폴 포트 정권의 노예였다. 크메르루즈가 권력을 잡고 있는 동안 국가 전체가 그들에 의해 몰살되었다. 수백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처참하게 학살당하는 장면을 회상할 때면 나는 엄청난 두려움을 느낀다.

크메르루즈가 1975년 캄보디아를 장악한 이후, 적어도 이백만명의 사람들이 시골로 이주해야했다. 크메르루즈 군사들에 의해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은 도시에서 사라졌다. 옹카르는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도시사람과 “기존인”이라고 불리던 시골사람으로 구분했다. 이 때 나는 크메르루즈를 처음 듣게 되었다. 크메르루즈가 통치하던 기간 동안,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은 넓은 강제노동수용소로 보내졌다. 모든 사원은 파괴되었고, 많은 수도승과 승려들은 죽음을 당했다. 그들은 아내, 남편, 자녀간의 정서를 파괴하였다. 그들은 가족을 분리시켜 각각 다른 노동그룹으로 분류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터와 가까운 곳의 공동식당에서 식사하도록 만들었다. 우리는 서로를 볼 수가 없었다. 부모나 형제자매가 보고 싶으면 비밀리에 수용소를 빠져나가야만 했다. 만약 크메르루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심한 처벌을 받았다.

나는 타케오 지방의 수용소에 있었다. 우리는 아침 6시에 일어나 11시 30분 첫 번째 식사를 할 때까지 일을 했다. 크메르루즈는 감자껍데기가 섞인 밥 한 강통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것으로 200명이 먹었다. 식사 후 우리는 1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해서 또 일을 했다. 그런 다음 또 식사를 했다. 밤에는 7시 30분

부터 자정까지 일을 했다. 만약 우리 중 한명이 아픈 것 같으면 그에게는 약간의 뭍은 죽만 주어졌다. 그가 매일 아프게 되면, 곧 사라지게 되었다. 그의 가족이 그의 행방을 물으면, 크메르루즈는 옹카르에게 보내졌다고 대충 대답하곤 했다. 크메르루즈가 옹카르에게 보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애처롭게도, 우리는 모두 비속에서도 뜨거운 햇볕아래서도 쉬 없이 일할 것을 강요당했다. 이 기간 동안 도랑이나 터널을 파고, 댐을 건설하는 등의 많은 종류의 작업이 있었다. 우리는 캄보디아 노예 노동자들이었다.

이러한 공산주의 정권에서 누구도 옹카르의 허가 없이 결혼할 수 없었다. 남성은 어떤 여성에게도 프러포즈할 수 없었다. 옹카르는 서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지라도 강제로 결혼하도록 시켰다. 옹카르는 이따금 타케르 지역에서 70에서 100쌍의 커플을 위한 결혼식을 준비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제결혼은 군인, 마을과 구역의 수장과 같은 힘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 소녀들을 임신하기 전까지 데리고 놀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다. 많은 소녀들이 이들과 강제로 결혼을 했고, 이를 두려워하는 소녀들은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 연애, 간통, 정사 등은 처형의 이유가 되었다. 누구도 이에 대해 불만을 늘어놓거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감히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그 남자나 여자는 곧 사라졌다.

공산주의자들은 수백만의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훈련을 했다. 어린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도 죽였다. 옹카르의 원리들은 다음과 같은 사상을 군사들의 마음속 깊이 심었다. “우리는 부모의 성적인 욕망에 의해 태어났다. 따라서 그들을 존경하지 마라. 만약 부모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죽여야 한다.”

크메르루즈는 이 지역에서 저 지역으로 소금을 나르라고 한 후, 많은 이방인들을 죽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 고립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죽였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하러 어딘가에 가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부락에서 가까운 정글에 공동식당을 만드는데 쓸 목재를 구하러 갔을 때, 나는 많은 뼈와 시체를 보았다”라고 한 마을사람이 말했다. 이 구역의 다른 장소에는 더 많은 시체가 있었다. 이곳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곳이다. 아버지는 캄보디아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당시, 군대의 대령이었다. 크메르루즈는 아

버지가 미국CIA 요원이라는 죄목으로 죽었다.

당시 나는 타케오의 불교 사탑에 살았다. 탑에서 동쪽으로 100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나는 늑대들이 밤이면 먹으려고 구덩이에서 파낸 시체들을 봤다.

그들이 살해되기 전, 일부 무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힐 작은 구덩이를 강제로 파야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중 누구도 맞서 싸울 힘이 없었다. 새로운 구덩이가 준비가 되고 나면, 어린 군인들은 무거운 팽이자루, 두꺼운 대나무 막대기 또는 도끼로 그들을 때리기 시작했다.

학살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곳에는 고통으로 인한 외침과 신음소리가 있었다. 뒤통수가 으깨진 사람들은 피가 콧구멍, 귀,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어떤 사람들은 군인들이 그들에게 흙을 덮을 때에도 완전히 죽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커다란 구덩이는 노동자들이 팠다. 그런 다음 트럭으로 눈을 가린 죄수들을 데리고 와 구덩이의 가장자리에 끌어다 세웠다. 구타를 당한 후 한 사람씩 차례로 구덩이에 떨어졌다.

크메르루즈는 10대도 죽였다. 그들의 팔을 들어 올려 배를 가르고, 간과 쓸개를 잘라내 자루에 담았다. 일부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희생자들의 간을 먹기도 했다. 어린 소년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소리를 질렀다. 크메르루즈는 시신들을 훼손시키고 어린 아이들과 아기들의 목을 잘랐다. 그들은 아기들을 조각조각으로 나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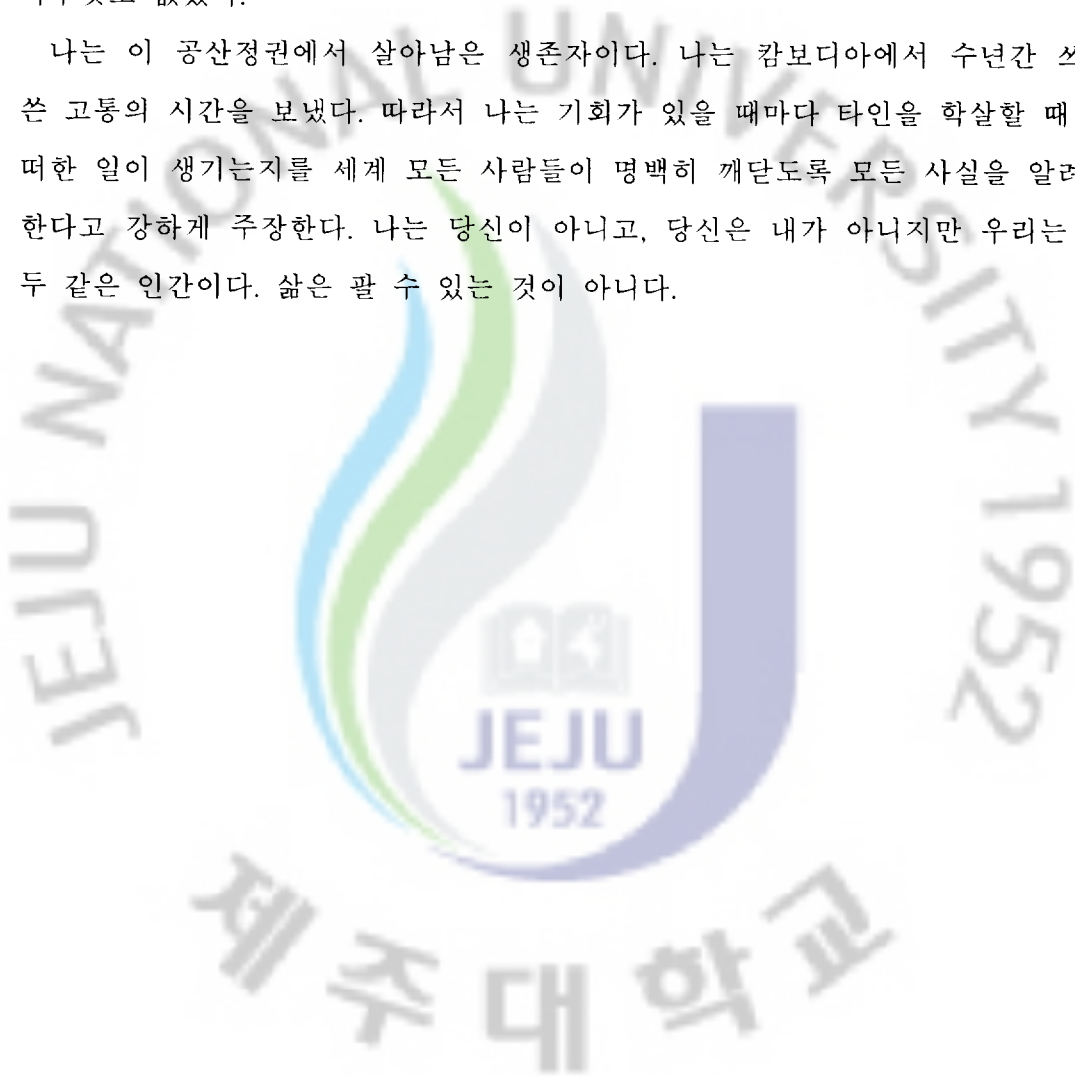
크메르루즈는 일하면서 실수로 칼이나, 팽이, 도끼, 쟁기 등을 부러뜨린 사람도 살해하였다. 일부 사람들을 발전기를 사용하여 전기로 처형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날이 넓은 칼로 참수형에 처하기도 했다. 크메르루즈는 핀셋을 사용해 여성의 젖꼭지를 뜯어냈으며, 손톱도 뜯어냈다. 어떤 곳에서는 강제로 옷을 벗기기도 했다. 크메르루즈는 옷을 모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 이 옷들이 옹카르가 보낸 선물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가족의 옷을 발견하기도 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를 말할 수 없었고, 그들에 대해 질문 할 수도 없었다.

1977년, 나는 타케오 지방, 트람 각 구역의 105번 구역에서 109번 구역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동했다. 이 지역에는, 부락의 동쪽 벼논에 학살지가 있었다. 처형자들이 사람들을 학살할 때, 그들은 보통 마을 사람들이 신음소리나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는 확성

기를 틀어놓았다. 나중에, 마을 사람들은 확성기 소리가 들리면 크메르루즈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학살지 근처에 살던 사람들은 숨죽여 비통한 눈물을 흘렸다.

공산당 크메르루즈는 전국 방방곡곡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이 기간 동안엔 비행기도 없었고, 기차도 다니지 않았으며, 우편물도 보낼 수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이 공산정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다. 나는 캄보디아에서 수년간 쓰디쓴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따라서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타인을 학살할 때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를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명백히 깨닫도록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한다. 나는 당신이 아니고, 당신은 내가 아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다. 삶은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둠속의 삶

로은 삼(Roeun Sam)

나는 크메르루즈 공산정권을 절대 잊을 수 없다. 내가 열 네 살이었을 때 캄보디아는 몰락했고, 크메르루즈는 사람들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총으로 협박을 당하며 정글로 가야만 했다. 크메르루즈는 미국이 폭탄을 투하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일만 떠나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들은 적이 사라질 때까지 도시를 텅 비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삼일후면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짐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다.

우리 가족은 가져간 것이 별로 없었다. 준비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매우 늙었고, 짐을 많이 싸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크메르루즈는 우리 가족에게 다가왔다. “당장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 다 쏘아 죽일 것이다.” 나는 다시 돌아 왔을 때 학교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얼른 달려가 책을 가져왔다. 코코넛 나무와 망고 나무 그리고 나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느끼게 해줬던 우리 집에 작별인사를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울었다. 아버지는 그곳에 서서 나를 바라보시며, “걱정마라. 우리는 다시 돌아 올 거란다. 절대 네 나무를 잃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우리는 먼지 나고 건조한 길을 20km가량 걸었고, 검은 옷을 입은 크메르루즈는 우리 뒤에서 총을 겨누며 따라왔다. 그들의 신발은 타이어고무로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빨강과 흰색 줄무늬가 그려진 어깨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를 괴롭히고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 그들은 내게 미련하다고 했다. 내가 자전거를 타면서 선생님이 선물해주신 책과 함께 화학책, 역사책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돌아가서 공부를 하겠어?” 그들은 사악하게 웃어댔다. 그들 중 한명이 책을 찢어 말아 담배를 피겠다며 내 책을 달라고 했다. 여동생들이 있었던 나는 그들이 동생들을 해칠까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책을 내주었다. 그들은 내 책을 찢어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

크메르루즈 지도자 메콩은 우리 가족을 버 씨앗을 저장하는데 사용했던 장소

에 집어넣었다. 당시 우리 가족은 여덟 명이었는데, 밖으로 나오라는 명령이 없으면 햇빛을 볼 수도 없었다. 그곳은 대나무와 목재로 만들어졌고, 창문 없이 아주 작은 문만 하나 있었다. 소의 배설물이 건물을 칠하는데 사용되어졌다. 내부에는 전갈과 거미가 득실거렸다. 천장으로부터 떨어진 전갈과 거미들은 우리 가족을 물었다. 그곳은 냄새가 안 좋았는데, 특히 비가 오면 더욱 심해졌다. 얼마 지나자 우리는 각각 다른 장소로 일하러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또래 아이들이 있는 그룹에 집어넣었고, 들판에 나가 소를 돌보는 일을 하도록 했다. 매일 나는 소를 지켰고, 밤에 소에게 먹이를 주고 나면 아이들이 자기위해 누워있는 땅바닥으로 갔다. 우리는 지붕도, 벽도, 침대도 없었다. 우리는 땅바닥에서 잠을 잔 것이다. 나는 힘들게 일을 했으나, 주어지는 음식은 너무도 적었다. 우리는 하루에 점심 한 끼만을 먹었다. 옹카르가 주는 식사 배급량은 겨우 한 컵 반 분량이었고, 이것도 두 티스푼 정도의 밥만 있을 뿐 나머지는 다 묽은 국물이었다. 죽에 섞을 소금도 아주 조금 주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소금도 주지 않았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도 서로 먹으려고 다투었다.

풀을 뜯어먹는 소를 지키고 있던 어느 날, 내가 맡은 소 몇 마리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죽은 동물에게서 나는 것 같은 냄새를 맡았다. 내 소들은 그 냄새를 따라 뛰어 갔고, 나는 그 뒤를 쫓았다. 내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소들은 시체의 옷을 핥고 있었다. 몇 마리는 근처에서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것은 방금 죽은 인간의 시신이였다. 당신도 그녀의 검고 긴 머리칼과 손에 들려져 있던 끈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주변을 둘러보니 총에 맞은 사람들은 머리가 완전히 몽개져있었다. 그곳에는 적어도 100구의 시체가 있었다. 이곳이 바로 그들이 사람들일 데려다 죽이는 장소였던 것이다. 나는 소를 다시 데려가지 못하면 벌을 받거나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두려웠다. 휘파람을 불어 소들을 모았고, 서둘러 돌아갔다.

나는 크메르루즈가 데려다 죽인 수많은 죄수들을 보았다. 죄수들은 안대가 채워진 상태로, 등 뒤로 손이 묶여 있었다. 나는 그들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인 줄 알았다. 실제 일이 일어나는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 전까지는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한 곳은 썬더 힐(Thunder Hill)이다. 어느 날 수용소에서 크메르루즈는 모든 아이들을 불러 모임을 소집했다. 우리는 줄 지어 연못과 시내를 건너야 했다.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이 젖었지만 늘 있는 일이라 별로 개의치 않았다. 옹카르는 우리가 도망칠 것을 우려해 한 줄로 걸어가게 했다.

가는 도중에 나는 두 여동생을 보았다. 그들은 다른 수용소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그들도 모임에 끌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막내여동생이 아주 멀리 있어서 서로를 쳐다보려고 애를 썼다. 나는 동생이 어떻게 지내는지 물을 수 없었다. 그저 가만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우리는 줄을 벗어나서는 안됐고, 앞을 똑바로 보고 걸어야만 했다. 나는 걷는 모습으로 동생들을 알아보았다. 둘 다 굉장히 마르고 입을 만한 마땅한 바지도 없어 보였다. 내 여동생은 나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려 했지만, 울음은 옹카르에 의해 금지된 것이었다. 나는 크메르루즈가 동생이 우는 것을 못 보게 하고, 우리가 자매라는 것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기 위해 동생들로부터 고개를 돌렸다.

그 모임은 사원에서 이루어졌다. 크메르루즈는 우리를 모두 줄에 맞춰 앉게 했다. 어린 아이들은 앞줄에 앉았다. 우리는 너무 말라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보였다.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미소 짓지도, 웃지도, 울지도 못했다. 우리의 눈은 너무 건조해 있어서 흘릴 눈물조차 없었다.

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들은 두 죄수를 불러들였다. “누구든 옹카르를 배신하면 처형될 것이다. 우리는 이 인간들이 아주 잘못된 예를 보였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가 알길 원하고, 너희들은 이들과 같지 않기를 바란다.” 크메르루즈의 두 명이 그 죄수들을 내 바로 앞쪽 가운데로 데리고 갔다. 옹카르는 확성기로 말을 했다. 그는 우리더러 앞으로 다가와 옹카르를 배신한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지 똑똑히 보라고 했으며, 죄수들 스스로 자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죄수들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모두 앞으로 나와 앉으라고 했다. “누구든 울거나 이 죄수들에게 동정심을 나타낸다면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옹카르가 말했다.

옹카르는 그 죄수에게 무릎을 꿇게 했다. 죄수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백을 해야 했다. 그는 말을 시작했으나, 고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그는 “신이시여, 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왜 이들이 나에게 이러는 것입니까? 저

는 밤낮으로 일을 했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만족할 정도로 일을 했으니, 당신들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옹카르를 배신할 생각은 해본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전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Arthmel Atsasna.” 캄보디아어로 이는 공산주의가 자국민, 자 문화와 종교 그리고 조상들을 파괴한다는 뜻이다. “당신들은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인다. 이것은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옹카르 한명이 갑자기 뒤에서 이 남자를 때리고 앞으로 밀자, 그는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넘어졌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다. 우리는 빗속에 앉아 있었는데, 그 비는 핏물이 되었다. 삽으로 얻어맞은 그는 의식을 잃었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옹카르는 날카로운 칼을 꺼내 남성의 가슴뼈로부터 배 아랫부분까지를 잘라냈다. 그리고는 그의 장기를 모두 꺼냈다.

이 장면을 보던 나는 너무 놀란 나머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이 죄수를 때린 것처럼 나도 때릴 것만 같았다. 그 죄수의 배를 가른 사람은 날카로운 철사조각으로 간과 대장으로 보이는 부분들을 떼었다. 그들은 철사로 썬 장기들을 핸들에 매단 채 핏물이 만들어내는 흔적을 남기면서 자전거를 타고 사라졌다.

옹카르는 확성기로 담담하게 우리에게 전했다. “너희들 모두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누구라도 방금 죽은 적에게 동정심을 느낀다면, 너희들도 그와 똑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영과 혼은 이미 어딘가로 가버린 상태였다. 그들이 피범벅이 된 장기를 옮기는 걸 나도 봤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인가? 이제는 내 몸과 마음이 그 죄수인 것 같았다.

내 마음속에서 외쳤다.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기억 하지 말자.’ 공기에서는 피 냄새가 났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맑은 빗방울이 피로 변하였다. 처음으로 죽는 것을 본 나는 너무 너무 무섭고 화가 났다. 나 자신에게 “맘소사”라고 중얼거렸다. 내 혼은 나가버렸고, 내 눈은 깜빡거림조차 없었다. 옹카르는 우리에게 줄을 서라고 말했고 우리는 모두 우리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돌아갔을 때, 옹카르는 식사하기 전 또 다른 모임에 참석하라고 명령했다. 나는 슬픔과 분노, 고통스러움을 느꼈지만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강해지라고 말했다. 그들은 죽은 죄수와 같은 길을

가지 말고, 천둥처럼 계속 힘을 내 일을 하라고 우리를 세뇌시켰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 죄수의 얼굴, 그가 했던 말, 그리고 옹카르가 그에게 했던 짓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처사였다.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자국민들에게 한 짓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새벽 3시 30분. 아직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기상 호각 소리가 났고, 나는 일어나 줄을 서야만 했다.

나는 수많은 수용소에 있었는데, 그들은 또 다른 곳으로 나를 옮겼다. 여기서의 내 임무는 벼논에 물을 공급하는 작은 댐을 수리하는 것이었다. 물이 너무 많으면 벼가 죽거나 썩는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는 별을 받고 밥을 굶어야 했다. 이따금씩 나는 댐을 수리할 진흙을 구하기 위해 작은 시내를 파야만 했다. 나는 무척 작았기 때문에, 시내의 바닥에서 진흙을 꺼내오려면 수영을 해야 했다. 그리고 나서 진흙을 들고 다시 헤엄쳐 댐이 있는 곳으로 가야했다.

그 시내에는 거머리가 무척 많았다. 나는 거머리가 너무 무서워 일을 하기가 힘들었다. 옹카르는 더 빨리, 열심히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겠다고 했다. “우리는 네가 쓰레기를 먹거나, 우리가 사람을 때려죽였던 삼을 먹도록 보내버릴 거야. 넌 죽게 되는 거야.” 따라서 나는 가끔 거머리들이 내 살을 물어뜯게 내버려 두었다. 거머리들은 피를 배불리 먹으면 알아서 떨어져나갔다.

밤이 되면 나는 항상 두려웠다. 그들이 자라고 말했을 때도 깨어있었다. 옹카르는 밤에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서 누가 자는지 누가 자지 않는지를 감시했다. 나는 다음이 내 차례가 되지 않을까 두려웠다. 해가 뜨기 전에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거의 쉬지 못한 채로 아침 기상 호각이 울리면, 한숨을 쉬며 “아, 살았구나!”라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일어나 줄을 섰다. 매일 밤이 똑같았다. 날씨가 좋은 밤에는 달과 별이 보였고, 그나마 기분이 조금 나아졌다. 나는 항상 “신이시여, 제발 태양이 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개집도 우리가 살던 곳보다는 나을 것이다. 수풀이 우리의 벽이었고, 우리는 벼단위에서 잠을 잤다. 마로 만들어진 뽕씨 담은 두터운 자루가 우리의 이불이었다. 자루는 냄새가 고약했고, 내 것은 너무나 더럽고 너털너털했다. 우리는 이것들을 세탁 할 수도 없었고, 망가지게 해서도 안 되었다. 그런데 달리 덮을 게 없

지 않은가? 밤이면 나는 자루 속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렸다. 이렇게 하면 무서움도 추위도 조금은 덜 수 있었다. 나는 날씨 때문이 아닌 외로움 때문에 추위를 느꼈다. 마음속에서 추위를 느꼈던 것이다.

매일 밤 크메르루즈 군인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웃으며 술을 마셨고, 재미삼아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죽일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는 가족과 만나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너무나 기뻐하며 우리에게 작별인사를 했다. “나 곧 부모님을 만날 거야. 봐~, 옹카르는 아주 좋은 사람들이야!” 나는 자루에서 몰래 머리를 내밀어 아이들이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몹시 배가 고팠다. 어느 날 밤 나는 아주 작은 달팽이와 달팽이 껍데기를 먹었다. 군인들이 잠자리에 든 후, 나는 몰래 나와 그들이 사용하던 불에 부서진 프라이팬을 이용해 달팽이를 살짝 튀겼다. 위장이 사정없이 뒤틀려서 뭉가를 먹어야만 했다. 친구에게 달팽이를 조금 나누어 주고 난 후, 다시 내 자루로 돌아와 좀 더 먹었다. 쥐 한 마리가 들어와 내 발톱을 먹었다. 나는 너무 깊이 잠들어 느끼지도 못하였다. 그나마 나를 보호해주던 자루도 누군가 훔쳐가 나중엔 아무것도 나에게 남지 않았다.

또 다른 어느 날, 나는 숲속에 사는 오리를 한 마리 보았고, 오리가 사는 곳에는 오리 알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해가 진 후, 나는 오리를 쫓아 강가로 뛰어들었다. 나는 너무나 마르고 약해 나보다 빠른 오리를 놓치고 말았다. 강은 내 가슴팍까지의 깊이였다. 이 안에 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하나를 찾았다! 그 알은 해골의 정중앙에 놓여 있었다. 그 오리 알을 집어 들고는 또 찾아다녔고 세 개를 더 찾았다. 한 개의 알은 치아가 많은 곳 가까이에 걸려 있었다. 아마도 그 죽은 사람이 이 알을 먹으려 했던 것이라 생각했다. 알을 집어 들었다가 다시 제 자리에 놓으며, 나는 죽은 시신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과 해골을 연못의 독에 두었다. 오리 알을 더 찾으러 다녔다. 연못 밑바닥은 마치 목재 조각들과 같은 느낌이었다. 뭉가를 집으려 바닥으로 손을 뻗으면 한 손 가득 하얀 뼈가 잡혔다. 나중에 나는 목욕하기 위해 연못으로 갔고, 오리 알을 먹기 위해 목욕하는 척을 했다.

나는 계속해서 댐을 건설하도록 다른 장소로 보내졌다. 우리는 각자 가로 1미

터, 높이 1미터의 흙을 매일 파야했다. 그런 다음 그 흙을 미끄러운 사다리를 타고 옮겼다. 어느 날 내 뒤에 있던 가장 친한 친구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기 위해 줄 서서 걷고 있었다. 친구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보곤 했다. 가끔씩 친구는 나에게 껌속말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감자 한 알씩을 받았다. 나는 옹카르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주면 드리키 위해 남겨두었다. 내 친구는 조카들을 위해 남겨두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내 친구와 나에게 흰 천을 주고는 담요처럼 몸에 두르게 했다. 우리의 옷은 낡아 찢어졌었다.

어느 날 밤 옹카르는 우리에게 먹음직한 치킨스프를 해주었다. 그 당시에는 옹카르도 그리 나쁜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옹카르가 새로워진 듯하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우리 둘을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에, 내 친구는 그다지 많이 먹지 않았다. 우리는 아이들과 가까이 앉으려고 했지만, 모든 아이들이 우리에게서 물러나 앉았다.

먹자마자 모든 아이들이 바로 잠자리에 들었다. 아마도 스프에 마리화나를 섞은 것 같았다. 우리도 먹고 난 후 돌아가 바닥에서 잠을 잤다. 내 친구는 찢어진 스카프를 가지고 있었다. 나도 찢어진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 버 씨앗이 귀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친구는 도망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나도 도망가거나, 몰래 빠져나가 부모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기 물건을 부모님께 가져다 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날 밤 땅에 구멍을 파 묻어둔 가족사진, 보석, 미국달러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내가 파놓은 구멍이 하나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만일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물건들 잘 맡아줘.” 그녀는 껌속말로 말했고, 울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길 거야. 우린 친구니까.” 친구의 얼굴은 무척이나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족을 돌봐주기로 맹세했다. 친구는 그녀의 찢어지고 더러운 스카프를 집어 들고 내 손목과 그녀의 손목을 묶었다. “잊지마” 그녀는 울었다. 나는 도저히 눈을 뜰 수가 없어 잠이 들었다.

날은 매우 어둡고 비가 왔으며 추웠다. 나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았다. 내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고는 내 손목에 자신의 손목을 묶었던 내 친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몇몇 아이들에게 그녀가

어디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다. 나는 군인들에게 물었다. “내 옆에서 자고 있던 동무를 보았나요?” 한 군인이 대답했다. “당장 꺼져서 쥐 죽은 듯이 잠이나 자” 나는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지만 너무나 떨렸다.

군인들은 굉장히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내가 다음 차례가 될까봐 너무나 무서웠다. 세 남자가 다가와 내 발 앞에 섰다. 그들은 피가 범벅된 더러운 녹색 바지를 내 얼굴에 던졌다. 그리고 나서는 친구의 피가 묻어있는 브래지어와 검은 셔츠를 던졌다. “자, 그 여자아이에 대해 동정심이나 측은함을 느낀다면, 너도 함께 갈 수 있다.” 그들은 술에 취해 내 친구를 강간했다. 마치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나에게 옹카르와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옹카르를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라고 빌었다. 나는 그들 앞에 엎드렸다. “이 계집도 먹여서 살찌운 다음에 그 친구 년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자.”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고는 나에게 말했다. “흠을 먹는 곳으로 널 보내겠다.” 내 친구는 죽었다. 그들은 나에게 그녀의 옷을 입게 했다. 또 다른 장소로 이송되었다.

때로는 웃는 것이 우는 것보다 낫다. 매일 매일이 우리에게서 끔찍한 날이었다. 우리는 항상 걱정하고, 굶주리고, 죽을까봐 두려워했다. 밤이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 이러한 일은 1975년부터 1979년까지 매일 계속되었다. 오늘도 나는 악몽을 꾸다. 그리고 해가 지면 슬퍼진다.

나는 내가 축복받은 존재이며, 운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피난민들을 돕는 곳에서 일을 하고, 내가 겪은 일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나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폴 포트 정권하에서 일어났던 학살과 굶주림 그리고 고문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시기를 견뎌내지 못한 내 자매, 형부, 친구들, 캄보디아 동포들을 생각하면 극심한 비통함과 서글픔을 느낀다. 요즘도 나는 나에게 일어났던 일 때문에, 다시 내가 어둠속에 살게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종종 하게 된다. 비가오거나, 어둠이 다가오면 아직도 내 마음은 포로가 되어 자유로워지기를 간구한다.

이 이야기는 내 자매 시 레이와 형부 쏘우 킴 노브에게 바친다. 또한 사촌 힝티쓰와 그의 가족, 그리고 크메르루즈에게 살해당한 나머지 우리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바친다.

네 살 아이의 눈으로 본 크메르루즈

사라 P. 툰(Sarah P. Tun)

“엄마, 할머니 댁 다 와가요? 나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요.” 나는 1975년 4월 17일, 크메르루즈가 프놈펜을 장악했을 때 엄마에게 물었다. 열두 살에서 열네 살, 검은 옷에 자동차타이어로 만들어진 신발을 시은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두 줄로 맞춰 걸어서 도시를 떠나라고 명령했다. 도시를 떠날 때 우리는 가지고 간 것이 별로 없었다. 먹을 것도 입을 옷도 없었다. 나는 뜨거운 인도를 맨발로 걸었던 기억이 난다. 발에는 물집이 잡혔다. 얼굴에서는 땀방울이 떨어졌다. 나는 부모님께 계속 물었다. “왜 우리는 쉬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걸어야 해요?”

갑자기 총성소리가 들렸다. 아기들은 울음을 터뜨렸고 사람들은 소리쳤다. 나는 한 남자의 머리에서 피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고모의 팔을 잡고 소리를 질렀다. 고모는 모든 것이 괜찮아 질 테니 조용히 있으라고 했다. 좀 더 걸어가자 시체들이 인도에 널려 있었다. 한 군인이 말했다. “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하고 계속 걸어.” 사람들은 목숨을 위해 달렸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다친 사람들을 죽이거나 죽도록 인도에 내버려 두었다.

어스름해져서 우리는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날 밤 묵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는 새벽까지 잠을 잤는데, 그때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들어와 움직이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낮에는 걷고 밤에는 논에서 잠을 자곤 했다. 2주쯤 걸어 다른 마을에 도착했다. 이 때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사라졌다. 어떤 이들은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었다. 다른 이들은 살해당하거나 다른 마을로 강제 이송되었다. 도시에 살던 사람들은 4월 17일 사람들이라 불렸다. 4월 17일 사람들은 혹독한 통치하에 살았다. 시골 사람들은 우리가 마치 사기꾼인 것처럼 쳐다보았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처럼 취급받았다.

크메르루즈 통치하에서 모든 사유재산은 불법이었다. 집에서 밥을 해먹는 것도 금지되었다. 일을 하는 것에서부터 성관계, 가족생활까지 모든 것이 엄격하게 통제되었다.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동부역이라고 불리는 중앙 대강당에서 식사를 같이 해야 했다. 그들은 하루 두 번 우유색의 물이 많은 죽을 주었다.

당시, 우리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있었다. 아버지는 론 놀 정권 당시 군에 소속되었다는 혐의로 감옥에 수감되었다. 어머니와 어린 남동생은 다른 수용소로 보내졌다. 큰 오빠는 또래 아이들이 있는 수용소로 보내졌다. 여동생과 나는 고아원으로 보내졌다. 나는 네 살이었고 여동생은 세 살이었다. 동생과 나는 한 벌의 치마와 블라우스를 입고 있을 뿐이었다. 우리는 2층에 살았는데, 마을에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유령이 나올까봐 너무 무서웠다. 우리는 매우 말랐고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었다. 때로는 곡식을 날 것으로 먹기도 했다.

여동생과 나는 고아원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엄마가 있는 수용소에 달려가곤 했다. 가끔은 잡혀서 벌을 받기도 했다. 그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은 것만도 행운이었다. 그들은 엄마에게 우리가 또 이런 짓을 하면 가족 모두를 몰살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는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약 2년을 이 고아원에서 지냈다.

어느 날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모든 4월 17일 사람들을 트럭에 타게 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말해 주지도 않았다. 몇몇 사람들은 죽으러 가는 것이라 생각하고는 숨죽여 울었다. 그들이 데리고 간 두 번째 수용소는 처음 있던 곳보다 더 열악했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매우 못된 사람들이었다. 가끔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아무 것도 주지 않았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옹카르로부터 음식을 훔치기 시작했다. 나도 종종 벼논으로 가서 고기를 잡곤 했다.

한번은 큰 오빠가 논에서 메기를 몇 마리 잡았는데, 군인들이 오빠를 쫓아갔다. 오빠는 집으로 달려와 바나나 잎 밑에 숨겼다. 군인들은 엄마에게 생선을 들고 이쪽으로 뛰어 들어 온 남자아이를 봤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대답했다. “이쪽으로 아이가 뛰어오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거짓말을 하면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리겠어!” 군인들은 엄마를 위협했다. 군인들이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오빠를 찾아내지 못했다.

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고, 약이 없어 병으로 죽어갔다. 나 역시도 곧 죽음을 맞이할 뻔한 아이였다. 나는 폐렴에 걸렸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나를 병원에 데려다가 그곳에 남겨두는 일 뿐이었다. 병원에는 약도 별로 없었다. 짙은 액체로 된 약이 펄시콜라병에 담겨져 있었다. 간호사 한 분이 나에게 다가와 주사를 놔주었다. 그 간호사는 엄마에게 나를 이곳에 놔두고 가라고 했다. 엄마가 있어봤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날 때, 나는 엄마의 볼에 굴러 떨어지는 눈물방울을 보았다.

간호사들은 나를 다른 여자아이 옆 매트에 눕히고는 한 숨 자라고 했다. 다음 날 내 건강은 극도로 악화되었다. 간호사가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약을 주었는데, 그 약도 도움이 되지를 않았다. 이들이 지나 엄마가 왔다. 엄마는 이미 몇 시간 일을 하고 온 것이었다. 엄마를 보자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는 내 머리를 밀어버리고 목욕을 시킨 다음, 아스피린을 주었다. 그 아스피린은 간호사였던 엄마의 친구로부터 구한 것이었다. 나는 곧 호전되기 시작했다.

1978년 12월 후순, 베트남군이 캄보디아를 쳐들어왔다. 이 때 우리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멀리서 폭탄이 터지고 총성이 들릴 때 나는 논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다. 소리는 수용소에서 점점 더 가까이 들렸다. 소떼가 우르르 달아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피난처로 달렸다. 나는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무슨 일인지 물었다. 부모님도 영문을 몰랐다. 아버지는 가족을 모두 모이게 한 후 냇가로 달려갔다. 냇가는 물이 하나도 없었지만 우리는 다른 가족들과 함께 시내 바닥에 두어 시간을 머물렀다. 총성이 잦아들자 아버지가 공동부역에 음식을 가지러 갔다.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은 이래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었다.

몇 주가 지나서 우리는 프놈펜 쪽으로 조금씩 이동했다. 가는 도중에 도랑과 논에 널 부러진 수많은 시신들을 보았다. 프놈펜에 도착하기 전, 우리는 인도에 누워있던 죽은 남자를 보았다. 그는 검은 옷에, 타이어로 만든 신발,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 그의 오토바이가 바로 옆에 놓여 있었다. 그의 왼쪽 다리는 꺾여 있었고, 허벅지와 머리에서는 피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지나치면서 침을 뱉고 돌을 던졌다. 그는 크메르루즈 군인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남자가 나오는 악몽을 꿴다. 요즘도 가끔씩 이 유형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한다.

막내 동생은 우리가 프놈펜으로 돌아가는 동안에 태어났다. 의사도 간호사도

없고, 약도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가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베트남군이 크메르루즈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시골에 있을 때보다 훨씬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

1979년 11월 15일, 아버지의 친구 분이 태국의 피난민 수용소에 대해 이야기에 주었다. “그곳으로 가라. 거기에는 유엔난민 고등관무관사무소(UHCHR)에서 너희 가족에게 약, 음식, 옷을 줄 것이다.” 아버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할 교통편을 바로 예약하셨다. 처음에는 아버지 혼자 가실 생각이었다. 그래서 10스피드의 낡은 자전거를 준비했는데, 아버지가 프놈펜을 떠나려던 날 밤에 폭풍우가 몰아쳤다. 삼일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고, 거리는 홍수에 잠겼다. 일주일 후, 아버지의 친구가 아버지에게 트럭이 우리가족이 태국 난민수용소로 가는데 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가족은 쌀자루가 가득한 트럭을 타고 갔다. 트럭에서 내린 후, 낮에는 깊은 숲속에 머물러 있고 밤에는 걸었다. 아버지는 산속 우림지역을 통과하기 위해 가이드를 고용해야만 했다.

새벽 1시가 되면 가이드와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이 그의 집 앞에서부터 쪽 줄을 섰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다. 초승달은 서쪽 하늘에 드리워져 있었고 귀뚜라미소리 말고는 매우 조용했다. 우리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어 인도를 지나, 소달구지가 지나간 길, 그리고 논을 지나 정글로 갔다.

난민수용소로 가는 동안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남긴 발자국을 그대로 밟아 따라오라고 했다. 우리는 모퉁이를 조심스럽게 돌았고, 폭발이 있었던 장소에 다다랐다. 나뭇가지에 팔이 대롱대롱 걸려있고, 다리의 일부분이 대나무에 꽂혀 있는 등, 피가 낭자한 모습이었다. 10구 이상의 시체가 길가에 널 부러져 있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쳤다. 지뢰가 곳곳에 널려 있었다. 신체일부가 절단되거나 죽는 것은 크메르루즈 통치를 벗어나 자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이 순간에 매우 끔찍한 일이었다. 지뢰를 제외하고도, 가는 동안 강도, 강간, 살인이 횡행했다. 우리가족은 태국 국경에 다다를 때까지 24시간 내내 숲속을 걸었다. 우리는 크메르루즈에 대한 소름끼치는 기억을 안고 태국 난민수용소에 도착했다.

내 고향의 비극

네이비 (Navy Dy)

나는 1966년 바탐방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일곱남매-여동생 둘, 언니 둘, 오빠 둘-였다. 현재 아버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미국에 살고 있다.

나라의 정권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바탐방 서쪽 뭉(Moung)이라 불리는 시골 마을로 강제로 이동해야 했다. 교통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우리는 걸어가야 했고, 가지고 갈수 있는 물건은 모두 끌고 가야했다. 힘든 여정 중에 우리는 부풀어 오른 시체들을 보았다. 어떤 시체들은 죽은 지 오래된 것이었고 또 어떤 것들은 최근에 죽은 것들이었다. 대부분은 걸어나는 도중에 죽은 사람들이고, 일부는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죽였다. 크메르루즈 군인이 두려웠던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극적인 장면들이 마음을 괴롭게 했다.

5일 동안을 힘겹게 걸어 겨우 옷 보따리 하나 들고 뭉에 도착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내가 본 것이라고는 작은 집 몇 채, 벼 논, 작은 물대는 도랑뿐이었다. 우리는 다른 열 가족과 함께 망고나무 아래에 오래된 옷가지와 플라스틱을 긁어 모아 우리가 살 수용소를 지어야 했다. 나중에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작은 헛간을 지어주셨다. 뭉은 매우 열악한 곳이었다. 강물도 없었고, 작은 웅덩이는 더러운 물로 가득했다. 과수원이나 과수, 심지어는 농지도 없었고 그저 빈 사막에 망고 나무 몇 그루 있는 게 전부였다.

삼백여 가족이 이곳으로 이주했지만 삼분의 일이 질병, 굶주림 그리고 끔찍한 고문에 의해 죽었다. 수용소에 있던 사람 대부분이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크메르루즈의 적으로 여겨졌다. 우리 아버지도 이중 한 명이었다.

뭉에서 산 지 두 달이 지나자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다. 우리 가족들은 모두 최수취급을 받았다. 언니들과 오빠들은 프놈 티페드(Phnom Tippedey) 산에 배정되었다. 아버지는 다른 어딘가로 배정되었는데 그 후로 돌아오지 못했다. 들은 바에 따르면, 아버지는 잔인한 크메르루즈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나머지 셋은 엄마와 함께 지냈다. 어린 두 여동생은 다섯 살, 여섯 살이었고 나는 여덟 살이었다. 우리는 모두 쌀죽 한 그릇을 먹으려 어른들처럼 일을 했다.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엄마가 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논과 밭에서 학살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다. 엄마는 밤에 한 무리의 중국 트럭이 쌀자루를 모두 가져가는 것을 보았다. 공산주의자들은 말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한 식량이 없다.” 우리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조용히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매일 논에서 본다는 해골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힘들게 고된 삶을 산 지 2년 후, 우리는 엄마와 헤어져 여자아이들 그룹으로 가야했다. 나는 열한 살이 되었고, 두 여동생들은 이제 일곱, 여덟 살이 되었다. 우리는 콩 코마(Kong Koma)라고 불리는 어린이 그룹에 머물도록 배정되었다. 우리는 너무 어렸고 엄마와 떨어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웠다.

우리가 머물던 수용소는 숲 속 엄마가 있는 수용소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운 좋게 우리는 같이 살았지만, 작은 나뭇가지와 엄마가 가져온 오래된 옷으로 우리가 살 움막을 지어야 했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우리는 젖은 상태에서 추위에 떨어야 했다.

때때로 우리는 몰래 도망쳐 나와 엄마와 지내다가 새벽 5시에 어린이 그룹으로 다시 돌아갔다. 돌아가지 않으면, 벌은 가혹했다. 매를 맞거나 하루 종일 굶어야 했다. 고문을 기다리며 나무에 묶여 있을 수도 있었다. 만약 상황이 심각해지면, 우리 부모님이 머리에 비닐봉지를 쓴 채 질식사 하게 될 수도 있었다. 그 곳은 굉장히 지저분했기 때문에 머리에 생긴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모두 삭발을 해야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매일 매일 사람들이 죽어 나갔다.

이곳에서 5개월을 지내고 나서 동생들과 내가 너무 심하게 아파 엄마에게 다시 돌아가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동생의 몸은 일부는 부어오르고 일부는 뼈만 남은 상태였다. 머리로 거의 자라지 않았다. 배설물도 대부분이 피였다. 나는 동생이 얼마 살지 못하리란 걸 알고 있었다. 엄마는 야생나무 뿌리를 끊어내서 만든 약을 구했다. 맛이 너무 이상해서 이 약을 먹으면 동생은 구토를 했다. 엄마는 동생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다행히도 몇 주가 지나 동생은 점점 나아졌다.

1979년 초 베트남군이 쳐들어 왔을 때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가족은 다시 만났다.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이후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우리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내 마음속을 맴돈다. 왜 크메르루즈는 우리 모국 캄보디아에서 자국민들을 죽인 것일까? 나는 이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길 원하고, 우리 후대들이 기억하도록 우리가 얼마나 고통 받았는가를 세상에 알리길 소망한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고하게 죽은 캄보디아 사람들의 영혼과 특별히, 가족도 없이, 우리의 애도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바친다.



상처, 고통, 그리고 고난

라샤 두옹(Ratha Duong)

1975년 4월 18일에 크메르루즈는 푸르셋 지방을 장악했다. 1975년 4월 20일 10시, 도시 곳곳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공산당 군인들이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도시를 떠나라고 했다. 부모님은 시골로 가져갈 짐들을 운반하기 위해 달구지를 하나 빌렸다. 총소리가 더 많이 들렸다. 사람들은 뛰고 또 뛰었다. 아이들은 울며 부모를 찾았다. 사람과 짐승의 울음소리가 함께 뒤섞였다.

웅카르는 본격적으로 행동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20가족을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별로 해야 할 일을 부여하였다. 아버지는 벼논을 갈아야 하는 남성그룹에 속하였다. 언니와 나는 이동 소녀 그룹, 오빠는 이동 소년 그룹이었다. 나머지 여동생들과 남동생들은 고아원에 소속되었고, 어머니와 막내 여동생과 남동생만 집에 있었다.

어머니는 우울증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부족 등으로 몸이 많이 아위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가 막내 남동생을 업고 음식을 하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가 요리를 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어머니는 대나무침대에 담요로 몸을 덮은 채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우리 아이들 어디 있어요? 다 데리고 와주세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은 울며 어머니 곁으로 모여 들었다. 어린 막내 남동생은 젖을 먹고 싶어 울었다. 어머니는 아기를 안아 젖을 먹였고, 서럽게 울며 아버지에게 말했다. “여보, 20년 동안 당신과 결혼해서 살았네요. 우리는 참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고, 참 착한 아이들을 가졌어요.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 잘 보살펴 주세요. 이 아이들은 우리 보물이에요.”

“엄마, 그런 말하지 말아요. 반드시 살아서 우리랑 함께 우리를 보살피며 살아야 해요. 우린 엄마가 필요해요!” 나는 울었다.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버지는 놀라셨지만, 곧바로 오빠에게 말했다. “날, 얼른 달려가서 할머니를 모셔 오너라!”

할머니가 오실 때까지 우리는 엄마를 안고 목 놓아 울었다.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자 놀라서 소리쳤다. “무슨 일이나 이게?”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아버지에게 스님을 모셔오라고 말했다.

바깥 하늘은 검은 구름이 가득 뒤덮고 있었고, 별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천둥은 날카로운 번개를 동반했다.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다. 부엉이 한 마리가 지붕에 앉아 울었다. 할머니는 울었고, 어머니와 함께 한 많은 추억들을 이야기 해주었다. 나만 홀로 깨어 어머니 곁을 지켰다. 다른 형제자매들은 눈물이 한 가득 고인 얼굴로 어머니 곁에서 잠이 들었다. 아침 9시, 어머니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다. 갑자기 일어나 앉아 물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물을 떠다 드렸는데, 어머니의 몸이 뒤틀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린 남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다. 할머니가 아기를 안겨주었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다. 어머니의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스님이 도착했다. 스님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는 어머니를 위해 기도했다. 그가 기도를 끝냈을 때 나는 더 이상 어머니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스님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아기를 떼 내었다. 1975년 6월 15일 10시, 스님은 어머니가 죽었음을 선포했다. 어머니는 37세였다. 할머니와 나는 울며 모든 형제자매들을 깨웠다. 그 오두막은 아이들의 울부짖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이러한 현실을 직면하는 것은 나에게도, 아버지에게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도 힘든 일이었다. 언니, 오빠, 동생들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나에게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영원히 오지 못할 곳으로 가셨고 우리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어린 동생을 먹일 우유도 없었다. 고된 일과를 마친 이후에 나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설탕을 구해 쌀죽을 만들어 어린 동생과 아버지에게 드렸다. 아기는 밤낮으로 젖을 달라고 울었고, 몸은 점점 야위어 갔다. 어느 날 밤 자정쯤, 아기가 코를 고는 듯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콧구멍에서 핏방울이 철철 흘러나왔다. 1975년 8월, 생후 5개월 된 어린 남동생이 죽었다.

1976년 10월, 어디를 가나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다. 곳곳에는 시신들이 널려 있었다. 아무도 시체를 땅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가 무척 지독했다. 나는 매우 말라 몸에 있는 뼈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였고, 눈은 얼굴 깊숙이 푹 들어가

있었다. 굶주림 말고도 옹카르는 교사, 학생, 군인, 전직 공무원들을 고문하고 처형하였다. 곳곳에 새로 감옥이 들어섰다. 옹카르는 이동을 통제하고 동네마다 검문을 했다.

벼를 심고 있는 동안 나는 세 명의 군인이 눈을 일구고 있는 남성그룹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군인이 눈에 있는 한 남성을 붙렸다. 나는 너무나 놀랐다. 그 남자는 바로 우리 삼촌이었다. 그 군인은 삼촌의 손을 등 뒤로 묶고 강제로 걸어가게 했다. 삼촌의 얼굴은 창백하고 겁에 질려있었다. 그 군인들은 총으로 삼촌의 머리를 가격했고, 군인들이 삼촌을 밀어젖히자 삼촌의 코와 입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다.

다음날 아침 군인들이 삼촌의 부인과 아이들을 재교육시킨다는 명목으로 잡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 오후 나는 큰고모 집에 들러 삼촌에게 일어난 일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내 앞쪽 가까이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나는 길가에 있던 수풀에 몸을 숨겼다. 큰고모 집에서는 20야드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나는 큰고모네 오두막의 야자수 나뭇잎으로 된 벽을 통해 집안을 볼 수 있었다. 고모는 대나무 바닥에 누워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고모부와 다섯 어린 아이들은 생선기름 램프 불빛 아래에 둘러 앉아 뭔가를 마시고 있었다. 두 명의 군인이 총을 들고 앞문으로 갔고, 세 명의 군인은 뒷문에 있었다. 또 같은 일이 일어났다. 군인들은 큰 고모부를 묶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나는 땀이 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눈을 감았다. 그 군인들은 가족을 한 사람씩 모두 묶어 오두막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달구지에 태운 후 사라졌다.

1976년 11월과 12월 초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아팠고 나 스스로에게 언제 죽을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나는 굶어 죽을까? 아니면 고문을 당해 죽을까? 만일 내가 죽게 되면 더 이상 동물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했다. 그룹 지도자에게 하루를 쉬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녀는 안 된다고 했다. 어쩔 수 없이 눈에 나가 벼를 심었다. 내 다리는 진흙 속에서 있어 약해졌고, 비가 심하게 쏟아져 몸은 부들부들 떨렸다.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고 어지러움을 느낀 후 진흙위에 쓰러졌다. 그룹 지도자가 다른 아이들에게 나를 나무 밑으로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정신이 들었을 때, 몸은 따뜻했고,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나는 이동 소녀그룹에 돌아가는 대신에 이동 성인그룹에 속해 있는 아버지에게로 갔다. 마치 거북이처럼 눈을 지나갔다. 매 100야드 거리마다 도랑에 잠시 앉았다. 어딘가에서 어린 아이가 도움을 구하는 소리가 들렸다. 살짝 일어서 보니 7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공산당 군인에게 맞고 있었다. 나는 군인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다시 앉아 눈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 군인은 나를 지나쳐 갔고, 그 소년의 몸은 온통 피와 상처투성이였다. 처음에는 내 동생인 줄 알았다.

그 군인이 사라지고 난 후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가는 길에 아버지에게 드릴 계를 몇 마리 잡았다. 두 마리의 황소가 근처에서 벼를 먹고 있었다. 옹카르가 이 소들이 벼를 먹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관리를 제대로 못한 사람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나는 소들이 벼를 먹지 못하도록 밀어냈다. 잠시 후 황소 옆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갔더니 그곳에 아버지가 계셨다. 아버지는 진흙탕에 떨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팔과 다리를 당겼지만 힘이 없어 아버지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다행히도 나는 황소를 매고 있던 줄을 잡고 있었다. 황소가 줄을 당기자 나는 진흙 속에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나는 내 크라마에 물을 묻혀 아버지를 씻겨 드렸다. 아버지와 나는 두 마리의 황소를 데리고 아버지의 움막으로 갔고, 나는 계 죽을 만들어 아버지에게 드렸다.

밤새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 동네에서 16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쌀을 지키는 일을 하던 아버지의 옛 제자를 만난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피곤에 지쳐 잠이 드셨다. 내가 아플 때마다 아버지는 나를 돌봐주셨다. 아버지의 옛 제자에게서 쌀을 얻어올 기회가 생겼다. 아침 다섯 시, 아버지가 아직 주무시는 동안, 나는 일어나 쌀을 얻으러 가기로 결정했다. 나는 통행허가서가 없었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갔다.

해가 저서야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동네에 도착했다. 중앙 부엌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다. 나는 죽은 야자수 잎을 밟으며 부엌으로 다가갔다. 한 여성이 크메르루즈 군인들에게 밥을 차려주는 소리가 들렸다. 두 남자가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를 잡아서 그 여성에게 데리고 갔고, 그녀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세웠다. 그 두 남자는 내 팔을 등 뒤로 묶고 군인초소로 데리고 갔다. 날은 어두웠고 하늘에

는 달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빠진 내가 너무나 슬프게 느껴졌다.

군인들은 나를 새장같이 생긴 감옥에 넣었다. 내 옆방에서는 한 소녀가 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렸고, 고약한 피 냄새가 났다. 아침이 되자 그 소녀 말고는 죄수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 소녀에게 울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는 한 여성의 심술궂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소녀에게 줄 쌀죽 한 사발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에게 먹을 수 있게 주는 대신에 그 마녀는 소녀의 머리에 쌀죽을 부었다. 쌀죽은 소녀의 머리를 타고 푹푹 떨어졌고 그 마녀가 웃고 있는 동안 소녀는 혀를 내밀어 쌀죽을 먹으려 애를 썼다. 그러다 갑자기 소녀의 몸이 떨리고 입이 열리며 눈은 나를 보았다. 소녀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울었고, 두 군인이 들어와 소녀의 시신을 치웠다. 그 소녀가 내 고등학교 친구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의 유일한 좋은 친구였다.

한 시간 후, 한 군인이 멀리 떨어진 방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그 방은 어두웠고, 비닐봉지가 가득했다. 벽에서 나는 고약한 피 냄새가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올 쌀을 기다리고 있을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두 남자가 총을 들고 다가왔다. 그들이 나를 헤칠 것을 알았기에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두 명중 한 군인을 알아봤다. 그는 바로 아버지의 옛 제자였던 것이다. 그는 나를 보자 동료 군인에게 이 아이는 죄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버지에게 드릴 쌀을 몇 강통 주었다.

오후가 돼서 나는 아버지의 움막에 도착했다. 그런데 움막 앞에서는 언니만 울고 있었다. 아버지가 어디 갔느냐고 묻자 언니는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말했다. 나는 두려웠고 몸이 너무 떨렸다. 아버지는 쌀을 가지러 간 나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다. 나는 땅을 파 아버지를 묻었다. 내 스카프와 아버지의 스카프를 가지고 아버지의 시신을 썼다. 언니와 오빠는 아버지의 머리 쪽을 들고 나는 아버지의 다리 쪽을 들어 운반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묻고 머리를 숙여 절하고 작별인사를 했다. 1976년 12월 아버지는 43세의 나이로 사망하셨다. 아버지는 여덟 자녀를 남기셨다. 언니와 오빠, 그리고 나는 절망감에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었다. 크메르루즈 공동체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가는 곳마다 나는 부모님과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누렸던 행복을 꿈꾸었다. 우리 가족을 산산 조각 내버린 옹카르에 분노를 느꼈다.

항상 공동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기를 자원했다. 나는 옹카르로부터, 크
메르루즈로부터, 그리고 슬픔으로부터 멀어지기를 늘 갈망했다.



내 어두운 경험

크훈 키브(Khuon Kiv)

나는 1961년 바탐방에서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다섯 명이었고 아버지는 1972년에 돌아가셨다. 누나 한명은 1969년 전쟁이 시작될 때 사라졌지만 1985년에 다시 만났다. 공산주의자들이 1975년 4월 18일 바탐방 지역을 장악했을 때, 우리 가족은 어머니, 누나, 나 이렇게 세 명뿐이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빠져나간 이후 우리 가족은 1.6km 정도 떨어진 마을에 살았다. 나중에 나와 누나는 콩 찰랏(Kong Chalat)이라 부르던 청소년 노동자수용소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다른 마을에 혼자 살아야 했다. 당시 누나는 열아홉 살, 나는 열세 살이었다.

가족과 떨어진 후 나는 무섭고 외로웠으며, 낯선 곳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야 했다. 콩 찰랏 그룹은 더 힘든 노동을 해야 했고, 강인한 정신력을 가져야 했으며 모든 세대들에게 모범이 되는 역할을 해야 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을 댈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벼를 심었다. 내 나이의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고 먹을 음식이 있는 가정에서 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에 쌀죽 한 그릇을 먹으며 열 시간에서 열두 시간을 일하고, 땅바닥에서 잠을 자야 했다.

수용소는 작은 나뭇가지들로 만들어졌다. 내 모기장과 담요는 낡은 옷으로 만든 것이었다. 비가 오면 젖기 일쑤였고, 무척이나 추웠다. 수용소는 밤에 다소 조용한 편이어서, 여우가 짖는 소리나 방울뱀이 움직이는 것 같은 겁나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웅카르라고 불리는 공산주의 군인들이 우리에게 서로를 믿지 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수용소를 지키도록 임무를 받았다. 우리는 서로를 감시해야만 했다. 어느 날 밤, 그 날은 내가 수용소를 지키는 날이었다. 오후 8시 30분쯤이었는데 그림자가 보였다. 수용소에서 1m정도 떨어진 곳에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 몰래 나가 살펴보았다. 열 명에서 열다섯 명의 사람들이 땅을 파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입이 가려진 채로 묶여 있거나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어깨에 절단용 삽을 움기고 있었다.

갑자기 고통스럽게 절규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악! 아악!” 하는 소리가 숲속을 통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것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그는 방금 자신의 아들이나 친척일 수도 있는 젊은 크메르루즈 군인에 의해 삽으로 맞은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살아있는 지옥과도 같은 소리였으며, 우리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무서운 악몽과 같은 소리였다.

잠시 후가 되자 그 소리는 점점 약해지다 결국 끝이 나고 말았다. 나는 너무 무섭고 떨려 내 친구를 깨우러 갔다. 내 친구는 놀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친구의 반응은 나를 더 두렵게 만들었다. 친구가 말했다. “조용히 입 다물지 않으면 다음이 네 차례가 될 거야.”

그 피해자의 피 섞인 절규는 나를 무섭게 했지만 내 친구의 말은 나를 더욱 겁에 질리게 만들었다. 이 목소리들은 평생 나를 괴롭혔다. 몇 달 동안이나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는 점점 사람들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그들은 아프거나 죽거나, 옹카르를 만나러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크메르루즈가 자주 쓰는 말이 있었다. “넌 눈에 필요한 흙이 될 것이다.”

1년이 지나자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곳에 배정이 될 차례가 되었다. 이제 내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나는 잠을 잘 수도, 말할 수도 없었고, 심지어는 매일 배가 고팠음에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다. 아침이 오자, 나를 포함해 수용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얗게 질려 겁먹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고, 다행히 우리는 나무와 고무를 채취하는 일을 해야 하는 앙코르 와트 근처의 정글 어딘가로 배정이 되었다.

그 정글은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다. 그곳에는 독을 가진 벌레, 호랑이, 코끼리 그리고 위험한 뱀도 있었다. 각각 다른 마을에서 온 200여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배정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하거나 병에 걸렸다. 한 달 후 나는 말라리아에 걸려 심하게 앓았다. 약이나 병원, 간호사도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든 해야 했다. 나는 심지어 오래된 야생나무 잎을 갈아 마시기도 했다. 동전을 가지고 몸을 문지르면서 나아지길 바라봤지만 나아

지지는 않았다.

몇 주가 지나자 내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수천가지 다른 이유들로 인해 너무나 두려웠다. 가족도 그리웠다. 결국 옹카르는 다른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나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그 병원은 낡은 건물에 몇 가지 구식약품과 거의 훈련받지 않은 간호사 몇 명, 침대 몇 개가 전부인 곳이었다. 그곳에 도착하자 내가 다시 살게 될지 의문이 들었다. 사실, 나는 한번 죽었다고 생각한다.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내 몸의 일부는 부어오르고, 또 일부는 뼈만 앙상했다. 몇 주 동안은 움직이지도, 먹지도 잠을 잘 수도 없었다.

밀봉된 비닐 백에 들어있는 것이 아닌 펩시 병에 들어있는 정맥주사를 맞았다. 그 정맥주사액은 코코넛 물로 만든 것이었다. 병원은 봄볏을 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들이 시체처럼 앙상하고 부어올랐다. 그들은 내 주변 바닥에 몇 주 동안 누워있었다. 매일 많은 환자들이 죽었고 또 이곳저곳에서 새로운 환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석 달 후, 그곳에는 더 이상 먹을 것, 침대, 약품, 간호사 혹은 의사가 없었지만 나를 포함한 몇 명은 아직 살아있었다. 놀랍게도 사람의 목숨은 아직도 모든 가능성을 능가한다.

이러한 살육의 악몽 이후, 어린 시절 목격했던, 눈에 있던 해골들, 토닐 섯 강 곳곳을 떠다니던 퉁퉁 부어오른 시체들의 기억은 아직도 나를 괴롭힌다. 나는 이 이야기를 모든 무고한 크메르 사람들의 영혼과 특별히, 그 당시 죽은 나의 누나와 어머니에게 바친다. 또한 캄보디아 사람들의 고통과 투쟁이 잊혀 지지 않도록 나의 어린 아들 앤쏘니 비어스나 키브에게도 바친다.

공포가운데서의 생존

젠 L. 리(Gen L. Lee)

1975년 4월 중순의 어느 아침, 아버지는 모터달린 자전거를 타고 바탐방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어머니의 고향으로 갔다. 부모님 사이에 앉은 나는 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이곳저곳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다. 이 날 이전에 누구도 나에게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준 적이 없었다. 7살, 사회의 복잡한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나는 너무 어렸다. 내 삶은 안정되고 모든 것이 풍족했기에 전쟁이나 배고픔이 뭔지도 몰랐다.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고 나자 캄보디아는 갑자기 굶주림, 질병, 고된 노동, 악한 세력이 득실거리는 암흑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었다.

나는 가족으로부터의 분리와 고립의 시작임과 동시에 지옥의 시작인 여자어린이 노동그룹에 보내졌다. 가족과 헤어지고 난 후, 옹카르의 딸로써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후추와 다른 야채에 물을 주기 위해 바탐방의 강에서부터 산비탈까지 물을 실어다 나르는 것이었다.

우리 그룹은 벼를 옮겨 심고 다시 심고, 곡식을 추수했다. 나는 가끔 밭 옆의 벼를 한손 가득 베다가 진흙탕 물로 빠지곤 했다. 몸이 너무 가벼워서 나는 벼의 뿌리가 있는 진흙 속에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댐과 도랑을 만들어야 했다.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린 몸으로 매일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우리 그룹은 항상 옮겨 다니며 끝이 없는 다양한 일을 했다. 나는 물에서 오랜 시간 서 있어야 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절염이 생겼다.

나는 새벽 벨소리가 너무 공포스러웠는데, 이는 벨소리가 울리고 나면 혁명선전노래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 3년 동안 알고 있던 것이라고는 배고픔과 죽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내가 관심 있던 것은 오로지 먹을 것이었고, 가끔은 살고 싶지 않기도 했다.

음식 배급량은 충분하지 않았다. 쌀밥이 제공되는 몇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배급량은 쌀알이 조금 섞여 있는 물 한 그릇이 전부였다. 그래도 아무 것도 주지 않는 것보다는 나왔다. 이것은 마치 고급 요리를 먹는 것처럼 맛있었다. 배고픈 채로 하루 열 시간 이상 일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다. 나는 예전에는 먹지 않았던 동물이나 야생과일, 야채들을 먹었다. 나는 눈에 있는 쥐나 두꺼비를 잡는데는 능숙하지 않았다. 달팽이, 게, 작은 물고기들이 잡기도 쉽고 숨기기도 쉬웠다.

눈을 일구고 나면 달팽이들이 표면에 둥둥 떠 있고, 게들은 그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밖으로 나오게 된다. 게 구멍에 팔을 집어넣을 때마다 뱀이 나를 물지나 않을까 겁이 났다. 뱀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뱀은 훌륭한 영양공급원이자 약이 되었다. 내 손과 위장이 비어있을 때마다 나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포식자처럼 다른 사람들의 식량을 쳐다보았다.

비가 오면 어미닭의 보호와 따스함을 갈구하는 작은 병아리처럼 몸이 떨렸다. 내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고, 가냘픈 몸은 바람이 불면 쉽게 넘어지곤 했다. 한번은 우리 수용소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살았던 마을에 돌아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는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대신 청소년 대표로 하여금 가도록 해야만 했다. 폭우와 바람, 어두움(나는 귀신을 무서워했다) 그리고 피곤에 지친 몸 때문에 별로 내키지 않았다.

그날 저녁 강한 바람에 맞서 걸어가면서 나의 해골 같은 몸은 수도 없이 미끄러져 진흙에 빠졌다. 우기동안은 시원한 날씨가긴 하지만 차가운 바람은 축축한 내 몸의 뼈 속까지 촉게 만들었다. 비가 오면 우리 그룹에서는 불을 지펴 몸을 따듯하게 하고 입고 있는 옷을 말렸다. 우리는 갈아 입을 옷이 없었다. 비가 오건 날씨가 좋건 우리는 일을 했다.

굶주림과 고된 노동이 사망의 주된 이유였다. 수도 없는 다양한 질병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다. 신의 자비와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과 간호가 없었더라면 말라리아가 내 목숨을 앗아갔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어머니는 멀리까지 걸어가 금으로 약을 교환했고, 신에게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예물을 바쳤다. 공포와 순진함 때문에 나는 일을 하다 과로로 거의 죽을 뻔 했다. 땀과 도랑을 만드는 것은 120cm의 강마른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일이었다. 나는

미련하게도 흙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날라야 하는 제일 앞줄에 서있었다. 내가 조금만 영리했다라면 제일 끝줄에 섰을 것이다. 바구니가 끝줄에 도착할 때쯤이면 흙이 떨어져 좀 더 가벼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머니가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휴식시간에 내 야원 몸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오셨다.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고 가슴이 저린 상태로 어머니는 수용소로 돌아갔고,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오겠다고 결심하셨다.

어머니가 속한 그룹의 리더는 옹카르로부터 명령을 받아 수행했지만, 어머니의 친구였고 한 아이의 엄마(그녀의 딸은 우리 그룹의 리더)였다. 그녀는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나는 내 나이에 비해 매우 작았고, 그녀는 어머니에게 어떻게 하면 나를 노동그룹에서 빼내 올수 있는지를 가르쳐주어 실행에 옮겼다. 이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그녀는 만일 내가 허용된 방문시간을 넘겨 수용소로 돌아오지 않으면 옹카르가 젊은 크메르루즈 당원을 보내 나를 데려오게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왔을 때 나는 마치 어머니는 나를 돌려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가기를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게 울며 발버둥을 쳤다. 어른들에 대한 처벌은 아이들보다 훨씬 가혹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머니는 잘못이 없게 된다.

다행히도 우리의 계획은 성공적이었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낼 수 있게 되었다. 이때부터 나는 여동생과 함께 어머니의 그룹을 따라다녔고 아기를 돌보거나 대강당에 야채를 가지고 가는 일 같은 가벼운 일을 하게 되었다. 이때는 1977년 크메르루즈 주도세력 내에서 당원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지던 해 이후였다.

1978년 어느 날, 기적과 같게도, 어머니는 야채나 과일, 다른 작물을 심고 가꾸는 일에 다시 배정되었다. 우리는 농장으로 옮겨가 문이 없는 작은 움막을 지었다. 어머니는 '공동재산'을 훔쳤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이렇게 했다. 물론 어머니는 자신이 기른 것들을 훔치고, 외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모, 외삼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노동그룹에 속해 있던 큰오빠도 종종 어머니에게 식량을 받곤 했다. 거의 1년 동안, 배급받은 빈약한 쌀죽으로 부족한 부분은 어머니가 작은 움막에 숨겨놓은 과일로 보충을 했다.

4년 동안 어머니와 아버지는 국경으로 갔다. 오빠는 또래 나이의 그룹에 있었다.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베트남군이 침공한 이후에 다시 만났다. 베

트남군이 크메르루즈를 숲속으로 쫓아버린 지 몇 주가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가 살던 마을로 돌아갔지만, 추수할 곡식도 없고, 기근이 만연해 있었다. 크메르루즈와 베트남군사이의 싸움도 계속되어 우리는 마을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캄보디아를 떠나게 되었다. 사실 우리가족과 50여명의 친척은 교차사격지에 갇혀, 폭탄과 박격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했고, 간신히 새로운 혼란 속에서 빠져나왔다.

선견지명이 뛰어나고 지혜로웠던 어머니는 둘 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크메르루즈도 베트남군도 믿지 않았다. 어머니는 캄보디아가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되어 다시 번영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베트남 침공이 일어나자마자 우리가족은 친척들과 다른 수천 명의 캄보디아 인들과 함께 태국에 있는 난민수용소로 갔다.

우리는 국경을 세 번이나 넘어야 했다. 처음 넘어려 할 때는 산적에게 강도를 다행했고, 숲속에 버려졌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은 걸어서 태국 국경에 있는 임시 난민수용소에 갔다. 그러나 두 달이 채 못 되어 우리 가족은 캄보디아로 다시 보내졌다. 우리는 당렉(Dangrek)산을 통해서 돌아갔는데 이곳에는 지뢰와 시체들이 45,000명의 추방된 캄보디아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퇴약별 아래 맨발로, 음식도 거의 없이 걷기를 두 달 여, 우리는 결국 우리가 처음 출발했던 국경근처 지역에 도착했다. 이곳은 우리가 다시 태국국경을 넘을 수 있는 곳이었다. 한 정직한 남자가 우리를 안전하게 태국에 있는 오래된 난민 수용소로 안내해 주었고, 우리는 다른 수용소로 가기 전에 이곳에서 이틀을 묵었다.

17년이 지난 요즘, 나는 내가 태어난 고향에 다시 가보고 싶고, 언젠가는, 어떻게든 내 유년 시절을 보냈던 우리나라를 다시 건설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열망한다. 정치적 불안정과 도적떼, 그리고 정부와 크메르루즈군 간의 지속된 싸움 때문에 돌아갈 계획을 늦춰왔다. 내 연구에서나 내 개인적인 생각에, 나는 가끔 왜 크메르루즈 지도자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지 않는지 궁금하다. 얼마나 더 오래 캄보디아 사람들은 현재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잃어버린 과거를 애도해야 하는가? 25년 동안의 전쟁과 배고픔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캄보디아인들은 권력과 개인의 이익, 이데올로기를 위해 캄보디아인과 캄보디아를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할 것이다.

폴 포트

수지 험(Susie Hem)

1975년 나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폴 포트는 프놈펜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로 살던 집에서 나와 가난한 시골 지역으로 이주하게 했다. 폴 포트의 군인들은 삼일 만 가 있으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재산을 다 놔두고 갔다.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폴 포트 정권하에서 4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 물, 옷, 살 곳 등 모두 불편한 상태로 살았다. 우리는 매일 죽을 먹어야 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음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했고, 독이 없는 나뭇잎이나 바나나 나무와 같은 것을 포함해 무엇이든 먹었다. 나는 달팽이, 뱀, 메뚜기, 귀뚜라미, 게 등을 먹었다.

어느 날 밤 어머니와 나는 주방으로 사용되었던 작은 오두막에 음식이 있나 찾으러 몰래 들어갔었다. 거기서 우리는 쌀 한 바구니를 구해 집으로 가져왔다. 어머니는 어머니와 내가 먹기에 충분한 양만 요리를 하고, 나머지는 비닐봉지에 담아 땅에 묻어두었다. 우리는 나중에 먹을 것이 바닥났을 때 쌀이나 고기, 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보석들도 땅에 묻었다.

폴 포트는 모든 이들에게 강제노역을 시켰다. 만일 누군가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죽여 버렸다. 우리는 아침 다섯 시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일을 했다. 하루에 10분씩 두 번 쉬는 것이 전부였다.

우기에는 도랑을 파고 댐을 만들어 물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어떤 사람들은 비료뿌리는 일을 했다. 여자들은 벼를 놓아 자르는 일을 했다. 폴 포트는 5세 이상의 아이들도 모두 일을 하도록 시켰다. 나이 든 할머니들은 집에서 5세 이하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서로 떨어져 다른 곳에 있었다. 어머니는 두 달에 한 번씩 있던 곳에서 몰래 빠져나가 아버지를 만났고, 지금 있는 곳에서 도망쳐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을 의논하곤 했다. 우리는 늘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어디에서든 때리고, 죽이고, 사람들은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비슷한 상황이었다.

매일 밤, 잠을 자고 있으면 총성이 들렸다. 매일 밤 폴 포트 군인들은 중국인, 베트남인 혹은 론 놀의 전직 군인이었다는 혐의로 많은 가족들을 죽였다. 폴 포트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어머니의 친구와 그 가족 모두를 죽이기도 했다.

한번은 어떤 남자가 친구인 한 여성과 나무 아래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폴 포트는 그들에게 연애한다는 혐의를 씌워 끌고 가 심문했다. 그 여성과 남성은 자신들이 친구일 뿐이라고 했지만 폴 포트는 믿지 않았다. 폴 포트는 그들을 마주보게 묶어놓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심문하고 때렸다. 그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는데 아이가 유산되고 숨을 거둘 때까지 매를 맞았다. 그 남성도 맞아 죽었다.

1979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로 쳐들어왔다. 우리는 폴 포트의 독재와 무자비에서 해방이 되었다. 우리는 시소폰(Sisophon)에서 일 년을 살았고 태국으로 도망쳤다. 그러나 아버지가 베트남군에 잡혀 감옥에 수감되었다. 어머니는 보석금을 내어 아버지를 풀려나도록 했고, 두 분은 함께 작은 장사를 시작했다. 우리는 거기서 다시 탈출을 시도하기 전까지 2년 동안 장사를 했다. 1982년, 마침내 우리는 태국으로 갔다. 태국에 도착하자 우리는 다시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94년 2월 4일 나는 캄보디아로 돌아왔다. 나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캄보디아에 도착하자 그곳이 낯설게 느껴졌다. 캄보디아는 무척 더럽고 비위생적이며 습도가 높았다. 길거리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를 타고 곳곳을 돌아다녔다. 어느 쪽으로든 맘대로 돌아다녔다. 가난한 사람들은 길거리와 시장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구걸을 했다. 전기나 수도도 충분치 않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나는 캄보디아에 보다 나은 찾아오기를 소망했다.

비통한 삶

오욱 빌라(Ouk Villa)

1975년 4월 17일, 크메르공화국이 공식적으로 크메르루즈에게 항복을 했고, 캄보디아는 민주 캄푸치아로 다시 명명되었다. 우리가족과 다른 캄보디아 가족들은 고향땅을 떠나 거기서 멀리 떨어진 시골과 있는지조차 몰랐던 다른 시골 지역으로 가야 했다.

새로운 마을에 도착한 첫 날, 우리는 만찬이 차려진 환영식과 더불어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그 당시 나는 아홉 살이었다. 환영식후에 우리는 지붕이 짙은, 짙으로 지은 낡은 오두막에 살도록 배정받았다. 아버지는 오두막을 고치고 벽을 다시 만들었다. 나중에 우리는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 이방인들이라 불렸다. 우리 재산은 결국 공동사용을 위해 모두 압수되었다. 같은 해, 사람들은 이방인과 기존인을 포함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기존인은 나라가 해방되기 이전에 크메르루즈가 통치하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로써 모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유형은 크메르루즈 동지들이었다.

모든 것이 옹카르의 소유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고, 모든 법과 명령은 옹카르의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옹카르는 전국적으로 공동식사를 하는 공동체를 창설하였다.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 할 수 없었고, 옹카르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누가 엿들을까 두려워 껌속말로 말하거나 아무도 없을 때만 말을 했다. 만일 옹카르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는 이 '재교육'을 위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재교육을 무척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 단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유일한 단어였다.

1975년 후반 우리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두 누나들은 멀리 떨어진 이동 청소년 그룹으로 보내졌다. 그들은 밤낮으로 일을 해야 했지만 배불리 먹지도 못하고, 옷은 누더기 같은 것을 입었다. 나는 우리 가족들이 있는 곳에서 1km 떨어

진 어린이 그룹으로 보내졌다. 거기서 나는 거름을 논으로 날라야 했고, 게으르다는 이유로 혹독한 대접을 받았다.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의 보호가 아닌 그룹 리더의 관리 하에 살게 되었다. 우리는 큰 수용소에 기거하면서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여섯 줄로 열을 맞추어 잠을 잤다.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했고,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그룹 리더들이 발로 차거나 끌어냈다. 학교, 화폐, 시장, 책, 우편제도, 종교 등이 모두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했다. 이방인들의 삶은 점점 더 참혹해졌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중세시대의 노예보다 더 처참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고된 노동을 했고 정부에 대한 충성만을 교육받았다. 나중에는 부모님을 '동무'라 부르고 부모님을 감시하는 스파이 노릇을 하라고 교육받았다.

어느 날 밤 나는 일어나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발끝으로 조심스레 걸어, 수용소에서 몰래 기어 내려왔다. 나는 논과 수풀들을 지나 달렸다. 두어 번 넘어져 온 몸에 상처가 났다. 갑자기 나는 세 명의 남자가 묶인 채 민병대에 의해 다른 쪽 작은 수풀가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다. 멀리서 나는 민병대가 커다란 웅덩이 가장자리에 그 남자들을 꿰어앉히는 것을 보았다. 1분 후 그 남자들은 꿩이자루로 죽을 때까지 얻어맞았다. 달빛이 비추고 있던 밤이어서 나는 분명하게 이 장면을 볼 수 있었다. 나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고 그 민병대가 사라지길 기다렸다.

나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황급히 달려갔다. 부모님은 내가 들켜서 그룹 리더들에게 끌려갈까봐 두려워 하셨다. 다음날 아침, 집 앞 창문근처에 앉아 있을 때, 검은 옷에 실크 목도리를 두른 세 명의 그룹 리더가 우리 오두막으로 다가와 말했다. “빌라 동무를 수용소로 데려가겠소.” “아이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공포로 벌벌 떨었고 무서워서, 집에 숨어버렸다. 아버지는 나오라고 말했다. “아이가 우리를 따라 오도록 하시오.” 덩치가 큰 사람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다행히도 나를 묶지 않았지만, 나는 혹독한 대우와 경고를 받았다. 수용소에 있던 아이들이 도망을 가거나 돌아가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묶여서 매를 맞았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은 경우였다.

1976년 초에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떨어져 남자들만

일하는 곳으로 보내진 것이다. 어머니는 수로를 파야 하는 다른 공동농장으로 보내졌다. 나는 산허리에서 가축 돌보는 일을 해야 했다. 내가 속한 그룹은 가축 가까이에서 잠을 자야 했다. 밤에는 이상한 동물 울음소리가 났고, 나무사이로 부는 바람은 나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어느 날 밤엔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소리였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길게 나는 소리였다.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맏소사! 이 소리는 오두막 밑에서 났다. 나는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모든 사람들이 뛰어 나와 무슨 일인 지 물었다. 나는 내가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 이상한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라고 했다. 사람들이 늑대 울음소리라고 했지만, 나는 늑대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 떨면서 앉아 있었고 잠은 완전히 깨버렸다. 며칠이 지나자 나는 이 소리에 익숙해졌고, 다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에는 구워먹기 위해 귀뚜라미와 메뚜기를 찾다가 나는 세 명의 민병대가 여섯 명의 사람들을 구멍이 파인 장소의 가장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사람들은 목덜미를 깡이자루로 맞고 구덩이 속으로 떨어졌지만, 완전히 죽지 않은 상태였다. 피가 흥건한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있을 뿐이었다. 민병대 군인들이 그 커다란 구덩이를 흙으로 매우고 그 위를 약간의 풀로 덮어 버렸다. 만일 그들이 나를 보았다면, 나도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1977년, 아버지를 제외한 어머니와 누나 그리고 나는 마을로 다시 보내졌다.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버지가 재교육을 받으러 갔으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 말은 곧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울며 애도했다. 아버지는 반크메르루즈 단체에 포함되었다는 혐의를 받았고, 아버지가 론 늘 정권 당시 교수였다는 사실을 마을의 대표가 알아내 버린 것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크메르루즈 정부의 적이거나 장애물로 여겨졌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는 항상 감시를 받았고, 만일 그들이 우리가 불평하는 것을 듣거나 불 경우에는 체포되어 죽음을 당했을 것이다. 밤이면 우리는 말을 하거나 밖에 나갈 수 없었다. 우리는 쥐 죽은 듯이 살아야 했다.

1978년 초, 우리가족은 다시 뿔뿔이 흩어졌다. 어머니는 과부그룹에 보내졌고,

누나는 수천 명의 아이들이 말라리아나 기아, 영양실조로 죽은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보내졌다. 아이들은 대부분 효과가 없는 전통적인 식물치료법 정도나 받게 될 뿐이었다.

어느 날 누나들이 이동 그룹에서 돌아왔다. 누나들의 얼굴은 초췌하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피부는 퍼랬다. 누나들은 어머니에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누나들을 안고서 아무 말도 하지 많았지만, 눈물을 흘리셨다. 나는 삶의 비통함이 뭔지는 잘 몰랐지만, 무척이나 슬펐다. 두 누나들은 딱 하루만 우리와 머물 수 있었다. 누나들은 굶주려 있었지만 집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은 옹카르의 소유였다.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새벽이 오기 전 나는 4시경에 일어나 공동부엌에 타피오카를 가지러 갔다. 그곳은 조용했고, 요리사들은 깊게 잠들어있었다. 부엌 구석 근처에 묶은 죽에 섞을 타피오카가 가득 들어 있는 큰 냄비가 세 개 있었다. 나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타피오카를 집어 담요에 싰 다음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내가 잡혔을 까봐 두려워하고 계셨다. “아들아, 잡혔으면 꼼짝없이 죽을 뻔 했잖니.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알았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누나들이 너무 배고파했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을 했던 것이다.

1978년 중반 우리는 동쪽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총성을 피해 대피했다. 그 무렵 우리는 신이 났다. 1978년 후반이 되자 아이들은 집에 돌아가도 좋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두 누나도 돌아왔고 우리는 함께 살게 되었지만, 아버지가 그리워서 슬픈 마음이 다 가시진 않았다.

며칠이 지나 우리는 짐을 싸고 총성을 피해 대피할 준비를 했다. 우리는 마을을 벗어나 큰 산이라는 의미의 프놈톤(Phnom Thom)산으로 갔다. 우리는 밤낮으로 걸어야 했다. 나는 막내 남동생을 등에 업고 걸었다. 누나들은 머리에 낀 옷을 담은 보따리 두 개를 엮고 걸었다. 어머니는 쌀 양동이를 머리에 엮고 걸었다. 그 쌀은 전쟁의 혼란 중에 얻은 것이었다. 우리는 식사 때에만 잠시 멈추어 쉬었다. 밤에는 논에서 잠을 잤다. 밤중에 다시 걷기 시작할 때면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다. 때때로 어머니는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내 팔목과 누나들의

팔목을 묶어 우리를 인도하였다. 나는 잠에 빠진 채로 걸었기 때문에 넘어지기 일쑤였다. 그러면 같은 줄에 묶여 있는 누나들도 같이 넘어졌다.

마침내 우리는 산 중턱에 도착했다. 어느 이른 오후, 우리가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총성이 들려왔다. 우리 주변에서 포탄이 떨어져 폭발하고 있었다. 마치 지옥과 같은 소리였다. 잠시 후, 우리 쪽으로도 폭탄이 던져졌고 총이 발사되었다. 우리는 소리를 질렀고 어머니는 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올렸다. 왜 우리가 폭탄에 맞아야 하지? 저들은 왜 우리에게 총을 쏘지? 저 사람들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왔는가 아니면 죽이기 위해 왔는가? 잠시 후에 우리는 우리가 전쟁의 최전선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총성은 잦아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땅바닥은 시체에서 나온 피로 뒤덮여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죽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 살아 있었다. 희생자들은 고통과 비통함에 쌓인 채 미동 없이 누워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애도 했다. 어떤 이들은 아이를 잃어버려 울거나 소리를 질렀다. 다행히 우리가족은 아무도 죽지 않았다.

우리가족과 다른 사람들은 속히 그곳을 빠져나왔다. 우리는 '헛수고'산이라고 불리는 다른 산에 도착했다. 이 산은 매우 가파르고 높았다. 이 산을 넘으면 태국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무거운 짐까지 함께 가져갈 순 없었다. 어떤 이들은 아이들과 짐을 놔 눈 채로 산에 올라야 했다.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를 힘이 없어 떨어지거나 죽었다. 우리는 베트남군이 두려워 마을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베트남군에게 잡히면 그들은 우리의 목구멍을 따버린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가족과 다른 많은 사람들은 산을 올라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이들 없이 살 수는 없어." 어머니가 말했다.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 만일 죽게 되면, 함께 죽도록 하자꾸나." 그래서 우리는 마을로 돌아갔다.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는 수천 명의 베트남군을 만났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놀랐을 뿐만 아니라 무서워 벌벌 떨었다. 그들은 크메르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매우 친절하고 상냥했다. 또한 우리에게 쌀이며 설탕이며 노란국수로 주었고, 안전하게 마을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마을로 돌아가 보니 매우 조용했고 우리 오두막은 불에 타 없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닭장크기의 움막을 다시 지었다. 한 여성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맨 손

으로 여섯 아이를 데리고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우리는 논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어머니가 감자와 벼를 심는 것을 도와야 했다.

1979년 1월 7일, 프놈펜을 장악했던 크메르루즈 정권이 퇴진했다. 크메르루즈는 수천 명의 과부, 고아, 장애인을 남겼다. 슬픔과 더불어 집단학살 정권에 대한 깊은 증오심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잔인함 등이 우리 가슴 속 깊이 남았다. 희생자들의 고통 섞인 외침은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들은 정의를 요구하고, 크메르루즈 학살자들의 유죄선고를 바란다.

크메르루즈는 절대 자신들의 극악함과 잘못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도 싸우고 죽이고, 도로와 교량을 파괴하고 있다. 이것은 크메르루즈가 또 다시 캄보디아에서 대량학살을 시도할 것임을 보여준다. 절대로 이들로 하여금 다시 정권을 잡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획에 없던 여정

홍 A. 초약(Hong A. Chork)

나는 1968년 캄보디아의 캄푹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아홉 형제자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여러 식구들과 함께 자급자족을 하며 먹고 살던 내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행복한 기억이 많다. 아버지는 농부였고, 아주 솜씨가 좋은 목수였다. 그는 엄한 아버지였고 게으르거나 께를 부리면 매를 때리기도 했지만,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가 막내이고 어머니와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냐 오냐 하시며 나를 키우셨다.

나는 아침에 불을 지펴 밥을 하던 냄새, 벼가 심겨져 있던 논 그리고 아름다운 나무들을 기억한다. 내게는 논에 데리고 다녔던 아끼는 물소 한 마리도 있었다. 참으로 평화롭고 조용한 시절이었다. 나는 정치, 전쟁이나 물질적인 풍요함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시골 소년으로서 나는 무척 행복했다.

그러나 젊은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검은 옷에 총을 들고 마을로 쳐들어 왔을 때 모든 것이 바뀌었다. 나는 여섯 살이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었고 그들을 돌보아 주었다.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 까지도 제공했다. 땅은 공동소유가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온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할 수 없었다. 대신에,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여 식사를 했다. 밤에는 돌아다닐 수 없었다. 전쟁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었던 것이다.

어느 날엔가는 어머니의 얼굴이 심각해 보였다. 어머니는 내가 마을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멀리 떨어진 학교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날 군인들이 큰 트럭에 우리를 태워 데리고 갔던 기억이 난다. 내가 이 날을 절대 잊지 못하는 것이, 군인들 중 한명이 소총으로 내 작은 강아지를 때렸고 그 불쌍한 작은 머리를 박살 내버렸다. 무척 화가 나고 의기소침해진 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군인은 절대 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내 순수함은 이 날로부터 사라졌다. 1993년 미국에서 캄보디아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내 가족(형 한명을 제외하고)과 고향을 거의 20년 동안 보지 못했다!

우리 가족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 '학교'는 실제론 농장이었다. 우리는 그래도 잘 얻어먹었고 넓은 숙소에서 살았다. 나는 매일 논에서 일을 하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잠을 잘 수 있었다. 옹카르는 자신들이 우리와 가족을 돌봐주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리워할 필요가 없다고 세뇌를 시켰다.

시간이 좀 지나, 나는 프놈펜 지도자 학교로 가도록 뽑혔다. 크메르루즈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늘 말해왔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선발된 것이 무척이나 자랑스러웠다. 나는 시골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시의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곳은 큰 빌딩들과 소음으로 가득했다.

학교는 힘들었다. 나는 훈육을 많이 받았다. 우리는 학생복을 입고 매우 긴 사상교육을 받았다. 군인들은 옹카르와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가르쳤다. 옹카르는 훌륭했다. 혁명도 훌륭했다. 우리는 악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옹카르를 돕는 전사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등을 교육받았다.

교육을 받는 동안 우리는 친구사이라 할지라도 싸움등과 같은 나쁜 행동을 했을 때 서로를 일러바쳐야 했다. 다른 아이들이 나를 일러바쳤을 경우에 취해야 할 행동은 바로 일어서서 머리를 걸고 크메르루즈 군인에게 "인정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이렇게 해야 했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사실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단지 묵묵히 복종하는 걸 원했을 뿐이다.

나와 다른 몇 명의 아이들은 몇 가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되지 못했다. 크메르루즈는 학교에서 우리를 내쫓았다. 무척이나 기분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난다. 나는 크메르루즈가 뭘 가르쳤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그저 똑똑하고 뭐든 잘하길 원했다.

그들은 우리를 트럭에 태워 산에 데려다주었는데, 이것은 간단히 말해 '스스로 알아서 살라' 라는 의미였다. 우리를 늙고 병든 사람이 가득한 불모지에 데려다 준 것이다.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었지만, 먹을 음식이나 집이 없었다. 우리가 어디 있는 지도 몰랐고 다른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몰랐다. 그 곳에서는 아픔과 외로움만 있었다. 당시 나는 심하게 아팠고, 내 병세는 몇 달이나 지속되었다. 이것은 내가 겪은 정신적 충격 때문이었다. 나는 가족과

떨어져 먹을 음식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상태였다. 크메르루즈는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았다.

나와 같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산딸기나 나무껍질과 같은 구할 수 있는 음식은 무엇이든 가져다 나에게 먹였다. 열을 내리기 위해 나뭇잎에 물을 적셔 내 이마에 얹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비행기가 산 아래 해안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모두 희망을 잃었다.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했어!” 사람들이 말했다. “우리는 태국으로 가야만 해.” 우리는 어디론가 계속 움직여야 했다.

나는 태국이 어디에 있고 어떤 나라인지도 몰랐다. 그저 크메르루즈 군인과 베트남군을 피해 걷고 또 걸었다. 맨발로 걸어서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다. 신발도 없었다. 때로는 무리와 함께, 때로는 혼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몇 마일을 밤에 움직였다. 항상 가까이에서 총을 발사하는 소리가 들렸다. 군인의 시체를 포함해서 어디를 가나 시체가 보였다.

우리는 종종 크메르루즈를 우연히 만났다. 나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총을 들게 하지 않았지만, 크메르루즈는 군수품(수류탄이었던 것 같음)을 들게 했다. 한번은 베트남군 무리가 따라오고 있을 때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나에게 폭탄 자루를 들게 하고서 나에게서 폭탄을 꺼내어 가곤 했다. 나는 다시 돌아가 좀 더 많은 폭탄을 가져왔다. 내가 미쳤었지.

우리가 태국국경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아주 혼란스러웠다. 태국군인들은 우리가 국경을 넘지 못하게 막았고, 크메르루즈는 진격해 오고 있었다. 놀랍게도, 크메르루즈 군대에 소속되어 있던 형이 보였다. 나는 무섭고 외로워 형과 함께 있고 싶었다. 그러나 형은 나에게 태국으로 가라고 했다. “나랑 같이 있으면 넌 죽게 돼.” 형이 나를 남겨두고 가버리자 나는 서럽게 울었다.

그래서 나는 국경을 몰래 넘을 수 있었고 태국군인들에게 몇 차례 먹을 것을 가져다주었다. 이런 일은 위험했지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했다. 마침내 1979년 쯤 유엔 아니면 적십자가 우리를 태국의 난민 수용소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었다. 나는 잠시 동안 불교스님들과 함께 살았다. 스님들은 나에게 매우 친절했고, 심지어 내가 태국사람처럼 보이도록 머리를 삭발시켜 주기도 했다. 또 나는 태국 어느 가정에서 잠시 지내기도 했다. 이 때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인해 나는 난민수용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였기에 구제 단체에서 나에게 미국이나 프랑스로 가겠느냐고 의사를 물어보았다. 나는 미국을 택했고, 워싱턴 D.C.로 갔다.

몇 개의 위탁가정에서 살아가며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마친 후 오토바이사고로 인한 척추수술을 위해 캄보디아로 돌아갔다. 내 마지막 위탁가정의 어머니는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기도 했는데, 나를 데리고 같이 캄보디아에 갔다. 우리는 크리스마스과 새해사이에 있는 방학 중에 방문을 했다.

캄보디아에 다시 돌아오자 많은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올랐다. 햇별은 나를 따갑게 내리 쬐었다. 캄푹으로 가는 길은 살랑거리는 바람에 휘어지는 야자수 나무로 덮여 있었다. 가까이에는 벼가 심겨진 논이 보이고 저 멀리에는 낮익은 산들이 보였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마음에서 차올랐다. 그리하여 내 고향땅에서 부모님을 다시 만났을 때 우리는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기둥이 있는 오두막에 앉아 내 형제 자매, 두 형과 누나 한 명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다. 다섯 명은 크메르루즈에 의해 죽었다.

크메르루즈 학교에서 쫓겨난 후 나는 내가 깨달았던 것을 상기했다. 나는 시골 출신이라 운이 좋았다. 시골사람들은 기존인들로 구분되었다. 크메르루즈는 우리가 소작농일수록 더 좋은 대우를 했었다. 크메르루즈는 많이 배운 세련된 도시 사람들을 의심하고 미워했다. 비록 20년 동안 가족과 헤어져 있긴 했지만 나는 그래도 덜 고통을 받은 편이다. 크메르루즈가 혼자 알아서 살도록 산으로 데려다 준 후에야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길을 따라 시신과 피, 죽음을 보았다. 또한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들과 나처럼 혼자 지내는 아이들을 보았다. 사실이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내 어린 시절을 잃어버렸다. 다시 이 시간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내가 여섯 살이 되기 전에 누렸던 평화로움을 다시는 느껴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다시는 죽은 누나와 형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

모국

비볼레쓰 보우(Vibolreth Bou)

한 여자가 멀리서 나를 향해 걸어왔다. 나를 지나치기 전 그녀는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춤추는 것을 보러가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살짝 물러나 반쯤 돌아보며 나를 향해 미소 지었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그녀의 까만 머리카락은 마치 천사처럼 바람사이로 하늘거렸다. 마을의 한 노인이 나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에 한 무리의 천사들이 천국에서 내려와 날개를 떼어내고 백합연못에서 목욕을 하고 있었다. 한 남자가 나무 뒤에 숨어 한 천사의 날개를 가져갔고 나머지 천사들은 놀라 얼른 날아가 버렸다. 그 남자와 그 천사는 사랑에 빠졌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

캄보디아는 한때 자부심과 신성함의 나라였다. 시골길을 따라 걸을 때의 풍경은 평온함과 평화로움으로 나를 압도했다. 바람은 마치 바다의 물결처럼 벼가 잘 자란 논을 흔들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백합연못을 둘러싸고 있는 대나무 울타리를 통해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어린 아이였던 나는 열대기후와 장맛비를 무척 좋아했다. 나는 아직도 캄보디아가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에 장악되기 이전의 특별했던 향내와 풍경들을 기억한다. 캄보디아에서 나는 평생 지속되는 지옥을 충분히 경험했다.

크메르루즈 군인(세상 사람들은 공산단체라고 생각하지만 어머니는 이들을 ‘마오쩌둥주의 살인마’라 불렀다)들이 우리를 소환했다. 이 악마들 중 한 명이 우리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는 손과 팔로 몸짓을 하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척 흥분하였다. 그가 한마디 한마디를 내 뱉을 때 마다 목에 있는 혈관이 불거져 나오곤 했다. 그는 모든 문장을 반복해서 말했다. “우리는 마침내 해방이 되었다...거부들과 봉건제도에서 마침내. 우리는 해방과 정의가 있다. 해방과 정의가.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누구도 부자가 될 수 없고, 누구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없다. 우리는 허구적인 믿음을 파괴했다. 신이시여! 신이시여! 와 같은 외침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어머니는 볼과 입술을 따라 눈물을 흘리면서 곧바로 일어났다. 어머니는 그 공산주의 지도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화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어떤 자유입니까? 동지, 당신은 자유가 뭔지 알거나 하시오? 매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해방이고 정의요? 이보시오, 동지, 말해보시오! 당신네는 왕처럼 살고 우리는 노예처럼 살고 있소. 이것이 평등이요? 굶어 죽어가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부들과 무슨 상관이 있소?”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놀랐다. A-47을 들고 검은 파자마를 입은 한 여성이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어머니가 우는 모습도, 불행해 보이는 모습도 이전에는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형들과 나는 어머니가 일터에서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웃이 말하기를 어머니가 멀리 가셨다고 했다.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다.” 이웃은 걱정스레 주위를 살피며 우리에게 속삭였다. 그 이웃이 어머니가 사라진 이야기를 채 마치기도 전에 무장한 사람 두 명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그녀는 얼른 자리를 떠났다.

한 남자가 어머니가 다른 마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어머니는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옹카르는 이러한 사람이 필요했다. 따라서 어머니를 중요한 모임에 보낸 것이었다. “걱정 마라. 너희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단다. 우리 사회는 옹카르를 지원해 줄 너희 어머니 같은 분이 필요하다. 이리로 오너라! 너희들도 모두 다른 마을에 살게 될 것이다.” 한 크메르루즈가 형들을 바라보며 내 어깨를 두드리면서 열정적으로 말을 했다. 무장한 다른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검은 파자마를 입고 가슴에는 탄창 자루를 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무릎까지 진흙자국이 묻어있었다.

두 군인이 나와 세 형들을 마을에서 데리고 가는 동안 나는 기관총이 발사되는 소리를 들었고 물이 흥건한 바닥에 남녀노소의 시신들이 누워있는 것을 보았다. 온 천지가 피투성이였다. 움직임 없는 시신에서도 피가 뿜어져 나왔다. 어머니와 다른 사람들이 팔이 등 뒤로 묶인 채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은 쿵쾅 쿵쾅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을 느끼는 동안 두 무장한 군인이 나타났다. 크

메르루즈 지도자는 다른 두 군인에게 거기 묶여 있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 놈은 경찰, 이 놈은 의사, 그리고 저 녀은 선생이다.” 그는 끝에 앉아 있던 어머니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의사는 그 지도자에게 간청했다. “동무,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소? 난 잘못된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오. 난 그저 의사일 뿐이오.” 그 지도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이, 부르주아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 우리가 정글에 살면서 고통 받고 미군과 미국 꼭두각시 정권과 맞서 싸울 때 넌 어디 있었나? 너는 집에서 폭신한 침대에 여러 마누라를 껴안고 자면서, 프랑스, 일본, 미국의 제국주의에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키려고 분투하던 우리를 조롱했지. 이제 너 따위는 필요 없다. 너를 살려둔다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고, 널 죽인다 해도 잃을 것이 없지.”

모두가 조용했다. 어머니는 결눈질로 방금 도착한 두 명의 크메르루즈 군인 중 한명을 쳐다보았다. “너 속(Sok)이니?” 그 크메르루즈는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그는 어머니의 옛 제자였다. 그러더니 그는 놀라며 마치 아무소리도 듣지 못한 것처럼 얼른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그 지도자가 자신의 소총을 오른쪽 어깨로 들어올렸다. 소총 손잡이가 그의 어깨를 진동시키면서 총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총알이 발사되는 소리는 온 땅을 뒤흔들었다. “뿡! 뿡! 뿡!” 그 의사는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버둥거렸지만 소용없었다.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는 땅으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사람의 형체가 아니었다. 벌어진 그의 머리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왔다. 몇몇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고, 한 여자는 크메르루즈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지옥에 떨어져라. 이 악마들아!”

그 참혹한 사람들의 외침과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동안, 기관총 소리는 마치 천둥소리와 같이 울렸다. 마치 여신이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이슬비가 조용하게 떨어졌다. 번개가 하늘에서 내리쳤다. 땅위의 진흙 덩어리는 피와 뒤엉켜 마치 고름이 흐르는 것처럼 희생자들의 발자국 위로 흘렀다. 마치 강물처럼 많은 양의 피가 흘러내렸다.

내 온 몸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나는 얼른 냉정을 찾고, 어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쳐다보고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다. “신이시여, 울고 있는 제가 아닌, 제가 가엾게 생각하는 저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바로 그때, 총이 발사되는 소리가 들렸다. “뿡! 뿡! 뿡!” 한 크메

르루즈가 땅바닥으로 쓰러졌다. 크메르루즈 지도자는 그의 목이 파열되기도 전에 소리쳤다. “속! 이 배신자.” 나는 오른쪽을 보았다. 아직 살아 있는 크메르루즈 군인 한명이 서서 권총을 들고 그 죽은 남자를 겨누고 있었다. 그는 나의 어머니를 쳐다보았고, 눈물을 삼키며 침울한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날 인간답게 만들어준 유일한 분이예요.”

어머니는 겨우 발을 옮겨 그에게 말을 했다. “이제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느냐?” 그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자유는 우리의 스스로의 뜻으로 싸우고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맞다. 자유는 아무 대가 없이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함께 한다고 기대하지 마라. 그들은 널 자유롭게 하는 대신 널 파괴하고 널 부패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 크메르루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밧줄을 자르고 어머니의 팔을 풀어준 후 용서를 구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의 용기

아란 얀(Arn Yan)

1970년대,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다. 나는 이것을 지금도 똑똑히 기억하며, 영원이 잊지 못할 것이다. 1975년 정부군과 크메르루즈 게릴라군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게 되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어 사람들은 모두 기뻐했다. 사람들은 좀 더 많은 자유와, 해방, 평화를 맛보게 되길 소망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던 소망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아버지는 우리가족이 함께 지내며 더 이상 사람들이 죽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의 정권을 잡은 지 보름이 지나자 아버지는 전직 군인이거나 론 늘 정권의 대령이라는 혐의를 받았다. 아버지는 실제로 마을 마다 다니며 가축을 파는 상인이었다. 크메르루즈는 아버지를 죽이기 전에 아버지를 가지고 게임을 했다. 살인마들은 아버지가 먹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먹게 한 후, 작은 방으로 불러 군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 취조했다. 아버지는 군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들은 아버지를 때리고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으며, 물이 가득 찬 통에 거꾸로 매달아 수차례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심문을 시작한지 삼일이 지나자 스스로를 죽음의 사자라고 부르던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기로 결정했다. 당시 희생자 15명의 얼굴은 어두운 천으로 덮여 있었다. 살인마중 한명이 이 사람들에게 트럭에 올라타라고 명령했다. 모든 이들이 곧 죽게 되리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 살인마들에게 간청하는 것뿐이었다. 살려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그들의 그런 노력은 모두가 헛수고였다.

그들이 킬링필드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살인마들은 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트럭에서 내려 5번 고속도로 커브 근처에 서라고 했다.

그리고 수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계속 수를 세면서 그들에게 눈으로 뛰어 내려가라고 지시했다. 그 살인마들은 각자의 총을 들고 방아쇠를 당겼다. 이렇게 나의 아버지는 생을 마감했다. 아버지는 45세의 나이에 죽음을 당한 것이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과부가 되었다.

아버지가 죽은 지 10일이 지나 어머니는 어떤 군인에게 아버지 소식을 물어보러 갔다. “당신은 우리 남편이 이번 주면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벌써 3주가 지났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 배신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 다음 주면 돌아 올 테니까. 지금 그 놈들은 일하느라 바빠. 네 남편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게 물어보지 마라.” 이 말을 듣고서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눈치 챘다. 당시 나는 일곱 살이었고, 왜 어머니가 먹지도 않고 울기만 하는 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어머니는 미소 띤 얼굴에 눈물을 떨 구시기만 했다.

3주가 지났다.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에게 묻기 시작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손수건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기만 하셨다.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도 따라 울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그 살인자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한 살인자가 나와 어머니에게 묻기 시작했다. “뭐 하러 왔어?” 어머니는 대답했다. “나는 그저 내 남편에 대해 알고 싶을 뿐 이예요. 당신들이 우리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벌써 5주가 지났어요.”

그 남자는 대답했다. “뭐라고? 그건 네 문제도 아니고, 네 남편의 문제도 아니야. 너는 그런 거 알 필요 없어!” 어머니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내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날 보내 주세요.” 그 남자는 주위에서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여기 있지 않은 사람과 관련된 자는 나에게 오라.” 나머지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그곳에는 우리가족을 포함해 50여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

한편 한 살인마는 일어나 직설적으로 말했다. “두 달 전에 옹카르를 도우러 간 그 사람들에게 대해 더 이상 물어보지 마라. 그들이 배신자이고 전직 론 놀 정권의 군인이었다는 걸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그들은 모두 죽으러 간 거다.” 모든

희생자의 가족들은 울며 소리치고 그 우둔한 남자에게 고함을 질렀다. “어떻게 내 남편을 죽일 수가 있어! 그는 군인이 아니었던 말이다. 그저 벼농사를 짓는 농부였어!” 그 크메르루즈 군인이 말했다. “남편에 대해 더 알기 원하는 사람은 내일 밤에 내 사무실로 다시 오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갔지만, 우리가족은 가지 않았다. 우리는 죽을 까 겁이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군인을 다시 찾아간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1975년 6월, 나는 풀을 나르는 일을 배정받았다. 나는 아침 여섯시부터 자정까지 일주일 내내 일을 했다. 우리에게는 점심시간 20분의 쉬는 시간만 주어졌다. 12시 20분부터 저녁 6시까지 또 다시 일을 했다. 6세에서 10세 사이의 모든 아이들도 일을 해야 했다. 크메르루즈는 우리를 나이별로 그룹을 나누었다. 어떤 날은 하루에 14시간을 일하기도 했다. 이것은 나에게 무척 힘든 것이었다.

1975년,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은 첫 해 동안은 우리가 먹을 식량이 충분했다. 그러나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우리는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도 않았으며, 개별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다. 크메르루즈가 직접 먹을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우리는 10명에서 15명씩 그룹을 지어 먹어야 했다. 가끔은 일을 제시간에 끝내지 못해 음식을 배급받지 못했고, 내가 먹을 음식이 그냥 버려지기도 했다. 우리는 큰 솥에 들어있는 한 깡통분량의 쌀과 바나나줄기가 섞인 묽은 죽을 먹었다. 한 깡통분량의 쌀로 100명의 아이들이 먹었고, 우리는 접시에서 곡식 낱알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바나나줄기 뿐이었다. 이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 식사를 하고 나면 우리는 설사, 콜레라, 복통에 시달렸다. 날마다 수백 명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죽어갔는데 바로 이것이 내가 살았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어느 날 나는 심하게 아팠고, 배고파 죽을 것 같았다. 그래서 일하러 가지 않고 아이들 움막에 머물러 있었다. 우리 그룹 리더 한명이 다가와 큰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왜 일 하러 가지 않았어?” 나는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전 도저히 일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인데?” 나는 대답했다. “몸이 너무 아프고 배가 고파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만 봐주세요.” 나는 땅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며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내가 땅에 쓰러질 때까지 나를 때렸다. 나는

몇 시간동안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얼굴과 몸은 피투성이였다. 나는 거의 걸을 수가 없었고,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뼈가 앙상해 졌다. 나는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는 진짜 약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가짜 약이거나 나뭇잎, 뿌리, 줄기로 만든 전통방식의 약뿐이었다. 몇몇 전통 약은 도움이 됐지만 다른 것들은 약효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어떤 약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한 주가 지나자 내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찾아오셨다. 어머니는 무척 놀라셨다. 어머니를 나를 만나러 왔지만, 내가 너무 말라버려서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자 울면서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 이 한 몸 말고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구나.” 어머니는 매일 나를 찾아오셨고, 올 때마다 먹을 것을 조금씩 싸오셨다. 어머니는 오두막 주변 땅에 묻어두었던 다이아몬드, 금, 목걸이, 귀걸이, 팔찌 같은 귀중품들을 약으로 바꿔 오셨다. 어머니는 일을 해야 하는 시간에 몰래 나를 찾아오셨다. 만약 군인들이 알게 되면 어머니는 큰일을 당했을 것이다. 어머니가 가져오신 약을 먹고 난 후 나는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거의 정상으로 회복이 되자 다시 어린이 그룹에 들어가 일을 했다.

1년이 지난 1976년, 나는 벼를 옮겨 심고, 묘판을 꺼내고, 벼단을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지방으로 보내졌다. 이 해가 마을에서 보낸 가장 힘든 시기였다. 사람들은 매일 일하러 가서 눈에서 힘들게 일했지만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의 음식은 먹지 못했다. 그들이 기르는 모든 작물은 중국으로 보내졌다.

가끔 나는 배급을 받지 못했고, 그날은 감자, 파파야, 호박, 수박과 같은 각종 채소와 과일을 훔치러 나가야했다. 이 채소와 과일들은 사람들이 많이 묻혀 있는 얇은 무덤에 심겨져 있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친구와 함께 훔치러 나갔다. 어느 비가 오던 날 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잠이 들자 나는 친구에게 물었다. “나랑 같이 훔치러 갈래?” 그는 대답했다. “싫어! 너 미쳤니?”

그곳은 매우 위험하고 조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 늑대, 뱀, 원숭이,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내가 갔을 때, 그곳에는 이 동물들의 울음소리만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섭고, 내가 잡히면 죽게 된다는 것

을 알았지만, 먹기로 작정했다.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었다. 나는 잡히거나 죽는 것 따위는 겁나지 않았다. 그날 밤 너무 배불리 먹어 걷을 수도, 노동수용소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해가 뜨자 나는 일어나 곧바로 일터로 향했다. 그룹리더 중 한명이 나타나 물었다. “너 어제 밤 어디에 있었어?” 나는 어머니의 집에 갔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를 때리지 않았지만 논에서 24시간 일을 하라는 벌을 주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수용소로 돌아갔지만 운 좋게도 나는 그가 지시한 모든 일을 끝낼 수 있었다.

1977년은 바탐방 사람들에게 끔찍한 한 해였다. 그들은 많은 쌀을 재배했지만, 큰 홍수가 범람해 심어놓은 모든 작물들을 다 망쳐놓았다. 논에는 물, 묘판, 짚단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매일 우리는 먹을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냈다. 쌀도, 야채도 없었다. 카사바, 파파야줄기, 백합 그리고 생선으로 겨우 살아갔다. 1975년, 한 오두막에 살려면 최소한 7명에서 10명의 사람이 있어야 했다. 몇 년이 지나자 작은 집들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한 집에서 최소한 5명의 사람이 죽었고, 어떤 집은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들은 살해당하거나 굶주림, 질병, 약품의 부족으로 죽었다. 병원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들은 대부분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크메르루즈는 의사, 교수, 교사, 변호사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약 천명의 캄보디아인이 우리 마을을 떠났다. 그리고 6천 명 정도가 죽었다. 마을은 너무나 조용했다. 어떤 오두막에는 사람이 모두 죽어버려 그들을 물어줄 사람이 없었다. 마을 전체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했다. 가끔 나는 이상한 냄새가 나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물을 마시기도 했다. 친구나 가까운 친척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먹을 음식을 구해 자기들이라도 살아나가는 것뿐이었다.

1978년 초반에는, 내 사촌이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죽음을 당했다. 아침에 그는 쟁기와 갈퀴로 논을 일구러 나갔다. 그는 논에서 헤엄치고 있는 물고기를 보았고, 쟁기를 내려놓고 고기를 잡아 주머니에 넣었다. 한 크메르루즈 리더가 그의 뒤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다. 그 리더는 내 사촌을 쟁기질 하는 곳에서 끌어낸 다음 말했다. “너는 일하러 왔지 고기를 잡으러 온 게 아니다.” 그 크메르루즈는 사촌이 죽을 때까지 대나무 막대기로 목과 머리를 내리쳤다.

그들이 일하러 보내면, 일을 했다. 그들은 사람을 붙여 항상 감시했다. 그 리더가 내 사촌을 때리기 전에 내 사촌이 말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때리지 말아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당시 나는 눈에 옮겨심기 위해 묘판을 나르고 있었다. 나는 내 사촌이 맞아 죽고 있는지 몰랐다. 그저 다른 사람이겠거니 생각했다. 그 리더가 대나무 막대기로 사촌을 죽인 후에야 내 친구가 와서 속삭였다. “아론, 네 사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나는 모른다고 답했다. “아론, 내가 하는 말에 놀라지마, 알았지?” 그는 크메르루즈가 도랑에 쳐 넣어 때려 죽인 남자가 내 사촌이라고 말했다. “뭐라고? 도랑에 피투성으로 쓰러져 있는 시신이 내 사촌이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래 맞아.”

사촌이 누워있는 눈을 보았을 때 나는 우울해졌고, 그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됐는가를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그를 애도하고, 천국에 가길 기도하며, 신이 가호가 그에게 임하기를 바랄 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이후로 우리가 일하는 매 순간마다 그 살인마들은 우리 뒤에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며 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다른 곳에서 일하고 싶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물어봐야만 했다. 물어보지 않고 가면 큰일이 생겼다. 그들은 감옥에 보내거나 죽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처벌했다. 그들의 사상은 우리의 인권, 동정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 등 어느 것 하나 허용하지 않았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실수를 저질렀을 뿐인데도 살인마들의 손에 넘겨 죽게 만들었다.

크메르루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때로는 사람들의 머리를 물이 가득 들어있는 통에 쳐 박기도 했다. 때로는 손톱을 뽑았다. 어떤 날은 세 개의 구멍을 삼각형 모양으로 파고 머리를 제외한 나머지를 문었다. 그리고 나서 주전자를 사람 머리위에 올리고 죽을 때까지 불을 지폈다. 어떤 경우에는 뚜껑이 있는 솥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불을 지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칼로 사람들의 간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들은 시신들을 문었지만 간과 담낭은 고열에 쓸 전통방식의 약을 만드는데 사용했다. 그들은 종종 그 간을 먹기도 했다. 가끔은 사람들을 매달아 죽이고, 가끔은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웠다. 아기들은 공중으로 던져 총검위로 떨어지게 했다. 어떤 경우에는 아기의 발을 잡고 나뭇가지로 때리기도 했다.

나는 어머니가 나를 너무나 잘 보살펴 주었기 때문에 크메르루즈에게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쌀과 야채를 훔쳤다. 어머니는 내가 무언가를 훔쳤다는 것을 알고는 다시는 하지 말라고 말했다. “나는 늙었고 언젠가는 죽게 될 테지만 내가 죽는 것은 바라지 않는단다.” 어머니가 매일 먹을 것을 훔쳤지만 여전히 먹을 것은 부족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오늘날까지 살아있고, 아버지와 형만을 잃었다. 그러나 나는 영원히 나에게 일어난 이 상상할 수 없고 비극적인 사건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공포로 부터의 탈출

리쓰 미안(Rith Mean)

우리 가족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살아남은 아주 운 좋은 사람들이다. 백만 명이 넘는 캄보디아 사람들은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다. 그들은 굶주림으로 고통 받고, 고문이나 처형을 당해 죽었다.

1975년 4월 17일, 캄보디아의 새해 첫 날, 프놈펜을 폴 포트와 크메르루즈가 장악했다. 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 동포들에게 도시에서 나가 시골로 가라고 명령했다. 이 고통스런 시련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노동 수용소로 끌려가 거의 4년 여 동안 일을 해야 했다.

1975년 4월 17일, 우리 가족이 파일린에 살고 있던 것은 아주 행운이었다. 이 도시는 태국-캄보디아 국경에서 겨우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였다. 프놈펜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은 천천히 전해졌지만, 우리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국경 경비대에서 일했고, 프놈펜에 있는 정부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캄보디아에서는 흔한 아주 큰 대가족이었다. 아버지 피안 미안, 당시 임신 중이던 어머니 반 미안, 네 명의 남자형제 라씨, 소피아나리쓰(나), 소피아나라, 소피아나로, 세 명의 여자형제 반싸비, 소피어, 프레악디가 있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친구들과 나가서 놀고 있었다. 무슨 이유에선지 나는 집에 가야겠다고 느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가족이 태국 국경으로 떠나기 위해 지프차에 타고 있었다. 식구들은 나를 찾지 못해 그날 밤 나를 데리러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다. 크메르루즈가 진격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못했다. 다행히도 나는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는 모두 태국으로 향했다.

그런데 내가 너무 늦었다. 크메르루즈가 우리를 앞서가 길을 막아버렸다. 나는 아홉 살이었는데, 그 군인들은 나와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 보이는 어린 소년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 차 있고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가득했다. 그 크메르루즈 소년들 중에 어른이 한 명 있었다.

그 남자는 아버지가 예전에 국경부근을 순찰 하고 있을 때 만난 적이 있어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도 어렸기 때문에 우리가족이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우리가 무사히 태국에 도착하기를 바랐다. 아버지는 당시 심하게 아픈 상태였다.

그 남자는 어린 크메르루즈 군인들을 설득해 우리 가족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귀중품들을 뇌물로 바쳐야 했다. 급하게 파일린을 떠나오느라 크메르루즈에게 건네 준 약간의 금과 보석만을 챙겨왔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거기에 남겨져 있었다.

캄보디아와 태국사이를 흐르고 있는 강 위로는 낮은 다리가 하나 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저쪽 반대편으로 간다는 것은 절망에서의 구원을 의미했다. 나는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우리 지프차로 발사되던 총성이 아직도 들린다. 크메르루즈가 우리가 불쌍해서 통과시켜 준 것인지 그저 우리를 조롱하려고 그렇게 한 것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안전하게 태국에 도착했다.

태국에 와서 우리는 카오이당 수용소에서 지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다. 우리는 잘 곳과 먹을 것, 입을 것 등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우리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태국 경비대는 우리에게 배급되어야 할 식량들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 이제 태국에서 더 이상 우리를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며, 슬슬 우리에게 짜증이 나고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길거리에서 음식을 만들어 팔았다. 남동생들과 나는 옥수수 밭에 일하러 다녔다. 우리가 하는 일은 옥수수숙대에서 낱알을 손으로 제거하는 일이었다.

큰형 라씨는 수용소에서 아주 적극적인 사람들 중에 한명이었다. 형은 태국경비대에서 식량을 빼돌린다는 것을 알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위를 했다. 시위 도중 태국경비대는 캄보디아인들에게 총을 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

동생 소피아나라도 이 날 총에 머리를 맞고 죽었다. 우리 가족은 절망에 빠졌다. 미국으로 떠나기로 한 날이 며칠 남지 않은 때였다. 왜 하필이면 내 동생인가? 8살에 세상을 볼 기회도 아직 없었던 아이였다. 우리는 동생을 화장시킨 재를 태국의 한 교회에 놔두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우리가 난민수용소에 있는 동안 많은 선교사들이 다녀갔고 이에 영향을 받은

라씨는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의 믿음과 선교사들과의 인맥으로 우리 가족은 기독교인 부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1975년 11월 29일, 우리에게 필요한 문서들이 갖춰지고 우리는 미국으로 가는 길에 올랐다.

우리는 태국 방콕에서 미군 비행기를 탔다. 많은 나라들 위로 지나갔지만, 알래스카의 위를 가던 것이 기억이 난다. 아주 추워 보이는 광경에, 우리는 처음으로 눈을 보았던 것이다. 우리는 포트 차피 난민수용소에 도착해 약 2주간 그곳에 머물렀다. 우리가 드디어 미국에 도착한 것이다!

1975년 12월 12일 우리는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집을 지었다. 아버지는 1981년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하였다. 이제 우리 가족은 여덟 명이다.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킬링필드를 경험하지 않고 나올 수 있었다. 가끔 삶이 힘들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 당시에 내가 파일린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는 그 때를 떠올린다. 그 날 내가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면, 나에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부엉이 울 때

찬리씨 힘(Chanrithy Him)

내가 11살 때 살았던 노동자수용소에서 나는 질퍽한 눈에 벼를 심었다. 어느 날 진흙 속에 묻혀있던 나뭇가지를 밟아 살이 베였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으으! 살이 베였어! 너무 아파!” 나는 다른 사람이 밟지 않도록 그 나뭇가지를 집어 마른 땅으로 가져갔다. 통증을 느껴 발을 보니 피가 나고 있었다. 발에서 흑갈색 진흙을 털어내자 피가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울고 싶었지만 크메르루즈가 무서웠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상처를 보고나서 감염이 될까봐 진흙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가 싫었다. 그러나 나는 고발당하거나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여자들과 아이들과 함께 진흙 속에서 벼를 심어야만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내 발은 점차 감염이 되었다. 숲을 지나 논으로 갔다가 다시 움막으로 돌아오는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에 매일 매일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 또한 뜨거운 물로 상처를 씻어내는 것 말고는 적절한 약품도 없었다. 감염으로 인해 내가 죽을 것만 같았다.

어머니는 크메르루즈를 위해 매일 일하러 가야 했고, 집에 돌아오면 나를 포함한 자녀들을 돌봐야 해서 늘 피곤해 하셨다. 어머니는 내 상처를 씻어낼 물을 만들 약초를 찾으려 갈 시간이 없었다. 왼쪽 발이 가려웠고 통증이 심했다. 잠을 잘 때면 발을 대나무에 얹고 잤다. 상처주위가 후끈 거렸고, 온 몸에서 열이 났다. 발에서 팔목까지 통증이 느껴졌다. 마치 무언가가 나를 심하게 꼬집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매일 밤 통증을 견디기가 힘들어 나는 발과 손을 대나무바닥에 계속 부딪쳤다. 벽에 있는 야자수 잎을 뜯어냈다. 극심한 통증을 잊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며 잠을 청했지만 통증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조용한 밤이면 나는 격렬하게 소리치며 울었다. 오두막이 모두 다닥다닥 붙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내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

도가 되면, 어머니는 불렀다. “엄마,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끔 어머니는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상처부위를 부드럽게 긁어 주었다. 잠시 동안은 잠이 들었다가, 다시 통증 때문에 깨어나곤 했다. 1주에서 2주간 나는 거의 매일 밤 울었다. 내 우는 소리 때문에 자주 자다 일어나야 해서 어머니도 점점 아프기 시작했다. 나는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계속 어머니를 깨워 상처부위를 긁어달라고 했다. 어머니는 자주 내게 와서 나를 도와주었지만 너무 피곤한 날에는 다시 잠을 주무셔야 했다.

우리 오두막 뒤에는 늙은 할머니가 한 분 살고 계셨다. 어느 날 밤 그 할머니가 어머니를 깨우며 말했다. “애가 밤새도록 우는데 딸을 좀 돌보지 그래요?” 어머니는 화를 내며 말했다. “딸을 돌보긴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스스로 그 약초를 구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걷을 수가 없어서 마을에서부터 망고 나무가 있는 작은 숲을 지나 사람들을 물어둔 곳으로 기어갔다. 근처에 소달구지가 다니는 작은 길이 있었다. 나는 그 길을 기어 구아바와 대나무 숲을 지나 상처를 치료할 약초를 찾았다.

유카발에 다다를 때까지 거의 한 시간을 기었다. 약초를 찾아 기어 다니다 가시덤불 너머로 제법 큰 것들이 보였다. 가시 때문에 그것을 따기가 힘들어서 덤불사이의 작은 구멍을 통해 논으로 기어갔다.

약초를 따고 있는 동안 키가 큰 한 남자가 내 뒤에 나타났다. 그는 검은 옷을 입고 휘어진 긴 칼을 들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동무, 뭐하는 거야? 훔치고 있는 거냐?” “아닙니다. 훔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약초를 따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조용하게 대답했다. 너무 무서웠다. 그는 나를 잡고 나무근처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나는 간청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나를 계속 끌고 가 유카발 나무 근처로 밀었다. 나는 그에게 울면서 훔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내 목에 있던 오래되고 낡은 스카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때 쏟아진 약초들을 그도 보았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왜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그는 내 팔을 등 뒤로 해서 팔목부터 팔꿈치까지 단단히 묶고는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 밧줄을 나무에 묶었다.

그가 말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널 죽일 것이다.” 나는 그에게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제발, 죽이지 말아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전 흠치지 않았어요. 그저 부어오른 발을 치료할 약초를 따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에요.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나는 공포에 질려 엉엉 울었다. “거짓말 하지마!” 검은 옷을 입은 그가 강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하는 말 믿을 수가 없다. 널 죽일 거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는 조용히 울었다. “절 못 믿으시겠다면, 염증에 부어오른 제 상처를 좀 보세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너무 아파서 이 약초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제발 한번만 봐주세요. 살려주세요.”

그에게 애원하는 동안, 나는 그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게 큰 절을 할 수 있는 자세로 있었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나무에 묶여 있었다. 내 간청은 그 남자에게 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뒤쪽에 있는 나무숲으로 사라졌다. 그는 길고 날카로운 칼을 그의 오른쪽 어깨에 메고 나타났다. 그는 소리쳤다. “아침 해가 뜨면 사람들이 일터에서 숲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때 너를 볼 수 있도록 네 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네가 한 못된 짓을 따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는 마른 나뭇잎 위로 걸어가는 그의 발자국소리를 들었다.

나는 땅바닥에 있는 약초를 보면서 이 사소한 일이 나를 이렇게 큰 문제에 빠뜨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왜 그는 내가 흠쳤다고 생각하는 지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생겼다. 또 내가 지나온 덤불속 구멍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 덤불을 만들 때 가시를 좀 더 많이 사용했더라면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자 점점 더 무서워졌다. 나는 목 놓아 엉엉 울었다. 시간이 지나 내 흐느낌이 잦아들 때까지 많은 눈물을 흘렸다. 심신이 지치고 너무 짝 묶여 있었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은 할 수도 없었다.

늦은 오후가 되자 나무위에서 새소리가 들렸다. 부엉이 소리 인 것 같아 또 눈물이 났다. 캄보디아에서는 부엉이가 울 때 한 사람의 생명을 거두어 간다고 믿는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리자 나는 생각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해가 뜨면 부엉이가 울 것이고, 그 남자가 나를 죽인 후 내 생명을 거두어 가겠지?

두 다리로 무릎을 꿇고 있었기 때문에 왼쪽 발과 다리에 통증이 심해졌다. 나는 상처에 가해지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오른 쪽 발로 몸을 지탱하려고 노력했

다. 나는 곧 죽을 것이다. 나는 계속 생각했다. 그리고 울면서 어머니를 떠올렸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이 남자가 나를 죽이면 어머니가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알지? 사람들이 내 죽은 시신을 보고 어머니에게 이야기 할 수도 있겠지. 아마도 크메르루즈가 내 시신을 멀리 버려서 어머니가 나에게 일어난 일을 모를 수도 있어.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른 채 어떻게 견뎌내실까? 어머니가 나를 돌봐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다고 자책하실까?

나는 나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 절망감에 울고 또 울었다. 바람이 내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해 주었으면 하고 바랐다. 나 큰일 났어요. 그러면 최소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실 테니까.

나는 너무나 슬펐다. 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상상했다. 캄마른 불을 타고 눈물이 하염없이 밀려와 입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생각했다.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됐어.

나는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묶여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숲을 제거하는 일을 하다 집으로 가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들에게 내가 나무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무척 부끄럽고 당황스러울 것이다. 나는 이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도 못한 채 어머니에게 내가 도둑질했다고 말할까봐 걱정이 되었다. 동시에 곧 죽게 될 내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남자가 크고 긴 칼을 공중으로 들어 내 목을 내리치는 상상을 했다. 나는 울고 또 울었다. 눈을 감고 머리를 떨 군 채 물었다. 힘없고 살려고 발버둥치는 나 같은 어린아이에게 왜 이토록 심하게 대하는 걸까?

태양이 내 뒤로 떨어지고 날이 어두워지자 때가 드디어 왔구나 생각했다. 나는 신에게 아버지와 큰 언니의 영혼이 내가 죽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또 다시 그 남자가 나를 죽이러 오는 상상을 했다. 그의 재빠른 발자국이 내 뒤에서 울려 퍼지고 내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그는 나를 죽일 것이다. 나는 몸이 덜덜 떨리고 겁에 질렸다. 입은 바싹 마르고 얼굴과 목은 하루 종일 울어 끈적끈적했다. 또한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서 결국에는 울음소리조차 가늘어졌다.

갑자기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나는 마지막 눈물을 흘렸다. 나는 겁에 질려 떨었다. 땅바닥을 쳐다보며 눈을 감아버렸다. 소리를 질러야 할지 입술을 깨

물어야 할지 모른 채 순간적인 통증을 참아내려고 몸을 팽팽하게 당겼다. 그가 다가왔을 때 나는 죽을 죽비를 마쳤다.

갑자기 내 등 뒤에서 밧줄이 잘리는 소리가 나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곧 내 묶여 있던 팔이 자유롭게 움직였고, 나무줄기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바로 눈을 떠 내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고는 뒤를 돌아보았다. 검은 옷을 입은 그 남자가 말했다. “동무, 이제 널 풀어 줄 테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는 감각을 잃은 내 팔목의 거친 끈도 풀어주었다. 눈물이 고인 채, 나는 너무 무한한 행복감을 느꼈고, 내 몸에서 놀라운 힘이 샘솟았다. 나는 낡은 내 스카프를 집어 목에 감고 그 약초들은 땅바닥에 내버려두었다. 일어나 걸으려고 해보았지만 쉽지 않았다. 살았다는 기쁨에 너무 취한 나머지 내가 걸을 수 없다는 걸 잊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있는 힘껏 그 덩불의 구멍을 통과했다.

숲에서 새들이 지저귀었다. 마치 내가 풀려난 것을 축하하는 것 같았다. 나는 깊게 패인 소가 지나간 길을 어렵사리 내려갔다가 다시 천천히 반대편으로 올라갔다. 독을 따라 심겨진 식물을 잡고 올라섰다. 기어가고 있는 동안 내가 풀려났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마치 꿈만 같았다. 동시에 그 남자의 목소리와 그가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다. “동무, 이제 널 풀어 줄 테니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우리가 살던 동네 오두막을 향해 나무 덩불을 기어 지나가면서 가슴에는 내가 살았다는 기쁨이 가득했다. 점점 가까워지자 동네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가 우리 오두막에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마치 무척 그리워하던 친구를 만난 것 같았다. “아, 우리 오두막, 아, 우리 집” 나는 울었다.

나는 왼쪽 발을 땅바닥에 질질 끌며 기어서 오두막으로 갔다. 안에 계신 사랑하는 엄마를 보자 나는 너무 행복했다. 불가능해 보였던 상황이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그 남자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했는가를 이야기 했다.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나는 같이 따라 올라, 어머니는 스카프를 집어 내 눈물을 닦아 주셨다.

“어머니, 다시는 못 보는 줄 알았어요...” 나는 계속 울었다. 어머니는 내 머리

를 쓰다듬었다. “운이 좋았다 애야. 네가 죽지 않아서 얼마나 기쁘지 몰라.” 눈물이 가득 고인 어머니의 눈은 슬픈 모습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를 보내지 않겠다는 것처럼 나를 꼭 껴안았다.



어린 시절의 끝

세쓰 K. 텡(Seath K.Teng)

“나를 따라 오너라. 다른 애들이랑 놀 수 있게 마을로 널 데려다 주마. 그리고 밤이 되기 전에 누가 와서 널 다시 어머니에게 데려다줄 것이다.” 이 현혹하는 말이 거의 3년 동안의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겨우 세상을 알아가고 세상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될 무렵 나는 삶에서 가장 증오스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 내 나이 네 살에 나는 내 평범한 어린 시절을 도난당했다. 나는 가족과 떨어져 크메르루즈의 잔인함과 증오를 직면해야 했다.

우리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각자 다른 장소에서 일을 했다. 1975년 말까지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수박농장에서 잡초를 뽑고 있을 때, 우리는 두 명의 크메르루즈 군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누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누나와 같이 있고 싶었고, 누나와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군인들은 우리를 둘 다 데려 갔다. 그들은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다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었다.

우리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이미 내 또래의 아이들이 많이 있었다. 나는 할머니와 고모를 보았고 그들에게 달려갔지만 한 군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나를 끌어당겼다. 나는 울면서 할머니와 고모에게 나를 데려가 달라고 두 손을 뻗어보았지만 그들은 오지 않았다. 거절당했다는 느낌이 마음속에서 강하게 일어났다. 할머니와 고모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머니뿐이었고 어머니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에 더 서럽게 울었다. 그래도 누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군인들이 누나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기 전까지 누나는 나의 유일한 안식처였다.

크메르루즈가 아이들을 모두 소집한 후, 그들은 야자수 잎으로 지붕을 엮고 나무로 만든 기다란 오두막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중간에는 오픈된 공간이 있어

모든 모임이 그곳에서 열렸다. 우리는 사각모양의 공간에 앉아 시끄러운 인터콤리를 들었다. 크메르루즈는 부모는 우리를 부양해주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지도 의지하지도 말라고 했다. 또한 새로운 리더들을 사랑하고 우리나라가 번영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다. 만일 그들이 시킨 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별로 심하게 맞았다. 모임이 끝나면 그들은 우리에게 환호를 하게 했고, 우리는 새로운 정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부를 위해 열심히 일한 다를 반복하게 했다.

그런 다음 그 긴 숙소에서 줄 맞춰 잠을 자도록 했다. 한곳에 아이들이 두 줄씩 서로의 발을 맞대고 잠을 잤다. 우리는 이불이나 요, 베개도 없이 대나무 바닥에서 잤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우리 위 그물 침대에서 잠을 잤다.

이른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그들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일어나 줄을 서 일하러 가라고 했다. 우리는 무척 피곤한 상태여서 어떤 아이들은 제 시간에 일어나지 못했다. 만일 일어나지 않으면 발을 잡아당기고 다시 늦으면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매일 아침이면 우리는 해가 뜨기도 전에 빈속으로 일하러 가야 했다. 우리는 해야 할 일에 따라 다양한 작업을 했다.

내 기억으로는 논에서 하는 일이 가장 많았다. 우리는 많은 벼를 재배했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 적었다. 계절에 따라 하는 일도 달라졌다. 벼를 심는 일은 어른들이 했다. 어른들이 벼를 떨어뜨리면 우리는 다시 주워 어른들이 심을 수 있도록 가져다 줘야 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우리는 진흙물 속에 있어야 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진흙 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이때가 처음으로 식사를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옷이 한 벌 밖에 없었기 때문에 옷이 마르던 젖던 간에 그냥 입고 자야했다.

추수 때가 되면 우리는 어른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벼단을 줍는 일을 했다. 이때는 논이 건조하고 벼의 뿌리에 맨발이 베여 일 년 중 가장 힘든 시기였다. 신체적인 아픔은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배고픔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우리의 식단은 매일 소금과 죽 뿐이었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하루에 두 끼만 주었고, 4명당 한 사발씩 주었다. 찰스 다윈이 말했던 것처럼,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었다. 누구든 빨리 먹는 사람이 임자였다. 수저도 주지 않아 우리는 손으로 먹어야 했다.

논에서 일하는 것 외에도 아이들은 야채농장에서 잡초를 뽑았다. 때때로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다리를 건설하는데 쓸 돌을 구하러 우리를 산에 데리고 가기도 했다. 우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매를 맞거나 밥을 굶어야 했다.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는 수밖에 없었다. 만일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날은 하루 한 끼, 물을 더 섞은 죽만 먹을 수 있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공짜로 먹여주는 건 행운인 줄 알라고 했다.

우리는 쉬지도 못한 채 일주일에 7일을 일했다.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기 위해 누군가를 죽일 때만 유일하게 일을 중단하게 했다. 18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그 죽음들 중 한 가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가끔은 이에 대한 악몽을 꾸기도 한다. 어느 날 우리는 야채농장에서 잡초를 뽑고 있었다. 일을 하던 중에 호루라기소리가 들렸고, 군인들이 일을 멈추라고 했다. 우리에게 배신자를 처벌하는 모습을 보러 모임에 가야 한다고 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맨 앞줄에 앉도록 했다.

모임장소의 중간에 손이 등 뒤로 묶인 한 여성이 있었다. 그녀는 임신한 상태에서 배가 볼록했다. 그녀의 뒤에는 여섯 살쯤으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도끼를 들고 서 있었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그 아이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지켜보라고 소리쳤다. 만일 쳐다보지 않으면, 다음 순서로 죽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날은 그 여성 하나만 죽었기 때문에 다들 잘 쳐다보았던 것 같다. 그 어린 아이는 지옥에서 온 악마 같았다. 빨건 눈에 전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도끼의 뒤쪽을 이용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그 불쌍한 여성을 내리쳤다. 힘이 빠져 때릴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여성을 때렸다.

우리는 크메르루즈 정권을 제외하고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말라고 배웠다. 만일 부모님과 포옹하거나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발각되면, 우리는 매를 맞았다. 나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았다. 당시 나는 어린이 수용소에 있었고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참여했던 모든 모임을 통해 완전히 세뇌교육이 되었던 것이다.

그곳에서는 아이들이 도망을 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은 잡혀서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모임이 열렸고, 군인들 중 한명은 도망자들을 묶었다. 그리고 나서 크메르루즈는 한 아이를 지목했다. 누구

든 지목된 아이는 때리는 역할을 해야 했다. 만일 우리가 참여하지 않거나 심하게 때리지 않으면 그 다음 대상이 되어 매를 맞았다. 내가 매를 맞지 않으려면 우리는 과격하게 때려야 했다. 다 때리고 나면 크메르루즈는 다시 일에 투입시키기 전까지 그 피투성이 아이를 그냥 내버려두어 굶겼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동안 크메르루즈는 우리에게 그들은 배신자이고 좋은 않은 예를 보였기 때문에 매를 자처한 것이라 소리치게 만들었다.

재교육 모임 때 크메르루즈가 가족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다고 한 말을 나는 믿었다. 나는 이곳에 가자마자 이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울면서 할머니, 고모에게로 가고자 했을 때 그들은 나에게 오지 않았다. 당시에는 크메르루즈가 우리를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1978년 말 무렵, 어린이 수용소를 자유롭게 떠나도 된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가족이 어디에 있는 지 알 수 없었지만 운 좋게도 누나가 나를 찾으러와 부모님께 데리고 갔다. 3년 전 부모님과 헤어진 후 다시 부모님을 만났을 때 나는 일곱 살 이었다.

나의 슬픔

다리스 케오(Darith Keo)

나는 꺼져가는 모닥불의 희미한 불빛사이로 반짝이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다. 농장 노동 감독자가 방금 전 15명의 아이들에게 나를 차라고 명령했다. 나는 일곱 살이었다. 아이들이 각각 다섯 번씩 나를 찼고, 어머니는 이를 멈추게 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엉덩이에 오래오 쿠키 크기의 궤양이 생겨 이로 인한 고열로 하루 12시간의 노동에 빠졌던 것이다. 이 궤양은 기생충에 감염된 눈에서 하루 종일 일하다 생긴 것이었다. 내 임무는 눈에서 나뭇가지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손이 작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삽으로 수로 도랑을 파야 했다.

조용히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15대를 맞고 나서 나는 그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아팠었노라고 말할 참이었다. 그러나 말을 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남은 12명의 아이들에게 다섯 번이 아닌 여덟 번을 차라고 지시했다.

하도 많이 맞아서 내 궤양은 터지고 피가 났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대가 없이 끝없는 노동을 했다. 배고픔, 구타, 처형. 이런 것들이 1975년부터 1979년까지 크메르루즈 대학살 기간 동안 내가 캄보디아에서 겪은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나는 1970년 과일린에서 태어나 바탐방에서 자랐다. 우리는 도시출신이었다. 동네에는 대략 500여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의 다 소작농이나 장사꾼들이었다. 모두가 친척이거나 친한 친구사이였다.

아버지는 내가 두 살 때 고열로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그 후로 재혼하지 않으셨다. 내가 네 살이 되었을 때 크메르루즈가 온 동네를 장악했다. B-52가 우리 지붕 바로 위로 날아다녔고 뒤 이어 폭발소리가 들리곤 했다. 우리는 폭탄이 터질 때는 집에 있거나 집 뒤에 있는 우물에 숨어 있었다. 가끔은 이웃 사람들이 우리와 합류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안고 급하게 왔다 갔다 했다.

그 소동은 몇 달간 지속되었지만 우리 집은 폭탄에 맞지 않았다. 1975년 봄 크메르루즈가 우리 지역을 장악했을 때, 그들은 공중에 총을 쏘면서 두 시간도 채 안되는 시간동안 집을 싸 시골로 향하게 했다. 그들은 미군이 우리 마을에 폭탄을 투하하려 오고 있다고 떠들었다.

대피하는 동안 크메르루즈는 새로운 국가를 불렀고, 폴 포트의 지도 아래 새로운 사회주의 정권 옹카르가 들어섰음을 말했다. 폴 포트는 그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다. 집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미국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여겨 때리거나 총을 쏘 죽였다.

크메르루즈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폴 포트 정권은 대규모 학살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크메르루즈도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걸 원하지 않아 학살을 비밀리에 진행했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은 전직 군인이나 론 놀 정부의 관계자들을 체포해 지프차와 군용 트럭에 태워 갔다. 크메르루즈는 그들에게 노로돔 시아누크 왕자의 귀국을 환영하는 행사를 위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 이모할머니의 가족이 끌려갔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었다.

5세에서 12세의 아이들은 아동노동수용소에 배정되었다. 13세 이상의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 청소년 노동 부대에 소속되었다. 우리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해야 했고, 어른들은 더 긴 시간동안 일을 했다.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밤이면 검은 파자마와 빨간 스카프를 두른 크메르루즈 이이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나무로 된 물체를 흔들며 춤을 추었다. 우리도 참여 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 그 무시무시한 춤을 추는 것보다는 잠이 더 소중했다. 폴 포트는 우리에게 세뇌교육을 시켰다.

하루에 두 번 우리는 죽을 먹었다. 가끔은 반찬으로 딱딱한 소금을 몇 개 주기도 했다.

어머니는 벼를 재배하거나 댐을 만드는 일을 하기 위해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다. 어머니는 도시 사람이라는 이유로 진흙과 거머리를 다뤄야 하는 힘든 일을 했다. 어머니가 잡혀가고 난 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를 돌봐주었다.

할아버지는 병원에서 일을 했다. 할아버지는 약초, 뿌리, 다른 자연재료를 사용해 치료하는 방법을 아는 분이셨다. 크메르루즈는 현대 의약품 사용하지 않았다. 그 병원은 충분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라고 여겨지는 크메르루즈 여성들이 운영하였다. 이 여성들은 처형이 정해진 의사들에게 3개월 정도 배운 것이 전부였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낼 때 어머니가 거의 죽어간다는 소문을 들었다. 나는 할아버지가 하던 것을 훔내 내서 최선을 다해 조개껍질, 나무뿌리, 광물을 가지고 약을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약을 빈 병에 부어 어머니의 수용소로 향하는 물자 공급마차에 몰래 숨어들었다.

황소가 끄는 그 마차는 밤에 도착했다. 수용소에 일곱 살짜리가 나타나자 사람들이 놀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 너무나 기뻐했다. 어머니는 울며 나를 껴안고 그날 밤 어머니에게 주어진 음식을 모두 나에게 주었다.

할머니 같은 모습이었지만 어머니는 겨우 스물일곱 살이었다. 어머니에게 약을 드리자 바로 마셨다. 어머니는 약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아주 차가운 느낌이 들고 입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물집이 좀 완화되는 것 같다고 했다. 어머니는 마치 마술약과 같다고 말했다.

그날 밤 어머니와 같은 그물침대에서 잠을 잤다. 전쟁 이전에 집에서 느꼈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새벽 세 시 어머니가 일하러 가야 할 때가 되자 나는 어머니와 헤어졌다. 당시 마차 운전수는 내가 몰래 타고 온 것을 눈치 챘지만 조용히 다시 내가 속한 노동수용소로 데려다 주었다.

눈을 깔고 있으면 매일 군인들이 남자와 여자들의 손을 등 뒤로 결박한 채 끌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런 장면을 볼 때 마다 내 심장은 쿵쿵 거렸다. 심장 뛰는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기도 전에 저 멀리서 울려 퍼지는 총소리를 들곤 했다. 때대로 그 군인들은 그다지 사려 깊지 않았다. 한번은 사람들에게 동그랗게 둘러앉으라고 한 다음 결혼하지 않은 한 커플을 처형하는 장면을 보라고 했다. 그 커플은 목덜미를 얻어맞고 도랑 근처로 떨어졌다. 크메르루즈 톨마니들은 그들을 구멍 속으로 쳐 넣었다. 그 커플은 경련을 일으켰고 산 채로 생매장 되었다.

모든 결혼은 크메르루즈가 정했다. 결혼 전 관계는 살인으로 다스려졌다. 음식

을 훔치는 것, 교육을 많이 받은 것, 구 정부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일했던 것 등이 살인에 해당되었다.

우리 할아버지는 대학 교육을 받았고, 숲을 관리하는 일을 했었다. 할아버지의 신분을 숨기는 것만이 우리 가족이 무사할 수 있는 길이었다. 크메르루즈가 우리 가족 중 한명이 중요한 일을 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전 가족이 몰살 당했을 것이다.

크메르루즈는 반란을 두려워했고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했다. 몇몇 사람들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잡혀서 죽고 말았다.

잡혀 살던 이 어둡던 시절에도 나는 내 어린 시절 아름다웠던 추억에 의지했다. 이러한 추억은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시간동안 하루를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집 뒤편에 있던 망고 잎의 바스락 거리는 소리를 기억하곤 했다. 비속에서 샤워를 하던 것. 집안에 들어갔을 때 느꼈던 그 따스함과 어머니가 담요로 감싸주시던 것을 생각했다. 유치원에 간 첫 날.

또한 먹을 것을 계속 생각했다. 새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었다. 할머니는 나를 위해 망고열매와 다른 과일들을 따주셨다. 할아버지는 시장에 나를 데리고 가서서 색연필, 사탕,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나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되돌아 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4년이 마치 영원과도 같게 느껴졌다. 내 추억들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다.

1978년 후반, 캄보디아 해방군이 크메르루즈를 깊은 정글 속으로 내쫓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모든 크메르루즈 군사들이 전쟁터로 갔을 때 우리는 손에 집히는 데로 가지고 도시로 돌아갔다. 해방군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수천명의 베트남군이 있었다.

마침내 우리는 우리 고향 바탐방에 도착했다. 우리 집과 할아버지의 집은 부서져 있었다. 주춧돌로 버를 탈곡했다. 우리는 베트남군을 통해 해방이 된 이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어머니는 베트남에서 받은 쌀을 가지고 국경 근처에서 태국상인들과 옷감, 사탕, 머리빗과 다른 물품들로 교환하는 무역을 시작했다. 도시에 돌아와 더 많은 쌀로 바꾸기 위해 어머니는 자신의 물건들을 팔았다. 쌀이 화폐처럼 사용되었다.

무역을 하는 10명의 상인중에 어머니만 유일한 여성이었다. 상인들은 자전거로 물건을 실어 국경까지 가곤 했다. 어머니의 자전거는 브레이크가 없었다. 어느 날 상인무리가 강도를 만났을 때 어머니는 짐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멈출 수가 없어서 도망 갈 수 있었다. 어머니는 강도들이 뒤에서 총을 쏠까봐 두려워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나중에 베트남에서는 더 이상 쌀을 주지 않았고 대신에 곰팡이 핀 옥수수를 주어 사람들이 설사를 앓게 되었다. 당시에 우리는 유엔과 적십자가 태국 국경에 살 곳을 찾는 캄보디아인들을 위해 만든 난민 수용소에 대해 듣게 되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그곳에 가야한다고 결정하였다.



공산주의 치하에서의 삶

데이브 로혼(Dave Lonh)

내 기억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도 농부로 일을 했다.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아이들과 노인들도 일을 하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맨 손으로 땅을 파고 벼를 키워야 했다. 우리는 많은 쌀을 생산해 냈지만 공산군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

일이 끝나고 나면 배를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먹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애완동물을 먹기도 했다. 나 역시도 쥐, 박지, 벌레 등 수많은 생물들을 먹었다. 우리는 동물처럼 풀을 뜯어먹기도 했다.

매일 논에서는 공산군들이 최대한으로 일을 하게끔 강요했다. 누구든 최선을 다해 일할 힘이 없으면 논에서 죽어야 했다. 한 논이 끝나면 곧바로 다른 논으로 이동했다. 장소를 옮겨가며 우리는 점점 집에서 멀어졌다. 우리는 한 곳에 6개월 이상 머물러 본적이 없었다. 우리의 삶은 안정이 되지 않았다.

크메르루즈는 정권을 잡은 초반에 나와 어머니를 떨어뜨려 놓았다. 아홉 살의 어린 아이였던 나는 어머니가 그리웠다. 나는 항상 언젠가는 이 광기어린 정권하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꿈을 꾸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도와 달라는 기도를 했다. 몇 달이 지나자 이런 생각을 종종 했다. “어머니가 아직도 살아계실까? 아님 돌아가셨을까?”

어느 날 나는 노동 수용소를 도망쳐 나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공산군들이 있는 길을 따라 걸어가야만 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만약 잡히면 나는 죽게 된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가짜 통행증을 만든 것이다. 나는 논을 지나고 옥수수 밭을 지나, 마을과 마을을 지나고 한 산줄기를 넘어 다른 산줄기로 걸었다. 집에 까지 가는 길은 하루가 꼬박 걸렸다. 검문소에서는 가짜 통행증을 내밀었다. 마지막 검문소에서 어머니가 계

신 집의 지붕이 보였다.

곧 엄마를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해졌다. 나는 위 아래로 뛰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마당에 가까웠을 때 내 키보다 더 큰 풀들이 보였다. 가슴이 내려앉는 같았고, 눈물이 마치 폭풍우처럼 쏟아져 내렸다. 오두막의 문으로 가는 길을 찾기도 어려웠다.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다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나는 마당에서부터 소리를 질렀고, 달려가 현관문을 열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했다. “엄마... 엄마... 어디 계세요?” 이웃사람들에게 어머니 소식을 물으러 갔다. 한 노인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논에 일하러 갔다고 했다. 그 곳이 어딘지 알 것 같았다. 어머니를 찾으러 바로 그곳을 향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고 곧 어두움이 깔렸다.

논에 가서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사람들에게 물었다. 그들이 어머니가 머무는 곳을 가르쳐주었다. 그곳에 갔을 때 어머니가 나를 먼저 알아보았고, 나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달려와 꼭 안아 주셨다. 감정이 복받쳐 우리는 얼마동안 울고 나서야 말을 시작했다. 어머니는 나이보다 늙어 보였다. 몸은 너무나 약해 보이고 말라 있었다. 그 기쁜 순간에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악몽

햄손 C. 타잉(Hamson C. Taing)

악몽이 무엇인가? 강한 공포심, 무서움, 두려움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꿈이다. 나는 캘리포니아 메르세데스에 있는 친구 리키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악몽을 꾸었다. 1987년 여름이었다. 자고 있는데 트럭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매형 소우트를 총으로 쏜 다음 나를 쫓아왔다. 내 기억은 이것이다.

1978년 중반 우리는 일하고 있던 농장에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 집은 바탐방 지역에 있는 1구역 1지구 강가 근처에 있었다. 가족과 떨어져 몇 달간 일을 했던 사람들 - 어린이, 노인, 남자, 여자 모두 - 은 12시간동안 다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다. 사탕수수농장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나와 내 동료는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행복했다. 우리는 낡은 옷과 그물침대, 냄비, 접시들을 챙겨 집으로 갔다. 가는 동안 공산주의 노래를 즐겁게 흥얼거리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집에 도착하자, 외계인같이 생긴 늙고 깡마른 여자 한명이 나에게 피곤한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우리 집 대문 앞에 앉아 있었다. 여자는 낡은 검은 블라우스와 허리에 두르는 천인 사롱을 걸치고 있었다. 머리는 지저분했고, 피부는 주글 주글 했다. 나도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보였지만 누군지 알아보지는 못했다.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알아들은 것이다. 그 여자가 말했다. “치하이, 너 맞니?” 나는 깊게 숨을 쉰 후 불을 타고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팔을 감싸 안았다. 그 분은 나의 어머니였다. 다시 만나게 된 기쁨에 눈물을 흘릴 뿐 우리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저 멀리서 저녁이 준비되었다는 종소리가 울렸다. 오후 다섯 시쯤이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은 그릇과 수저를 들고 저녁을 먹기 위해 일터로 갔다. 모든 사람들이 깡마르고 냄새를 풍기며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다시 만나게 되어 기뻐하는 모습이었고, 어떤 이들은 슬퍼보였다. 옹카르가 깡마

른 어머니와 형제자매들에게 고된 일을 시키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아 너무 걱정이 되었다.

수상한 사람 두 명이 다가오자 즐겁게 웃고 크게 이야기 하던 소리가 잠시 조용해졌다. 그들은 검은 유니폼을 입고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모자를 쓰고 AK-47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첩이라 불리는 키가 크고 힘이 세 보이는 피부가 검은 남자는 그들 중 한명이었다. 1978년 당시 그는 가장 잔인한 미치광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었는데 캄보디아 동부출신이었다. 그는 우리 앞에 서고 그의 파트너는 그의 등 뒤에 그를 보호하기 위해 선 다음, 지금 있는 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했다. 첩은 마치 동물 다루듯이 남자들을 때리고 죽였다.

그는 말했다. “존경하는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친구들, 나는 너희들이 가족과 함께 이곳에 돌아온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한다. 오늘 밤 옹카르가 너희들의 임무가 바뀌었음을 알리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냈다. 옹카르는 너희에게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말라고, 특히 밤에 서쪽으로 길을 건너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만일 감히 다른 곳으로 가는 자가 있다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너희가 해야 할 새로운 일을 알려줄 것이다. 자 이제 저녁식사를 시작하라.”

이 말을 듣자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크메르루즈는 어디서든 언제든 그들이 원하면 모임을 열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집중을 했다. 누구도 말하거나 일어서거나 걸어 나갈 수가 없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큰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보고 들은 바에 따르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문을 당하거나 죽을 때까지 맞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돼 보이고, 슬픔에 가득 찬 모습이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일터에서 먹을 수가 없었다. 그저 걱정스런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릇에 죽을 받았다. 우리는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올 때마다 누군가를 옹카르의 혁명노선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잡아갈 계획을 세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옹카르는 그들을 그 자리에서 혹은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고문하고 죽였다. 우리는 무서움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곧바로 우리는 집으로 갔다. 우리 가족은 둘러 앉아 그 겁나는 사건에 대해 조용히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눴다. 형 멩과 매형 싸우트는 계획을 세웠다. 매형과 형은 잘못된 것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언제 잡혀갈지 몰랐기 때문에 오렌지 농장 근처에 숨어 잠을 자곤 했다.

7시경, 마치 폭탄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고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귀를 기울였다. 갑자기 이름이 불려졌다. “맹 어머니, 맹 어머니, 얼른 오세요. 지금 가야 해요.” 어머니는 창문을 열고 한 여성이 머리 한 가득 통을 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손에는 통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막내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이봐요! 속하 어머니,” 어머니는 말했다.

“네” 그녀는 대답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로움씨, 우리는 지금 당장 트랭(태국 국경 근처의 정글)으로 가야해요! 옹카르가 우리를 그쪽으로 배정했어요. 30분 이내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나야 합니다.”

“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 있는 동안 사람들은 구역을 떠나 첩이 일하러 가라고 명령한 곳과 정 반대인 서쪽으로 아주 빠르게 움직였다. 우리는 냄비며 접시, 담요, 매트와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많은 옷을 싸면서 어찌된 영문인지 잘 몰랐다.

우리는 어둠속을 걸었다. 공기 중에 먼지가 가득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냄새로 느낄 수 있었다. 두 시간정도를 걸었지만 트랭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무척 피곤했다. 갑자기 트랭에서 말을 타고 온 한 남자가 트랭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숲에 갇히게 되었다. 사람들이 각자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나도 나무 곁에 내려놓고 낮잠을 잤다. 잠에서 깰 때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우리 그룹의 리더인 마오와 그의 조수이자 크메르루즈의 일원인 사람을 체포했다. 우리는 옹카르를 배신했다는 죄가 씌워졌다. 우리는 우리가 일하던 곳으로 돌아가기가 두려웠다.

아침 9시 30분경이었다. 해가 떠오르고 날은 더워졌다. 사람들이 다시 걸기 시

작했다. 그날 저녁 옹카르가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며, 트렁으로 갔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가족들은 모두 헤어졌다. 어떤 이들은 크메르루즈의 말을 믿지 않고 깊은 숲속에 숨었다. 어떤 이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12명(어머니, 형제 셋, 자매 셋, 매형, 형수, 두 조카와 나)이었던 우리 가족은 숲이 우거진 호숫가에 숨었다.

키가 큰 풀 옆에 있는 농장 동랑 근처 나무 아래에 적당한 장소를 찾은 후, 싸우트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려고 집으로 돌아갔다. 크메르루즈가 우리를 보게 될까봐 농장 도랑을 따라 걷지 않았다. 대신 우리는 산허리를 따라 걸었다. 우리 구역에 가까워져 길을 건너려고 할 때 나는 남쪽에서 트럭이 오는 소리를 들었다. 싸우트가 나보다 15미터 정도 앞서가 도로에 가까이 다가갈 때였다. 나는 멈춰서 사탕수수 덩불속으로 몸을 숨겼다.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는 트럭을 쳐다보았다. 트럭이 멈췄다. 그것은 군용트럭이었고 크메르루즈 군인들이 타고 있었다.

몇몇 군인들이 뛰어 내려 싸우트에게로 다가가 말했다. “동무, 멈춰서!” 싸우트는 망설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 중 몇 명이 그에게 총을 겨누었다. “손들어.”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내 몸은 떨리고 땀이 났다. 그에게 도망가라고 크게 소리 지를 뻔 했지만, 너무나 긴장을 한 나머지 바지에 오줌을 싼 것도 느끼지 못했다. 갑자기 그가 크메르루즈에게서 돌아선 후 도망갔다.

땡, 땡, 땡... 그들은 싸우트에게 총을 발사했다. 나는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힘껏, 마치 말처럼 수풀과 언덕을 지나 으스스한 숲속을 향해 뛰어갔다. 그 당시에는 그곳이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다. 나는 혼자 생각했다. “옹카르는 우리에게 집으로 돌아오면 아무도 처벌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왜 싸우트에게 총을 쏘는 것인가?” 나는 싸우트는 죽었고 크메르루즈가 여전히 나를 찾고 있다고 생각했다. 거짓 옹카르의 선전에 실망한 채로 흐느끼며 잠에 빠져들었다.

잠에서 깨고 나자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어떻게 이곳에 와 있는지 어리둥절했다. 날은 어두웠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몸은 덜덜 떨렸다. 나는 일어나 가시 많은 나무들을 벗어나고자 했지만 다리에 피가 나고 아팠다. 두 발이 찢레덩불에 엉켜 있었고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했다. 나는 상처를 입

고 지켰지만 형이 총에 맞은 곳으로 조심스럽게 천천히 대나무 막대기를 짚고 걸어갔다. 그곳에 도착해서, 무릎을 꿇고 그가 서있던 곳 주위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혹시나 피가 묻어 있지는 않을까 해서 냄새도 맡아 보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형은 사라졌다.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혹시나 형이 근처에 숨어있을 까봐 잠시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는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외로웠고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가족을 만나기 전에 내 구역으로 먼저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집에 다다르자 내 이름을 조용히 부르는 소리가 났다. “치하이, 치하이” 나는 가만히 서서 대답하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구들이 이야기했던 귀신이야기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귀신은 어떤 소리라도 낼 수 있으며 내 이름도 안다고 했다. 그것은 무척 무서웠고 머리가 쭈뼛 쭈뼛 서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처음으로 귀신에게 홀린 것이라 생각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곳을 쳐다보았다. 그 목소리가 말했다. “치하이, 나야” 그 목소리는 집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형이야?” 나는 물었다. “그래, 나야”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그리고 나서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사용하려고 했던 대나무 막대기를 내려놓았다.

싸우트 형은 무사했다. 형은 내가 도망가는 것을 보았지만 군인들이 자신만 쫓아 올 수 있도록 자신은 다른 방향으로 도망갔다고 했다. 그 군인들은 얼마 동안 형의 뒤를 쫓아 오다가 사라져버렸다고 했다. 형은 자신을 보호해 준다는 팔목에 감은 부적 같은 물건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밤이 되어 우리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 너무 어두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우리 가족은 우리가 가족이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족들은 우리를 무척 걱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물었다. “왜 이렇게 늦었느냐?” 우리는 가족들에게 총소리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고 가족들은 들었노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크메르루즈가 탈출을 계획했던 파트의 부인과 아이들을 총으로 쏘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나 가족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 총소리는 크메르루즈가 싸우트 형에게 쏜 것이었다. 어머니와 큰 누나는 이 말을 듣고 기겁을 했다. 그들은 우리 손을 잡고는 우리를 구해준 신에게 감사드렸다. 이 무서운 사건을 겪고 난 후 우리는 산 근처에 있는 바나나 농장 어딘가에 숨기로 결정했다.

열 두 가족이 우리와 동행했다. 길을 가는 동안 우리는 파트가 정권이 무너지면 그물침대에 있는 아기들을 포함한 모든 크메르루즈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만일 우리가 발각이 되면 크메르루즈는 우리를 고문하거나 죽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지쳐서 이런 것에 신경 쓰거나 겁을 먹지 않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잠이었다.

밤중에 잠에서 깨어보니, 독이 있는 덩굴에 누워 잔데다 개미에 물려 내 몸은 물집이 잡히고 가려웠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 목은 마르고 날은 어두워 무엇이 물인지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마셨다. 물맛은 이상하지 않았지만 석회가 들어있었다. 두 시간쯤 지나자 나는 소변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내 성기가 무척 아파왔다. 요도에는 피가 가득 고였다.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일을 겪었다.

하루가 지나 우리는 옹카르가 우리에게 집으로 가라고 했다는 같은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추적을 당하느니 차라리 돌아가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썸은 파트가 모든 크메르루즈를 죽이겠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나중에 썸은 파트에게 가족이 쓸 천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 삼일 후 썸은 파트의 부인에게 파트가 자신에게 준 세 개의 수류탄과 소총을 들고 도망갔다고 말했다. 파트는 썸을 만나러 같이 갔던 무고한 그의 친구 토크와 함께 죽었다. 파트와 토크의 유골은 1979년 5월에 그 구역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의 타마린드나무 아래 언덕에서 발견되었다. 발견될 당시 파트는 푸른색 셔츠를 입고 있었고 토크는 검은 파자마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1975년에서 1979년까지 크메르루즈 공산정권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했던 그 폭력과 처벌에 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은 나에게 아주 생생하다. 이 일은 우리 마을과 구역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일어났다. 나는 아직도 왜 크메르루즈가 우리를 그토록 증오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전혀 감각이 없었다. 그들은 우리를 동물처럼 때리고 고문하고 죽이면서, 이를 즐겼다. 또한 그들은 아이들에게 부모는 옹카르의 적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부모를 미워하라고 가르쳤다. 어떤 아이들은 심지어 부모를 죽이기도 했다. 나는 이런 일을 하도록 뽑히지도 않았고, 그만한 용기도 없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 정권은 끔찍했다. 나는 내 평생에 크메르루즈가 다시 정권을 잡는 모습을 절대로 보고 싶지 않다. 지금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크메르루즈의 마음속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신에게 기도한다. 또한 우리의 고통이 치유되고, 굶주림이 사라지고 평화와 정의가 내 사랑하는 조국 캄보디아에 임하기를 기도한다.



깊이 새겨진 연민

소피어 모우쓰(Sophea Mouth)

만약 한 개인이 폭력적인 상황에 계속 노출이 된다면, 그는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게 될까? 폭력의 영향이 사람의 연민을 파괴할 만큼 강력할 수 있을까? 폭력적인 상황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주 짧은 기간 동안만 인간의 연민에 영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연민은 파괴될 수 없고 오직 일시적으로만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남자가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도끼를 들고 앞뒤로 흔들고 있고, 왼손에는 다른 남자의 어깨를 강하게 붙들고 있었다. 순식간에 도끼의 날이 그 남자의 가슴을 찍었다. 피가 뿜어져 나왔고 동물들이 놀라기에 충분한 커다란 신음소리가 들렸다. 나는 처음 보는 살인 장면에서 너무 놀라 거짓미소를 지으며 그곳에서 있었다.

그 당 간부가 남자의 가슴을 열어 간을 끄집어냈다. 한 남자가 외쳤다. “한 사람의 간은 다른 사람의 음식이다.” 그리고 나서 다른 남자가 얼른 그 간을 수평으로 잘라낸 오래된 그루터기 위에 올려놓고 한 동지가 만든 불 위에다 돼지기름을 넣고 팬에 튀겼다.

그 간이 요리가 될 때, 그 당 간부는 쌀을 증류한 술을 두 병 꺼내 즐겁게 마셨다. 물론 사람의 간을 맛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그들의 파티에 참여할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구경꾼이라 생각했다. 한 동무가 나는 데려가 믿을 만한 그들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다. 믿을 만한 일원이란 노동자들에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든 알리고, 기꺼이 명령을 수행하고자 하고 그럴 능력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그 곳에 앉아 그들이 대나무 막대기를 가지고 팬에서 튀긴 간 조각을 찍어먹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야만인들 같았다. 그들의 눈은 충혈 되어 있었는데 아마

도 먹은 것에 취해서 그런 것 같았다. 그들은 나를 노려보았다. 내가 그들을 보고 있다는 걸 눈치 채자마자 나에게 그 시체를 가까이에서 보고 오라고 했다. 피냄새가 너무 강해 나는 구토를 하고 말았다.

그 동무들은 옹카르와 자신들에 대한 내 충성심을 테스트 해보기 위해 나에게 살인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 만일 내가 그들의 잔혹한 행위를 보는 것을 꺼려했다면,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 가슴에 깊은 영향을 미친 사건 중 하나였다. 나는 마비가 되었고 이러한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내 심장은 마치 드럼처럼 쿵쿵 거렸다.

이 사건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나는 내 삶을 헤쳐나가야 했다. 나는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나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을까? 이것이 내 행동과 나의 연민을 전체적으로 바꾸어 놓았을까? 대답은 아니오 이다.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기 이전, 열 살쯤에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에 대한 답을 기억나게 해준다.

시민전쟁이 일어나는 동안 나는 할머니 댁 밑에 있는 토대기둥에 앉아 있었다. 한 여자아이가 내게로 걸어왔다. 그 아이는 형짚을 입고 있었다. 아이의 등 쪽에는 하얀 실로 기운 천 자루가 하나 있었다. 영양실조 때문에 안색이 창백해보였고 두 볼은 더 이상 홍조를 띠는 모습이 아니었다. 완전히 걸어 다니는 시체 같았다. 그 아이를 자세히 살펴보고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모습에 혐오감을 느껴서가 아니라 내 동정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입양을 하고 싶었다. 만일 내 여동생이 된다면 더 이상 구걸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될 것이라 생각했다. 나와 비슷한 나이 또래로 보였지만 그녀는 나를 높은 사람처럼 불렀다. “선생님, 쌀 한 캔만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그녀가 그동안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어 왔음을 나타내 주었다. 두 눈은 절망감을 품고 있었다.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저는 캄퐁 참 지방에 살았었고 9개월 정도 구걸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폭탄에 맞아 다 부서졌고, 그 당시 아버지와 두 오빠도 죽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현재 회복중이고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녀의 천 자루를 들고 집으로 들어가 약 4kg정도

의 쌀을 가득 담아주었다. 내가 거지에게 쌀과 다른 강통에 든 것들을 주었다는 것을 가족들이 모르게 하려고 매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부모님이 혼내실까봐 두려웠다. 그러나 기꺼이 벌을 받을 작정이었다. 나는 그녀가 가족에 대해 말한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쌀을 들어다 주겠다고 했다.

도시의 끝자락에서 그녀가 멈췄을 때, 나는 어디에 살고 있는냐고 물었다. 그녀는 말했다. “바로 여기야.” 그녀가 가리킨 곳을 보니 플라스틱 조각을 두 개의 기둥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플라스틱 아래에는 두 다리가 잘린 여성이 낡은 담요를 덮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내가 누구인지 의문스러워 하였고, 그녀는 내가 자기를 무척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고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말했다. “나와 우리 딸을 도와줘서 고마워요. 당신에게 모든 행운과 영광이 함께 하길 바라고, 당신의 인생은 나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을 할 수는 없었지만 눈물이 불을 타고 흘러내려 계속 닦아냈다.

옹카르의 세뇌교육은 다른 인간에 대한 내 모든 연민을 파괴시키려는 시도였다. 옹카르는 모든 이들이 공산당에 충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정적”인 감정을 파괴시켜야만 한다고 믿었다. 언젠가 부터는 나도 옹카르가 한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세뇌로 인해 연민이 파괴되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을 받아들였다. 나는 미치지도, 혼동되지도 않았다. 내 정신은 멀쩡했고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임기응변으로 크메르루즈를 대했다.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미묘하게 행동했고 나는 그들을 여러 차례 속였다. 옹카르는 무조건 옳고 그들이 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는 절대 누군가를 죽일 수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다. 옹카르의 세뇌교육 때문에 나는 아직도 악몽을 꾸다.

가족에 대한 내 감정은 내 행동들을 설명해준다. 한 크메르루즈군인이 어머니에게 집을 떠나라고 했었다. 어머니는 혼란스러워했고, 그 군인은 어머니의 목 오른쪽을 총으로 쏘았다. 어머니는 바닥에 쓰러졌고 피가 흠어져 나와 바닥에는 피로 작은 웅덩이가 생겼다. 나는 무섭지 않았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 단호하게 행동했지만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다.

나중에 한 군인이 아버지를 잡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전직 군 간부였고 크메르루즈는 아버지를 처형시킬 참이었다. 아버지는 처형대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다. 아버지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고모의 농장으로 왔고, 우리는 몇 달 동안 농부로 살았다. 얼마 후 옹카르는 부유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숙청하기로 결정했다. 아버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무척 애를 썼다. 아버지는 크메르루즈에게 자신이 소작농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그들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한 여성 소작농이 옹카르에게 아버지의 실제 신분을 고발했다. 그러자 옹카르는 마을 사람들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아버지를 멀리 떨어진 구역으로 재배치했지만, 다들 그곳에 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한 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옹카르가 자주 사용하는 살해 수법이었다. 다행히도, 아버지는 몸이 아파 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목숨은 구했지만 늘 공포에 시달리며 살았다.

혼란 중에 옹카르는 큰 형, 큰 누나, 두 여동생, 막내 남동생을 데리고 갔다. 옹카르는 그들에게 동굴을 파고, 벼를 심고, 땀을 만들 흙을 옮기도록 했다. 큰 형은 옹카르가 자신을 굶겼다고 말했다. 옹카르는 형에게 하루에 맑은 죽 한 그릇을 주었고,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옹카르가 보지 않는 틈을 타 눈에 있는 게 등 무엇이든 눈에 보이는 데로 집어 먹었다고 했다. 내 막내 남동생은 세 녀교육 수용소에 가야했다. 다른 동생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그들은 굶주림과 고된 노동으로 몸이 무척 쇠약해졌다.

나는 소작농들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을 경험하지는 않았다. 나는 이러한 고통을 그저 목격했을 뿐이다. 나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나만큼 운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폴 포트 정권은 일부 사람들을 흉악한 인간으로 만들어놓았다. 나는 이전에 살인마였다가 지금은 종교단체를 이끌고 있는 몇 명의 난민들을 알고 있다. 그들에게 폴 포트 정권 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자신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명령을 수행함에 있어서 도덕성 따위는 생각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옹카르

가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도 죽일 수 없었다.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이는 일을 하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남을 보호하고 섬기려고 한다. 옹카르도 군 간부들도 내 의지를 꺾지 못했다. 이제 연민은 내 것이다.



토닐 샹(Tonle Sap)강 대학살

론니 임수트(Ronnie Yimsut)

뾰족한 물체가 나를 아프게 찔러 동굴의 질척한 바닥에 있던 나를 깨웠다. 천천히 눈을 떠 보니 특대형 AK-47소총으로 계속해서 나를 찌르고 있는 한 군인이 보였다. 잘해봐야 12살 정도로 나보다 몇 살 어린것 같았지만 나보다 훨씬 몸집이 좋았다. 그는 진흙바닥에서 일어나라고 격하게 고함을 질렀다. “자, 어디 한번 싸봐라.”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미 희망을 잃었다. 결국 나는 내 야위고 뼈밖에 없는 몸을 진흙바닥에서 일으켜 우리 그룹이 집회를 하는 장소로 지친 듯이 걸어갔다.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 나는 갑작스런 재배치 계획에 대해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곳으로 보내지기 전에는 한 번에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같은 곳에 머물곤 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네 줄로 정렬하라고 했다. 우리를 인도하던 적은 무리의 군인들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이 되었다. 어떤 군인들은 열 살 정도로 어렸다. 그들 중 다섯 명만 원래 그룹에서 남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당시 우리는 다 합해서 79명이었다. 그곳에서 보낸 5일 동안 어린이 6명 노인 2명을 포함해서 8명이 죽었다. 나는 79명 모두를 죽일 작정이란 왜 소수의 군인들만 있는 건지 의아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군인이 우리 앞으로 나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을 했다. 그가 말하기를, 정부를 위해 고기를 잡도록 우리 모두가 “거대한 강”이라는 의미의 토닐 샹 강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곳에는 먹을 것도 있다고 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이 소식에 관해 웅성웅성 거리며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 회의적이었지만, 우리 중 대다수가 토닐 샹 강에서 어부로 일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영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들은 우리가 듣고 싶어 하던 말을 했다. 먹을 것과 강에서 고기를 잡아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고 이 참혹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너무나 굉장한 소식이라

서 사실이라 믿기가 힘들었다. 나는 그 소식에 완전히 속았다. 나머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6-7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토널 샵 강을 향해 익숙한 진흙길을 따라 북쪽으로 데리고 갔다. 길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긴장이 풀렸다. 아마도 우리에게 진실을 말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겨우 5명인데, 어떻게 79명이나 되는 우리를 전부 죽일 수 있겠는가?

3마일 정도 가고 나자 그들은 나머지 그룹을 기다려야 한다면 잠시 멈추라고 했다. 사람들은 너무나 야윈 상태라 3마일을 오르는 동안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또 한 아이가 사망한 것이다. 군인들은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땅에 묻는 것을 허락했다.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잡히기까지 20-30분이 더 소요되었다.

해가 저물어가 가자 그들은 우리에게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했다. 그들은 우선 젊긴 나이 들었건 간에 사지가 멀쩡한 남자들은 모두 그룹 앞으로 모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칼이나 도끼와 같은 모든 종류의 연장을 가져오라고 했다. 군인들은 그들에게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 그룹이 머물 수용소를 지을 것을 명령했다. 그 남자들은 곧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줄로 길게 늘어섰다. 나는 임신한 부인에게 작별인사를 하후 어쩔 수 없이 그 대열에 합류한 샬레이 형을 보았다. 내가 형수 오움을 잘 돌보겠노라고 형에게 말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 남자들은 바로 사라졌다. 이것이 형 오움과 나머지 다른 남자들을 본 마지막이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날은 추워졌다. 토널 샵 강의 악명 높은 모기들이 밤하늘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30여분이 지나자 그 남자들을 멀리 데리고 갔던 두 명의 군인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곧바로 동료 군인들과 함께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를 논의했다. 우리 그룹에서 한 두 명이 이들이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엿들었고 그 놀라운 소식은 그룹 내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군인들은 '몇 명이 도망쳤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간신히 탈출한 몇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남자들이 모두 죽었다는 뜻이다.

저녁 7시에서 8시가 되자 우리는 다시 움직이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때까지 쓸 수 있는 힘이 남아있던 아이들은 자신들이 낼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울고

소리쳤다. 이것은 주로 배고픔과 탈진 때문이었지만 물려드는 모기떼의 공격 때문이기도 했다. 아이들의 울음소리 위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호느끼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지극히 불리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우리가 배고픔, 탈진, 모기에 물려 죽지 않는다면 군인들의 손에 죽게 될 것이다.

다가오는 죽음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 처음으로 두렵게 느껴졌다. 곧바로 도망칠까 생각했지만 시간을 두고 고려해보니 그럴 수 없었다. 나는 가족, 특히나 이제 출산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임신한 형수를 두고 떠날 수 없었다. 게다가 내가 여기서 어디로 가겠는가? 결국엔 잡혀서 죽게 될 것인데 말이다. 만일 내가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가족들 곁에서 죽는 게 낫다. 도망칠 기회는 많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오음 형수가 내 오른쪽 어깨에 기대고, 왼쪽어깨에는 짐 보따리를 짊어진 채로 나는 마지못해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밤은 참 아이러니했다. 우리는 도축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모든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걷고 있었다. 아이들도 다 눈치 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듣고 본 것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토널 샵 강에 다다르기 몇 마일 전, 군인들은 우리에게 계획됐던 대로 북쪽을 향해 계속 내려가는 대신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라고 했다. 그 길은 무척 질퍽질퍽하고 끈적끈적했다. 발을 내딛을 때마다 마치 진흙 속에 들러붙는 것 같았다.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고 무척 번거로웠다. 몇몇 사람들은 사람을 빨아들이는 유사와 같은 진흙에 오도 가도 못하게 갇혀 버렸고, 군인들은 그들을 발로 차고 때렸다. 그들이 다시 진흙에서 빠져나왔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오음 형수를 도와 앞으로 걸어가기에 온 정신을 쏟은 나머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 모든 시간동안 마음을 침착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했다. 오음 형수를 돕기에는 이제 역부족이었다. 형수의 소리 없는 울음은 이제 본격적인 신음소리로 바뀌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형수는 확신 할 수는 없지만 진통이 오거나 분만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그녀의 첫 번째 아이였다. 형수도 나도 출산이나 진통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

로 없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군인들이 와서 우리를 때려죽이지 못하게 형수를 진흙바닥에서 끌고 가는 것뿐이었다.

군인들이 동쪽에서 서쪽을 연결하는 작고 얇은 동굴의 가장자리에 우리를 앉게 했을 때 그곳은 큰 도로에서 3k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는 두 다리를 앞으로 뻗었고 매를 맞지 않으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다. 몇 분 사이에 갑자기 근처 숲 속 은신처에서 50여명의 군인들이 나타났다. 날이 무척 어두웠지만 그들의 실루엣을 보니, 그들이 AK-47 소총과 카빈총, 큰 몽둥이를 손에 든 군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한 군인이 우리에게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고, 나머지 군인들은 우리를 에워쌌다. 그들의 총은 우리를 겨누고 있었다.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다.

그 군인들은 우리에게 입 다물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할 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 중에 적이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다. 우리 중에 베트남의 스파이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는 서로를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주장이었다. 이것은 우리를 조용하고 약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의 통제 하에 두려는 그들의 더러운 속셈이자 전략이었다. 항의를 할 수 있는 힘이 센 남자들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그룹에 남은 사람은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뿐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갔다. 이미 계획된 전략이었던 것이다.

한 군인이 나에게 다가와 먼 수건을 확 잡아당겨서 긴 조각으로 찢었다. 군인들은 처음으로 나를 그 먼 조각으로 단단히 묶었다. 나는 너무나 놀라고 두려웠다. 조금 저항을 해보았다. 총자루로 머리를 몇 차례 맞고 나자, 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끔 내버려두었다. 머리는 찢어져 피가 흘렀다. 아직 반은 의식이 살아있어 통증도 느끼고 피가 얼굴위로 쏟아지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은 만일 저항을 하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나를 이용했다.

군인들은 아무런 문제없이 나머지 사람들을 재빠르게 묶을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은 무척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간청했다. 피가 계속해서 얼굴을 타고 흘러 오른쪽 눈에 들어가면서 나는 점점 현기증이 났다. 피와 고통 때문이 아니라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점점 공포감도 무더졌다.

군인들이 사정없이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할 때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오음 형수의 나이든 아버지가 내 바로 옆에 계셨는데, 몇 차례 상반신에 폭력을 당한 후 내 쪽으로 쓰러지셨다. 이 때 내가 아는 작은 아이가 일어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따뜻한 것이 내 얼굴과 몸에 튀겼다. 그것은 분명 진흙은 아니었다. 그것은 충격으로 튕 그 아이의 피 아니면 뇌 조직이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짧지만 겁에 질린 소리를 냈고, 사람들이 숨이 멎은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모든 일이 슬로우 모션처럼 일어났고, 사실이 아닌 것만 같았다. 나는 눈을 감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소리는 계속해서 내 귀를 타고 들어와 고막에 꽂혔다. 얼굴을 땅 쪽으로 향하고 누워있었을 때 누군가 나를 때렸다. 오른쪽 어깨 견갑골을 맞았다. 다음으로는 목 바로 위, 오른쪽 머리 부근을 맞았다. 그 후 15번이나 때리는 소리가 들렸고 희생자들은 내 마른 몸 위로 넘어졌다.

다행히도 나는 통증을 오래 느끼지 않았다. 그 이후로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그날 밤 무척 잠을 잘 잤던 것만 기억난다. 내 몸 위에서 벌처럼 웅웅거리던 모기 소리에 잠이 깼다. 당시 엄청난 수의 모기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의 피를 실컷 빨아먹고 있었다. 나는 근육을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을 떴지만 앞이 흐려 잘 보이지 않았다. 맹인이 된 것 같았다. 나는 정신이 혼미했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다. 근데 왜 이리 많은 모기가 있는지 의아했다. 내가 어디에 있었던 거지? 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지? 그때까지도 나는 형겅으로 묶여 있었다. 시간이 좀 지나자 앞이 조금 보였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흐릿해 보였다. 시야에 맨발이 들어왔지만 누구의 발인지는 알 수 없었다.

갑자기 빠른 속도로 현실로 돌아왔고, 나는 흠뻑 땀을 흘렸다. 그 사건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 내 머리를 강타했다. 그제 서야 내 온몸과 머리에서 느껴지던 예리하고도 묵직한 통증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무척 추웠다. 살면서 그렇게 추워본 적이 없었다. 공포심이 내 마음에 짙어 퍼졌다. 갑자기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전부 기억이 났다. 내가 진짜 죽은 것인가? 죽었다면 왜 아직도 이런 고통을 느끼는 거지?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똑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아직 살아 있는 것이다. 나는 살았다! 왜? 나는 왜 내가 아직까지 살아서 이 고통을 느껴야 하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나는 죽었어야 했다.

새벽의 희미한 빛이 밝아오자 진흙 속에서 추위에 떨며 피에 흠뻑 젖어 있던 내 몸이 드러났다. 그 날은 1978년 1월 1일 아침 4시에서 5시정도였음에 틀림없다. “오늘은 행복한 새해가 아니군,” 나는 생각했다. 날은 아직도 어둡고 추웠다. 내 운동기능들이 서서히 돌아오기 시작했고 무척 힘들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쌓여있는 시체들에 기대어 겨우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리고는 형겅을 풀기 시작했다.

몇 번의 고통스런 시도를 한 후에 형겅을 풀 수 있었다. 눈도 잘 보이기 시작했지만 온 사방에 널린 시체들을 보니 차라리 맹인이었으면 하고 바랐다. 어떤 이들은 의식을 완전히 잃었고 어떤 이들은 나체 상태였다. 이미 어두운 색으로 변한 핏자국들은 그곳을 새로운 곳처럼 보이게 했다. 분명히 그다지 보기 좋은 광경은 아니었다.

나는 가족들을 찾고 싶었지만 몸을 돌릴 수가 없었다. 목이 통증으로 뻣뻣해졌다. 머리도 아팠는데, 엄청나게 통증이 심했다. 나는 내 주변에 손을 뻗을 수 있는 곳만 느낄 수 있었다. 손을 뻗는 곳마다 차가운 살갓이 만져졌다. 두 손은 너무나 떨렸고 그 떨림을 멈추게 할 수가 없었다. 내 옆에 있던 몇 구의 시신을 알아보았을 때 나는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한 구의 시신은 오음 형수와 태어나지 않은 아이였다. 갑자기 눈을 떴을 때 보았던 맨발이 생각났다. 그것은 형수의 발이었던 것이다. 형수의 늙은 아버지와 두 명의 자매도 마치 죽기 직전에 서로를 껴안고 있었던 것처럼 서로의 몸이 겹쳐져 나란히 죽어 있었다.

나는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었다. 내 울음은 흐느낌이 되었고, 이는 핏기 없는 내 몸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모기 소리를 제외하고는 주변에서 나는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점점 정신을 잃어갔고 마치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시체더미 위로 다시 기절했다.

사람들이 킬링필드로 다가 오는 소리를 듣고 깨어났다. 일어나 앉아 주의 깊게 들었다. 나는 다시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나를 완전히 죽이려고 다시 돌아왔구나.”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저들이 나를 산 채로 물어버릴 거야!”

내 생각에 아마도 그들이 그럴 것 같았다.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나는 이미 죽었었다. 내 살고자 하는 본능이 마침내 꿈틀거렸을 때, 나는 그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가까워 옴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할 준비를 했었다. 몸에 힘을 주어 근처에 있는 수풀로 조금씩 움직였다. 내가 있던 곳에서 겨우 20피트 떨어진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잘 보이는 곳에 자리를 잡았다. 사람들이 곧 도착했다. 내 생각이 맞았다. 군인들은 새로운 무리의 희생자들을 데리고 왔다. 대부분이 남자였지만 여자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모두 손이 밧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다.

한 군인이 명령을 내렸다. 해가 완전히 떴을 때, 나는 다시 한 번 사람을 학살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곧바로 그 희생자들은 시신이 아직도 진흙바닥에 흩어져 있던 내 가족과 친구들처럼 죽을 때까지 매를 맞았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온 몸이 격렬하게 떨렸고 속이 울렁거렸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러 죽게 될까봐 왼손으로는 입을 단단히 틀어막았다. 마치 똑같은 고통스런 경험을 또 다시 겪는 것처럼 느껴졌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다. 정신이 또 멎해졌고 또 다시 기절했다.

다음 날 저녁이 되어서야 정신이 들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쪽으로 다가왔다. 아마도 학살을 당할 희생자들을 더 데려온 것 같았다. 나는 내 추측이 맞는지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팔꿈치와 무릎으로 기어서 조금씩 움직였다. 더 이상 피가 나지는 않았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배도 고프고 갈증도 많이 났다. 입술은 뜨거운 태양빛 아래의 진흙처럼 갈라졌다. 얼른 물을 찾지 않으면 목이 말라 죽을 것만 같았다. 알고 마른 동굴을 따라 서쪽으로 간 후 북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날은 다시 캄캄해졌고 무척 추웠다. 가다보니 뚝고 들어 갈 수 없는 덤불과 숲 사이에 갇히게 되었다. 넓은 숲을 빠져나갈 길을 찾아 왔다 갔다 하다 보니 결국 내가 출발했던 곳, 킬링필드 근처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로부터 17일 동안 나는 숲 속에 숨어 있었다. 나는 낮에만 잠을 잤고, 밤에는 먹을 것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을 침입했다. 상처는 빠르게 회복이 되었고 주변 마을에서 훔친 음식덕분에 살도 조금 올랐다. 나는 한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겼고 위험요소가 없는지 항상 주시했다. 군인들이

나를 찾는 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행히 그들 보다 한 두 발자국 앞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들은 항상 시체의 수를 세었고, 만약 하나라도 없어진다면 수색에 나서 도망친 사람을 다시 잡아오곤 했다. 17일 동안 나는 정글의 왕이었다.

한번은 실수로 나처럼 숲에 숨어있던 한 무리의 도망자들 위로 넘어진 적이 있었다. 그들은 나를 크메르루즈의 스파이로 생각해 나를 죽이려 했다. 거의 죽기 직전에 최근에 입은 상처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

우리는 태국으로 향했다. 240km의 산길을 15일 동안 걸은 후에 우리는 태국 감옥에 수감되었고 이후 교도소로 갔다. 태국 정부는 우리가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 도착했기 때문에 우리를 정치범으로 생각했다.

우리와 같은 600여명의 사람들이 가로 세로 75미터짜리 감방에 수용되었다. 그곳의 생활환경은 좋지 않았고, 태국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더욱 안 좋았지만 크메르루즈의 강제 노동 수용소에 있는 것 보다는 태국 감옥에 있는 편이 훨씬 나았다. 최소한 사람처럼 먹고 옷을 입을 수는 있었다. 죄수들 중에 가장 어렸던 나는 그래도 좀 더 나은 대우를 받았다. 나는 몇 명의 간수들과 친해져, 태국 국경에서 생활한지 4주 후에는 9kg정도 살이 졌다. 이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38kg이 채 안되었었다.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근처의 난민 수용소로 옮겨가기 전까지 우리는 태국 감옥에서 5개월을 살았다. 난민 수용소에 있는 동안 크메르루즈와 맞서 싸울 해방군을 모집하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내가 너무 어리고 말랐다는 이유로 나를 받아주지 않았다. 이제 18살이 되었다고 이야기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싸우러 갈 수 없었고, 수용소에 머물러 있다가는 자살을 하게 될 것 같았다. 나는 살아야 할 명분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미 자살을 선택한 다른 난민들처럼 나도 생을 마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쉬운 길이었다. 나는 생존자였다.

어느 날 CBS의 뉴스 프로듀서 브라이언.티.엘리스(Brian T. Ellis)가 수용소에 왔을 때 내 삶은 변하기 시작했다. 훗날 미국에서 방송되었던 프로그램 캄보디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나를 취재했다. 엘리스는 나를 수용소 밖으로 데리고 갔다. 몇 달 만에 처음이었다. 나는 자유를 만끽했고, 무척이나 좋았다. 엘리스씨와 보낸 그날은 나에게 너무나 특별했고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엘리스씨가 떠난 이후에 내 삶은 좋은 방향으로 변해갔다. 이제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것이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였던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둠던 12월 밤의 대학살에 대한 악몽을 꾀다. 이 기억은 평생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아직도 이때를 떠올리면 공포를 느낀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이러한 정서적인 외상을 치료해 주지는 못했다. 이것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래로 나는 오랫동안 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내 삶은 지속되어야만 한다.



용어 설명

앙카르(Angka) - 크메르루즈의 공산당 정치국. 이 용어는 20세기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대 캄보디아 제국에서 유래했다.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사원 앙코르와트가 이 제국시대에 지어졌다.

불교(Buddhism) - 캄보디아의 국교. 불교정신은 선하게 살고 내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비폭력과 삶에서의 좋은 업을 쌓는다는 원리를 기본으로 한다.

해방군(Freedom Fighters) - 1979년 1월 크메르루즈를 패배시키기 위해 베트남군과 함께 싸웠던 캄보디아 무장단체

크메르공화국(Khmer Republic) - 1970년 3월부터 1975년 4월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던 론 놀(Lon Nol)정부. 시하누크 왕자를 축출한 친 서방정권으로써 크메르루즈에게 패해 정권을 넘겨주었다.

크메르루즈(Khmer Rouge) - “붉은 크메르”는 베트남 전쟁 중에 강성해진 캄보디아 공산당을 창설했다. 5년간의 시민전쟁이후 폴 포트가 이끌었던 크메르루즈는 1975년 4월 17일 론 놀의 크메르공화국을 타도했다. 크메르루즈는 캄보디아를 농업사회로 변화시키려 모든 캄보디아인들을 시골로 몰아내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들은 모든 제도와 가족, 종교를 폐지했다. 그들의 통치기간동안 약 2백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살해당하고, 굶주려 죽고, 질병으로 사망했다. 아이들, 노인, 장애인, 종교인, 소수계층 할 것 없이 모두가 희생되었다. 크메르루즈는 베트남이 침입해 캄푸치아 인민공화국이라 불리던 새로운 캄보디아 공산정부를 설립한 1979년 1월 7일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다.

크라마(Krama) - 목이나 머리, 몸에 걸치는 캄보디아 전통 스카프

론 놀(Lon Nol) - 1970년 3월 시하누크 왕자를 몰아내고 군주의 자리에 오른 친 서방성향의 군지도자. 론 놀은 애국자로서, 베트남공산당과 크메르루즈가 캄보디아에서 세력을 확장하도록 하는 시하누크의 정책에 반대했다. 그는 캄보디아를 서방세계와 동맹관계를 가진 크메르공화국으로 탈바꿈시켰고 크메르루즈가 정권을 잡기 2주일 전에 캄보디아를 떠났다.

이동 청소년 그룹(Mobile youth groups) - 크메르루즈가 통치하던 동안, 아이들은 나이와 성별에 따라 여러 가지 노동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이동 청소년 그룹은 목재를 자르거나 댐을 건설하는 등의 사업을 위해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먼 곳으로 파견되어 일을 했다.

이방인 혹은 도시 사람(New people or city people) - 캄보디아 시민전쟁중에 도시에 살던 사람들. 크메르루즈에 의한 프놈펜 함락이전까지 론 놀과 그의 군대가 도시들을 통치했다. 크메르루즈는 이 도시 사람들이 미국식 제국주의로 인해 부패되었다고 여겨 무척 경멸했다.

기존인 혹은 시골 사람(Old people or village people) - 론 놀 정권과의 시민전쟁 당시 크메르루즈가 “해방시킨”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 크메르루즈는 이 사람들을 도시 사람들 보다 더 신뢰했으며 더 나은 대우를 해주었다.

캄푸치아 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Kampuchea) - 1979년 1월 7일, 베트남이 크메르루즈로 부터 캄보디아사람들을 해방시켰다. 베트남군은 훈센(Hun Sen)이 이끄는 캄보디아 정권을 설립하였다. 이 정권은 1993년 민주선거가 실시되기 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하였다. 현재는 연립정부가 캄보디아를 통치하고 있다. 이는 독립연합전선(the National United Front for an Independent)의 나나리드왕자(시하누크 왕자의 아들)와 훈센을 포함한 이전 캄푸치아 인민 공화국의 구성원들이다.

프놈펜(Phnom Penh) - 캄보디아의 수도

폴 포트(Pol Pot) - 본명은 살로쓰 사(Saloth Sar). 프랑스 내 학생들 사이에 공산주의 사상이 유행하던 곳에서 폴 포트는 유학을 했다. 1950년대 캄보디아 정글에서 지하 공산당에 가입할 당시 이름을 폴 포트로 바꾸었다. 그가 지휘하던 크메르루즈는 1975년 4월 17일 권력을 잡았고 1979년 1월 7일 베트남군이 쳐들어와 퇴각하기 전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다. 폴 포트와 그의 당으로 인해 킬링필드라 불리던 통치 기간 동안 약 2백만 명의 캄보디아인들이 사망하였다.

재교육(Reeducate) - 크메르루즈가 사용하던 용어. 이는 세뇌나 처형을 의미했다. 크메르루즈는 강제노동수용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전 캄보디아를 잊기 원했으며,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 장시간동안 모임을 하는 곳에 보냈다. 어떤 이들은 데려가 죽이기도 했다.

노로돔 시하누크 왕자 (Prince Norodom Sihanouk) - 시하누크는 왕자로써 1955년부터 1970년 론 놀에 의해 축출될 때 까지 캄보디아를 통치했다. 1960년대 말 중립을 외치며 베트남공산당과 동맹을 맺고 이들이 캄보디아 국경근처를 군대 은신처와 물품 공급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였다. 1970년에 권력을 잃은 시하누크는 중국으로 갔고 그곳에서 명목상 크메르루즈의 총수가 되었다. 1976년 크메르루즈가 그를 가택 연금시킬 때까지 그의 지위는 유지되었다. 1978년 폴려난 그는 중국으로 망명해 현재까지 그곳에서 살고 있다.

